# 아버지의 법

마지막 공화국 연대기 · 제1권

이승민

아버지의 법

지은이 이승민

마지막 공화국 연대기 · 제1권

© 이승민

# 목차

제1장 커피 두 잔.....1
제2장 돈의 행방.....8
제3장 금요일 밤.....15
제4장 벨마르.....22
제5장 올바른 노선.....30
제6장 우리의 미래.....37
제7장 닫힌 가게들.....45
제8장 작은 타협.....51
제9장 나눌 몫.....57
제10장 같은 광장.....64
제11장 고쳐 쓴 말.....69
제12장 끝나고 만나는 자리.....74
제13장 안으로 가지 않기.....78
제14장 기다리라는 말.....83
제15장 돌아오지 않은 사람.....92
제16장 이름을 올리는 일.....98
제17장 한 장의 얼굴.....103
제18장 같은 광장.....109
제19장 허락하지 않은 것.....113
제20장 남의 문장.....118
제21장 남겨 둔 날짜.....121

제22장 빠진 줄.....126
제23장 남은 사람들의 일.....131
제24장 대표하는 사람.....136
제25장 들을 수 있는 말.....140
제26장 자기 몫의 전달.....144
제27장 이름과 소지품.....148
제28장 먼저 돌아온 전화.....151
제29장 대답이 필요한 자리.....155
제30장 서로 다른 대답.....158
제31장 돌아갈 집.....162
제32장 보이지 않는 곳.....167
제33장 기사가 남는 곳.....172
제34장 다음 명함.....176
제35장 남겨 둔 선반.....180
제36장 사진 뒷면.....185

# 제1장 커피 두 잔

2057년 2월 24일 토요일

클레르는 커피잔부터 붙잡았다. 의자를 당기다가 건드린 식탁이 기울었고, 루시앙이 어젯밤 다리 밑에 괴어 놓은 종이가 발등에 떨어졌다.

"아직도?"

세면실에서 그가 물었다.

"오늘은 내 쪽으로 기울어."

"그럼 앉는 자리를 바꾸자."

"아주 훌륭한 수리네."

그가 칫솔을 문 채 나와 식탁을 들었다. 클레르는 종이를 다시 접어 밀어 넣었다. 뒷면에 치수가 적힌 식당 영수증이었다. 둘이 손을 떼자 잔 속의 커피가 멎었다.

"오늘은 버티겠지."

그는 이를 마저 닦으러 갔다. 클레르는 그의 자리에서 자기 잔을 가져왔다. 루시앙은 아무것도 넣지 않았고 그녀는 카다몸을 조금 넣었다. 식탁 가까운 쪽부터 놓는 바람에 두 잔은 대개 뒤바뀌어 있었다.

창문 아래로 전차가 지나갔다. 아직 난방이 덜 오른 부엌에서 잔을 쥔 손만 따뜻했다. 오늘 근무는 아홉 시부터였다. 토요일인데도 일찍 깼다는 것이 아까워 클레르는 휴대전화를 뒤집어 놓았다.

루시앙이 돌아와 그녀의 어깨에 입을 맞췄다. 치약 냄새가 났다.

"팔 좀."

그녀가 팔을 들자 그가 등받이에 걸린 조끼를 빼냈다. 어깨에 입을 맞춘 것은 조끼를 가져가기 위해서였느냐고 묻기도 전에 그가 반대쪽 어깨에도 입을 맞췄다.

"이쪽은 그냥."

"계산이 빠르네."

그는 의자를 끌어다 그녀 옆에 앉았다. 혼자 옷 입을 때는 잠깐이면 되는 사람이 같이 있는 아침에는 양말 한 짝을 신는 데도 오래 걸렸다. 오늘은 발을 뻗은 채 우편물부터 열었다. 식당에서 온 봉투에는 가을 대관 예약금의 영수증 사본이 들어 있었다. 지난해 십일월에 지불한 돈이었다.

"석 달이나 걸렸어." 클레르가 말했다.

"원본은 있잖아."

"원본을 잃어버릴 시간을 주고 사본을 보내는 거구나."

그가 영수증의 이름을 짚었다. 두 사람의 이름이 나란히 있었다. 날짜와 금액보다 그 줄을 먼저 보는 것이 클레르는 좋았다. 그녀도 보고 있었다는 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식당 전화번호를 확인했다.

"손님을 좀 줄일까?"

"아직 명단도 안 썼는데."

"안 썼으니까 줄이기 쉽지."

그는 웃으며 양말을 마저 끌어 올렸다. 클레르는 자기 몫의 손님 이름을 적으려다가 두 번째 봉투부터 열었다. 임대관리사무소에서 왔다. 클레르 모로 귀하. 계약 갱신 때 임대료를 여섯 퍼센트 올린다는 내용이었다. 그녀는 숫자를 읽고 봉투를 그에게 건넸다. 그가 말없이 계산기를 켰다.

창문에 손가락 한 마디만큼 김이 서렸다. 루시앙은 새 월세를 적은 뒤 두 사람의 월급이 오를 금액도 적었다. 마지막 숫자가 나오자 화면을 식탁 위에 놓았다.

"내 야간 수당을 넣으면 절반은 돼."

"당신 야간은 매달 다르잖아."

"그건 그래."

"밤마다 일하고 결혼식에서 자면 내가 혼자 인사해야 돼."

그가 웃었다. 그러나 계산기 화면은 끄지 않았다. 클레르는 예약금 영수증과 임대료 통지를 나란히 놓았다. 아직 정하지 않은 하객 수를 줄인다고 이번 달 돈이 돌아오지는 않았다. 월요일에 급여명세가 나오면 함께 계산하기로 했다. 그가 잔에 입술을 댄 채 잠깐 눈을 감았다. 며칠째 새벽 근무였다.

"식당은 줄이지 말자." 그가 말했다.

"사람을 줄이자고 했지 식당을 줄이자고 했어?"

"당신 아버지 앉힐 자리도 있어야 하니까."

클레르는 우편 봉투의 풀 붙은 부분을 손톱으로 문질렀다.

"명단 쓸 때 얘기해."

루시앙은 그녀가 먹다 둔 빵을 접시째 가져가 반으로 잘랐다. 단단한 껍질을 그가 가져갔다. 늘 그랬던 것은 아니었다. 그녀가 잇몸이 붓는다고 한 뒤부터였다.

* * *

마르타는 여덟 시가 조금 지나 전화를 걸었다.

"내가 지금 깨달은 게 있어요."

"지금 일어났다는 거?"

"알람은 일어나라고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몇 번 실패했는지 알려주려고 있는 거예요."

클레르는 세면실 거울 앞에서 전화기를 선반에 세웠다. 화면 속 마르타의 머리는 한쪽만 납작했다. 그녀는 이불을 어깨에 두른 채 바닥에서 뭔가를 찾고 있었다.

"너 오늘 가게 안 가?"

"열 시. 그래서 지금 여유가 있어요."

"네가 열 시에 가는 걸 여유라고 부르는 거구나."

"머리만 감으면 돼요. 나머지는 다 어제 했어."

루시앙이 문 앞을 지나가다 화면에 얼굴을 들이밀었다.

"아침도 어제 먹었어?"

"오빠는 진짜 남이 말할 때 끝까지 좀 들어요."

그는 가려다가 돌아와 한마디를 더 했다.

"신발 냉장고 앞에 있어."

마르타가 허리를 숙였다. 잠시 화면에서 사라지더니 신발 한 짝을 들고 나타났다.

"어떻게 알았어?"

"지난번에도 거기 있었어."

"우리 집을 너무 잘 알아. 앞으로는 출입을 제한할게요."

클레르는 웃다가 눈썹을 잘못 그렸다. 면봉을 찾는 동안 마르타가 다음 주 금요일에 라미레에 가자고 했다. 루시앙은 달력을, 클레르는 근무표를 확인했다. 둘 다 된다고 하자 마르타는 그제야 새 크림을 가져가겠다고 했다.

"이번 건 그냥 맛있다고 하면 안 돼요. 가게에 내놓을 수 있는지 말해 줘요."

"벌써 가게를 구했어?"

"아직요. 그래서 돈 안 드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하면 화낼 거잖아."

"그러니까 술집에서 먹어야지. 화나면 다른 데 볼 수 있게."

그녀는 전화를 끊기 전에 토요일에 엽서를 사러 간다는 말을 했다. 한나는 주말마다 딸에게서 사진 한 장을 받았다. 멀리 여행 간 사람처럼 엽서 앞면을 찍어 보내는 것이었다. 실제 마르타는 문방구와 빵집 사이를 오갔다. 이번 주에는 바다가 있는 도시를 고르겠다고 했다.

"엄마가 지난주 건 너무 춥대요."

"사진도 날씨를 타?"

"엄마는 타요."

통화가 끝나자 클레르는 면봉을 쓰레기통에 버렸다. 거울 속 눈썹은 양쪽이 조금 달랐다. 지우고 다시 그릴 시간은 있었다. 그녀는 그냥 두었다.

* * *

전차에서 내려 병원까지 걸어가는 길에 베르리 광회랑을 지났다. 유리 지붕은 밤사이 맺힌 물방울로 뿌옇고, 가게 문 앞의 빈

상자에서는 젖은 골판지 냄새가 났다. 반대편 입구의 전등 몇 개가 꺼져 있었다. 낮에는 별 차이가 없었다. 저녁 근무를 마치고 돌아올 때는 그 구간에서 가방 지퍼를 손끝으로 찾아야 했다.

바닥 타일 끝이 들려 있었다. 클레르는 발끝을 옆으로 옮겼다. 앞서 걷던 남자가 유모차를 조금 들어 올렸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안의 아이는 깨어나지 않았다. 회랑을 나서자 시청 홍보 버스가 큰길을 지나갔다. 창문 아래에 '아우레몽은 함께'라고 적혀 있었다.

병원 탈의실에서 동료는 식탁 다리에 패드를 붙이라고 했다. 클레르는 고개를 끄덕이고 가운을 입었다. 점심은 밀린 검체를 정리하느라 늦었다. 퇴근길에 빵을 사 가겠다고 보내자 루시앙에게서 답이 왔다.

'달걀 있어. 아무것도 사지 마.'

잠시 뒤 하나가 더 왔다.

'배고프면 하나만.'

클레르는 두 개를 샀다.

* * *

저녁을 먹고 나서 루시앙이 책장 아래를 비웠다. 바닥에 책이 쌓이자 방이 좁아졌다. 사 년 전에 함께 산 책장은 쓰는 데 문제가 없었지만, 옆에 붙이기로 한 마지막 선반은 벽에 닿아 맞지 않았다. 그는 올겨울에야 판을 다시 잘라 왔다. 클레르는 판이 집에 들어온 뒤로 먼지를 세 번 닦았다.

"오늘은 진짜?"

"판만 잡아줘."

그녀가 잡자 그가 나사 위치를 맞췄다. 구멍 하나가 어긋났다. 루시앙은 드라이버를 내려놓고 눈높이를 낮췄다. 클레르는 웃지 않으려고 입술을 물었다.

"웃어도 돼."

"웃으면 떨어뜨릴 것 같아서."

결국 둘 다 바닥에 앉았다. 그는 억지로 나사를 돌리지 않고 안쪽 받침을 옮겼다. 클레르는 판 끝을 무릎에 올렸다. 창틀에서 바람이

들어와 발이 시렸다. 그녀가 발가락을 움직이자 루시앙이 자기 슬리퍼 한 짝을 밀어 주었다.

"한 짝만?"

"나도 발이 있어."

"그건 알지."

그녀는 한쪽 발을 슬리퍼에 넣고 다른 발은 그의 발등에 올렸다. 루시앙은 잠깐 그대로 있다가 다시 나사를 돌렸다.

현관 쪽에서 열쇠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그가 외투를 벗다 얕은 선반 끝에 걸쳐 둔 열쇠였다. 클레르는 판을 받친 채 그것을 보았다. 노란 플라스틱 고리는 낡아 한쪽 가장자리가 하얗게 닳았다. 2051년 가을, 그녀가 여분 열쇠에 끼워 건넸던 것이었다. 그때 그는 받기 전에 정말 괜찮겠느냐고 물었다. 지금은 가끔 그녀보다 먼저 집에 와 있었다.

"다 됐어."

루시앙이 판을 두드렸다. 클레르는 무릎을 뺐다. 선반이 남아 있었다.

바닥의 책을 옮기다가 그의 전화가 울렸다. 그는 그 자리에 앉아서 받았다. 화요일에는 여섯 시 반에 갈 수 있다고, 커피는 자기가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전화를 끊은 뒤 그가 책을 다시 들었다.

"새로 오는 사람 있어. 우리 모임에."

"그때마다 당신이 커피 타?"

"처음 갔을 때 나도 얻어 마셨거든."

"잘 탔어?"

"끔찍했지. 내가 맡게 된 이유야."

클레르는 그가 건넨 책을 새 선반에 꽂았다. 가장 무거운 것은 아래에, 자주 보는 것은 위에 두기로 했는데 두 기준에 다 걸리는 책이 여럿이었다. 둘이 잠시 다투다가 결국 그녀가 앉는 쪽에 요리책을 모았다. 루시앙이 불평하는 사이 그녀는 빈 공간에 그의 배차 시험 책을 넣었다.

그가 표지를 한 번 쓸었다.

"접수는 금요일까지야."

"그럼 월요일에 돈 계산하고."

"가을 지나서 봐도 돼."

클레르는 책을 빼서 식탁으로 가져갔다. 아침에 펼쳐 둔 임대료 통지 위에 놓으려니 두께 때문에 자꾸 미끄러졌다. 그녀는 종이를 옆으로 옮겼다.

루시앙이 바닥에 남은 나사 두 개를 작은 접시에 담았다. 그녀가 책을 펴는 동안 그는 냄비를 꺼내 내일 먹을 달걀을 삶기 시작했다.

# 제2장 돈의 행방

2월 26일 월요일

검체 보관함의 셋째 줄이 비어 있었다. 클레르는 번호표를 보고 둘째 줄을 다시 확인했다. 자리가 바뀐 것도 아니었다. 야간 근무자가 옆에 붙여 놓은 쪽지에는 다른 병원으로 보냈다고 적혀 있었다.

"급한 것부터."

뒤에서 동료가 말했다. 클레르는 쪽지를 떼지 않고 몸을 옆으로 비켰다. 동료가 새 상자를 내려놓았다.

"이건?"

"오늘 들어온 거. 우리가 해야 해."

시약의 다음 입고일은 사흘 뒤에서 엿새 뒤로 바뀌어 있었다. 발주가 늦었느냐고 묻자 동료가 천장을 보았다. 늘 하던 짧은 동작이었다. 이번에는 '제품명이 달라졌대'라는 말이 따라왔다.

"같은 물건인데?"

"같은 물건인지 확인하는 중이래."

클레르는 안내문을 읽었다. 포장과 상품명이 바뀐 시약은 계약 목록에 없어 기존 코드로 받을 수 없었다. 검사실이 호환 자료를 보냈지만 검토 부서는 원본 인증서를 요구했다. 원본은 오고 있었다. 검체도 오고 있었다.

클레르는 남아 있는 시약 수를 확인해 선임에게 전달했다. 급한 검사는 외부로 보내기로 했지만, 환자에게 언제 결과가 나오는지 설명하는 일은 이쪽에 남았다. 열 시가 되기도 전에 전화가 세 번 왔다. 같은 병동에서 두 번, 외래에서 한 번이었다.

세 번째 전화를 끊으면서 그녀는 '최대한 빨리'라는 말을 입 안에서 지웠다. 이미 두 번 썼다.

점심시간에 병원 현관으로 나왔다. 구내식당 줄이 길어 빵을 사려던 참이었다. 현관 옆 민원 창구에 한 여자가 아이의 외투를 무릎에 얹고 앉아 있었다. 여자는 종이봉투에서 접힌 서류를 꺼냈다 넣었다 했다. 클레르의 가운을 보고 몸을 조금 일으켰다.

"검사실이 어디예요?"

클레르는 엘리베이터 쪽을 가리켰다. 여자가 묻는 검사는 결과가 늦어진 항목이었다. 대답을 들은 여자는 앉지도 일어서지도 않은 자세로 멈췄다.

"오늘 오라고 했는데."

"진료실에 먼저 말씀해 보세요. 다시 채혈해야 하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였다. 클레르는 창구 직원에게 여자의 예약증을 넘겼다. 직원이 다음 주에 다시 전화해 달라고 하자 여자는 예약증을 받지 않았다.

"그때도 오라는 건지, 기다리라는 건지만 알려 주세요. 오늘은 일을 빼고 왔어요."

클레르는 창구 안의 전화를 보았다.

"진료실에서 먼저 연락드리도록 요청해 볼게요. 예약증에 있는 번호로 받아도 되세요?"

여자가 번호를 확인하자 창구 직원이 연락 요청을 남겼다. 여자가 아이의 외투를 들 때 소매 하나가 바닥에 끌렸다. 그녀는 소매를 말아 품에 넣고 갔다.

오후에 확인하니 요청은 검사실로 되돌아와 있었다. 아직 결과가 없다는 답이었다. 클레르는 결과를 재촉한 것이 아니라 다음 방문 전에 연락해 달라는 요청이었다고 설명했다. 진료실 간호사가 다시 확인하겠다고 했다. 퇴근 시간이 지났지만 클레르는 가운을 벗지 못했다. 진료실에서 요청을 접수했고 담당 간호사가 직접 연락하기로 했다는 답이 온 뒤에야 전화를 내려놓았다.

퇴근길에 동료와 르블레두에 들렀다. 점심에 못 먹은 빵을 이제야 골랐다.

회랑 맞은편 가게 문 위에 작은 카메라가 달려 있었다. 옆 공실의 유리에는 중개사무소 번호가 붙었다. 클레르는 햄이 든 빵을 고르다가 치즈가 든 것으로 바꿨다.

가게 주인이 종이봉투를 접으며 말했다.

"치즈가 더 비싸졌어요."

"알아요."

실은 몰랐다. 그녀는 그대로 받았다.

* * *

그날 저녁 루시앙은 급여명세와 통장 내역을 인쇄해 왔다. 클레르는 화면으로 보면 된다고 했지만 그는 함께 보기 편하다고 했다. 두 사람이 식탁의 같은 쪽에 앉으면 의자 다리가 부딪혔다. 그는 인쇄물을 가로로 놓았다.

월세, 관리비, 전차 정기권, 식비. 누구 돈으로 무엇을 냈는지 확인하다 보면 꼭 누가 더 먹었는지 하는 농담으로 흘렀다. 오늘은 루시앙이 먼저 웃지 않았다. 배차 시험 접수비가 적힌 줄에서 손이 멎었다.

"일단 빼도 돼."

클레르는 그 줄 옆에 동그라미를 쳤다.

"일단 넣어."

"가을 지나서도 볼 수 있어."

"이번에 안 보면 당신 또 책만 갖고 다녀."

그가 그녀를 보았다. 클레르는 식비 쪽을 지우고, 빠뜨린 지난주 장보기를 넣어 다시 적었다. 합계가 더 커졌다.

"훌륭하네." 그가 말했다.

"정확하잖아."

그는 동그라미 친 접수비를 그대로 두었다. 대신 자기 휴대전화 요금제를 줄이겠다고 했다. 클레르는 병원 근처에서 사 먹는 점심을 이틀 줄이기로 했다. 그가 내일 달걀을 더 삶아 놓겠다고 했다. 그녀는 달걀만 가져가지는 않겠다고 했다.

클레르는 점심값을 적다가 낮에 있었던 일을 말했다. 루시앙은 그 여자가 다시 와야 하느냐고 물었다. 진료실에서 연락하기로 했다는 것까지만 안다고 했다. 그는 접수비 옆의 동그라미를 손가락으로 쓸더니 자기 전화기를 가져와 신청서를 열었다.

잠깐 뒤, 루시앙이 다음 주 목요일 저녁에 같이 가겠느냐고 물었다. 모임에서 축제 정산을 한다고 했다. 세입자 상담을 맡는 사람에게 임대료 통지도 보여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상담받으려면 가입해야 해?"

"아니. 그냥 와도 돼."

"회계 회의에?"

"회계는 이십 분이야. 그 뒤엔 다른 얘기 해."

클레르는 이십 분이라는 말을 믿지 않는 표정을 지었다. 그가 두 손을 들었다.

"삼십 분 넘으면 데리고 나올게."

"내가 당신을?"

"그렇게 해도 되고."

그녀는 다음 주 근무를 확인하겠다고 했다. 그 말만으로도 그가 기뻐하자 클레르는 그를 보았다.

"내가 가는 게 그렇게 좋아?"

"응."

대답이 빨라서 그녀가 먼저 웃었다. 클레르는 임대료 통지를 가방에 넣었다. 약속은 아니었다.

밤 열 시 반에 세 사람의 대화방으로 마르타가 사진을 보냈다. 엽서였다. 푸른 지붕이 줄지어 있는 강가 도시. 그 뒤로 음성메모가 따라왔다.

'카페르나 속보입니다. 다리가 무너져서 강 건너 카페에 못 갑니다. 이쪽에도 카페가 있지만 그건 취재가 부족해서 아직 모릅니다.'

옆에서 루시앙이 웃었다. 녹음 속에서 컵 부딪치는 소리가 나고, 마르타의 목소리가 조금 멀어졌다.

‘잠깐, 그거 내 거야. 그 컵 쓰지 마. 아, 다시. 여러분, 이 도시는 날씨가 몹시 흐립니다. 토요일엔 엄마한테 햇볕 보내야지.’

그 뒤에는 ‘목요일 영화, 잊지 말기’라는 문자가 있었다. 클레르는 음성을 다시 재생했다. 마르타가 컵 때문에 다투는 부분에서 루시앙이 휴대전화를 받아 더 크게 틀었다. 벽 너머에서 소리가 날까 봐 클레르가 줄였다.

“왜 그 컵을 쓰면 안 되는데?”

그녀가 문자로 묻자 답장이 왔다.

‘크림 계량했어요. 설거지 안 했어.’

루시앙은 식탁의 종이를 모았다. 클레르는 마르타에게 컵은 씻으라고 보내고 휴대전화를 충전기에 꽂았다.

* * *

2월 27일 화요일

가브리엘은 회의실 문 앞에서 다시 불려 돌아왔다. 비서가 받은 전화를 손으로 가리고 있었다. 지방청에서 오늘 안에 답을 달라고 한다는 것이었다.

“어느 건?”

“북부 화물구역 통행 제한입니다.”

그는 가방을 의자 위에 놓고 전화를 받았다. 상대는 이미 서류를 보냈다고 했다. 가브리엘은 받았다고 답했다. 다시 보내겠다는 말을 막고 두 번째 장을 펴 달라고 했다.

“여기 이유란이 비어 있습니다.”

“상급 결정에 따른 조치라고 써 있습니다.”

“그건 누가 결정했는지입니다.”

전화를 건 남자가 숨을 내쉬었다. 수화기 너머에서 다른 전화가 울렸다. 화물구역 일부에서 오래된 저장시설을 점검하는 동안 차량 통행을 막는 일이었다. 대상 목록에 주민 이동 차량이 함께 들어갔다. 낮에 병원으로 사람들을 실어 나르는 작은 조합의 승합차도 있었다. 조합은 제한 구역 바깥길을 쓸 수 있다는

노선도를 보냈지만, 현장 담당자가 목록에 이미 올라 있다는 이유로 신청을 돌려보냈다.

가브리엘은 내무부 수석 법률 참사관이었다. 목록에서 이름을 지우는 사람은 아니었다. 그가 적법성 확인란을 채워 보내면 지방청은 그 종이를 내일의 답변에 붙일 터였다. 비워 보내면 오늘의 회의가 늦어질 수 있었다.

"점검 자체에 반대하시는 겁니까?"

상대가 물었다.

"대체 노선이 왜 안 되는지 답해 달라는 겁니다."

"한 군데를 허용하면 다른 데서도 요구합니다."

"그래서 기준이 필요합니다."

비서가 문을 열고 고개만 넣었다. 회의가 시작되었다는 표시였다. 가브리엘은 손바닥을 들어 잠시 기다려 달라고 했다. 통화가 끝나자 처분 이유와 이의 신청 창구를 보완하라는 의견을 썼다. 그 조합 이름만 적지 않고 같은 조건의 신청을 함께 재검토하라고 덧붙였다.

부서장이 회의 중간에 그를 보았다. 가브리엘은 빈 의자에 앉았다.

"그 건 때문에 또 늦었습니까?"

"목록을 고칠 수 있답니다."

"자문을 이렇게 오래 받으면 현장에서 아무것도 못 합니다."

가브리엘은 서류를 펴다가 멈췄다. 지금 답하면 또 그가 회의를 늦추는 셈이었다. 늦어서 미안하다고 말했다. 다음 안건으로 넘어갔다.

오후에 지방청 수정안이 도착했다. 위험 구간 밖으로 다니는 차량은 운행을 이어 갈 수 있었다. 가브리엘이 요청한 것은 받아들여졌고, 확인 의견 맨 아래에는 발급을 서두르라는 문장이 추가되었다. 그는 그 문장을 지우지 않았다. 해당 조합의 다음 날 예약표를 붙임에서 보았다. 이름을 가린 줄마다 출발 시각이 적혀 있었다.

퇴근 전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조합 사무원이 담당자에게 번호를 받았다고 했다. 이제 승합차를 움직여도 된다고 들었다며

감사 인사를 했다. 가브리엘은 자기한테 허가받은 것은 아니라고 정정했다. 여자는 '어쨌든 내일 갈 수는 있으니까요'라고 답했다.

그 말에 그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전화를 끊고 클레르에게 전화를 걸려다가 시간을 보았다. 검사실에 있을 시간이었다. 점심을 같이 먹자는 문자를 썼다. 날짜를 정하지 않은 문장이었다. 전송하기 전에 3월 11일 일요일을 넣었다. 그리고 '루시앙도 괜찮으면'이라고 덧붙였다.

답장은 퇴근 뒤에 왔다.

'근무표 확인하고 알려드릴게요.'

그는 알겠다고 보냈다. 오늘 고친 통행 제한안은 사무실에 두고, 휴대전화는 외투 안주머니에 넣었다.

* * *

3월 1일 목요일

마르타가 고른 영화에서 같은 배우가 두 번 죽었다. 클레르는 상영관을 나오며 쌍둥이였느냐고 물었다. 마르타도 확신하지 못했다. 루시앙이 조용히 박수를 치자 그녀가 그의 팔을 때렸다.

밖에는 비가 왔다. 마르타의 우산은 살 하나가 뒤집혀 있었다. 셋이 붙잡고 펴다가 결국 루시앙이 모자를 썼다. 갈림길에서 마르타는 자기 방이 가깝다며 우산을 넘겼다.

"내일은 영화 말고 크림이에요. 둘 다 끝까지 먹어야 돼요."

그녀는 가방을 머리 위에 올리고 골목으로 갔다. 클레르가 따라가자는 눈짓을 했지만 마르타는 괜찮다고 손을 들었다.

루시앙이 우산 아래로 들어오며 아버지에게 답했느냐고 물었다. 클레르는 아직이라고 했다.

"난 갈 수 있어. 당신은?"

그녀는 물웅덩이를 피해 걸었다. 한참 뒤에 휴대전화를 꺼내 11일 점심에 둘이 가겠다고 보냈다. 루시앙은 우산을 그녀 쪽으로 기울여 주었다. 그의 어깨가 젖어서, 클레르는 답장을 기다리며 조금 더 가까이 붙었다.

# 제3장 금요일 밤

3월 2일 금요일

클레르는 라미레의 통로 쪽에 먼저 앉았다. 루시앙을 여기 앉히면 사람이 지날 때마다 일어나 주느라 자기 얘기를 끝내지 못할 것 같았다. 가방을 내려놓는데 진료실에서 업무 메시지가 왔다. 월요일에 만난 여자에게 다음 예약을 안내했고, 결과를 보러 따로 올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는 내용이었다. 클레르는 부탁해 둔 일을 수첩에서 지우고 전화기를 가방에 넣었다.

루시앙은 코트를 벽걸이에 걸고 두 잔을 가져왔다. 자기 잔에는 거품이 조금 넘쳤다. 클레르가 종이 받침을 밀어 주자 그가 손등으로 닦으려던 것을 멈췄다.

"접수했어."

그가 말했다. 그녀는 무슨 접수인지 묻지 않았다.

"언제야?"

"필기는 다음 달. 면접은 붙으면."

"언제 공부해?"

"배차 사이사이."

그녀가 눈을 가늘게 뜨자 그가 웃었다.

"집에서도."

클레르는 잔을 들었다. 그도 들었다. 부딪치기 전에 마르타가 나타났다.

"나 빼고 시작했어요?"

그녀는 가방을 의자에 내려놓고 코트를 벗었다. 가방 속에서 통이 굴러가는 소리가 났다. 마르타는 얼른 가방을 세웠다.

"열다섯 분." 루시앙이 말했다.

"정확히 재고 있었어요?"

"벽에 시계가 있어."

"그럼 시계를 보지 말았어야죠."

마르타는 앉자마자 클레르의 손을 잡았다. 반지를 빼도 되느냐는 말보다 손이 빨랐다. 클레르는 손가락을 살짝 굽혔다.

"먼저 물어봐."

"꺼내 보는 데도 허가가 필요해?"

"내 손에 있잖아."

마르타가 한 박자 쉬었다.

"한 번만요."

클레르는 반지를 빼 주었다. 마르타는 자기 손가락에 끼우고 손등을 보았다. 가운데 관절에 걸려 더 들어가지 않았다. 그녀가 손을 흔들자 반지가 미끄러져 탁자 위에 떨어졌다. 루시앙이 잔으로 굴러가기 전에 잡았다.

"이 결혼은 취소."

그가 반지를 클레르에게 건넸다. 마르타는 자기 손가락을 문질렀다.

클레르는 반지를 다시 끼웠다. 마르타가 웃으며 가방에서 작은 용기 두 개를 꺼냈다. 뚜껑 위에는 다른 색의 테이프가 붙어 있었다.

"오늘은 이름 없이 먹어요. 이름 보고 고르면 안 돼."

그녀는 주인에게 숟가락을 부탁했다. 주인은 외부 음식을 들이면 안 된다고 했다. 마르타의 얼굴이 굳었다. 루시앙이 뭔가 말하려 하자 그녀가 먼저 용기를 덮었다.

"그럼 나갈 때 먹을게요."

주인은 잠깐 용기를 보더니 무엇이냐고 물었다. 크림이라는 대답에 혀를 찼다.

"접시에 덜어요. 통 놓고 먹으면 다른 손님들도 싸 온 걸 꺼내."

접시 셋이 아니라 넷이 왔다. 주인이 자기 것도 가져온 것이다. 마르타가 그에게 제일 먼저 덜어 주었다.

* * *

노란 테이프 쪽은 레몬 맛이 강했다. 흰 테이프 쪽은 끝에 달걀 냄새가 조금 남았다. 클레르는 노란 쪽을 골랐다. 루시앙은 흰 쪽을 골랐고 주인도 흰 쪽이 술에 덜 방해된다고 했다.

마르타가 눈을 감았다.

"왜?" 클레르가 물었다.

"흰 게 내가 고친 거예요."

"잘됐네."

"아니. 언니가 노란 걸 골랐잖아."

루시앙이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나랑 이분은 손님 안 돼?"

"오빠는 배고프면 행주도 먹을 사람이니까."

주인은 웃다가 다른 탁자로 갔다. 마르타는 용기를 내려다보았다. 웃음이 지나간 얼굴에서 짜증이 잠깐 드러났다. 클레르는 어느 쪽이 더 잘 만든 것인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신맛이 더 센 쪽이 자기 입에는 맞는다고만 했다.

"근데 네가 물어본 건 어느 쪽이 더 좋으냐는 거잖아."

"맞아요."

"그럼 내 답은 노란 쪽."

마르타는 냅킨에 표시했다. 클레르 하나, 루시앙 하나, 주인 하나. 자기 이름은 쓰지 않았다. 잠시 뒤 주인이 빈 접시를 가져가며 흰 쪽에 들어간 향이 무엇인지 물었다. 마르타의 설명이 길어졌다. 주인은 중간에 다른 손님의 주문을 받고 돌아왔는데도 그녀는 처음부터 다시 말하지 않았다. 자기가 멈춘 곳에서 이어 갔다.

"축제 끝나고 한 번 더 가져와요." 주인이 말했다. "팔아 보자는 건 아니고, 우리 주방 사람도 먹어 보게."

마르타는 고개를 끄덕였다. 주인이 떠난 뒤에는 말없이 흰 테이프 쪽 뚜껑을 만지작거렸다.

"두 사람이 다 들은 거죠?"

클레르가 그렇다고 하자 마르타는 웃으며 냅킨을 가방에 넣었다.

"언니 때문에 두 가지 다 해야겠어."

"내가 그렇게 큰 피해를 줬구나."

마르타가 혀를 내밀었다. 클레르는 나중에 자기 이름을 크림에 붙이지 말라고 했다. 마르타는 대답하지 않았다.

맥주를 조금 더 마신 뒤에는 선배 이야기가 나왔다. 마르타는 실험 자료를 보내며 주말에 시간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선배가 실험실 예약 가능 시간을 보내 왔다고 했다.

"질문에 답은 했네." 루시앙이 말했다.

"그러니까 더 화가 나요."

"같이 나가자고 하면 되잖아."

마르타가 그를 쳐다보았다.

"그렇게 해서 싫다고 하면요?"

"그럼 알게 되지."

"알고 싶지 않은 것도 있죠, 조교님."

클레르는 잔을 내려놓았다. 루시앙에게 처음 같이 저녁을 먹자고 했을 때를 기억했다. 그가 교대 근무표를 꺼내 보이는 바람에 거절당한 줄 알았다. 그는 가능한 날을 고르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 이야기를 하자 마르타가 루시앙을 가리켰다.

"똑같잖아. 그럼 나도 가능성 있네."

"그 결론은 아닌데." 클레르가 말했다.

마르타는 이미 냅킨을 다시 꺼내 무언가를 적고 있었다. 크림 표시 옆에 선배에게 할 말을 쓰는 모양이었다. 중간에 한 줄을 지우고, 뒤집었다가, 결국 가방에 넣었다.

* * *

술집 주인이 벽의 축제 포스터를 바로 세웠다. 마르타에게 그랑뤼 제과점도 내일 나온다고 말했다. 작은 가게를 구할 때 무엇부터 봐야 하는지 그 집 주인에게 물어보라는 것이었다. 마르타가 포스터에 가까이 몸을 기울였다.

"내일이네. 우리 같이 가요."

클레르가 루시앙을 보았다. 그는 오전에 테이블을 나르는 일을 돕는다고 했다.

"그럼 오후에는?"

"빠질 수 있어. 두 시쯤."

"셋이 가는 거예요." 마르타가 말했다. "나는 가다가 아는 사람 만났다고 버려두면 안 돼."

"네가 제일 많이 만나지 않아?" 클레르가 물었다.

"물어볼 건 딱 하나예요. 나머지는 놀 거야."

루시앙은 웃으며 분수대에서 만나자고 했다. 클레르는 두 시라고 다시 말했다. 마르타는 자기 몫의 시간을 따로 달라는 표정을 지었다.

"두 시 십오 분에 오면 크림 안 먹어."

"이미 먹었는데 어떻게 안 먹어."

"다음 거."

마르타가 손을 내밀었다. 셋이 손을 겹치려고 했는데 루시앙이 잔을 들고 있어서 맥주가 조금 쏟아졌다. 마르타는 젖은 손을 그의 소매에 닦았다. 클레르는 주인에게 냅킨을 더 달라고 했다.

"무슨 일을 도와?"

주인이 포스터에서 손을 떼자 클레르가 물었다.

"물류. 상인회에서 부스 배치하고, 우리 모임에서 부족한 일손 채워."

"그 커피 모임?"

"커피만 마시는 건 아니야."

"아니라는 걸 내일 보여 줘."

그가 기꺼이 그러겠다고 했다. 클레르는 그 표정을 보고 잠깐 미안했다. 그의 설명을 듣기도 전에 농담으로 넘긴 적이 많았다.

마르타가 처음 그를 조교님이라고 부른 날에는, 르블레두의 빵이 늦게 나와 줄이 엉켜 있었다. 그때 열다섯 살이던 마르타는 구석 탁자에서 숙제를 했다. 루시앙은 누가 주문했는지 물어보며 줄을 정리했다. 빵집 직원도 아니면서 진지하게 손을 들어 손님들을

불렀다. 마르타가 웃으며 그 별명을 붙였고, 그는 싫어하지 않았다. 클레르는 그날 이름보다 별명을 먼저 알았다.

"지금도 공짜로 시키는 일은 다 하네." 마르타가 말했다.

"내일 널 시킬 거야."

"나는 손님이에요."

루시앙이 뜨거운 감자튀김을 하나 집었다가 내려놓았다. 마르타가 가져가려 하자 그가 포크로 막았다. 클레르는 자기 접시를 멀리 밀었다. 둘이 알아서 하라고 했다.

* * *

나올 때 주인은 마르타에게 빈 용기를 돌려주었다. 씻어 둔 것이었다. 그녀가 고맙다고 했다. 문 앞에서 갑자기 돌아서서 흰 크림을 다시 가져오겠다고 말했다. 주인이 들었는지 확인하고서야 밖으로 나왔다.

밤공기는 낮보다 차가웠다. 마르타는 목도리를 가방에 넣었다가 다시 꺼냈다. 루시앙이 버스 도착 시간을 보고 조금 서두르자고 했다. 세 사람은 신호 앞에서 멈췄다. 마르타는 빨간불을 보며 낮은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클레르는 첫 소절로는 무슨 노래인지 알아듣지 못했다. 후렴에 와서야 알았다.

"그 노래 그렇게 안 올라가."

"저는 올라가요."

루시앙이 훨씬 더 높게 불렀다. 옆에 서 있던 남자가 돌아보았다. 클레르는 웃으며 두 사람에게서 한 발 떨어졌다. 마르타가 그녀의 팔을 다시 잡았다.

버스에서 세 사람은 나란히 앉았다. 노래는 그쳤다. 마르타는 가방을 무릎 사이에 끼웠고 루시앙은 손잡이에 매달린 빈 비닐봉지를 떼어 쓰레기통에 넣었다. 그가 돌아와 앉자 클레르가 손을 내밀었다. 그는 손바닥을 펴서 그녀의 손을 받았다.

"내일 아침엔 내가 일찍 나갈게."

"깨우지 마."

"커피는?"

"놓고 가."

클레르가 그의 어깨에 머리를 댔다. 마르타는 내일 물어볼 것을 중얼거리다가, 그랑뤼 가게 이름을 휴대전화에 적었다.

마르타는 자기 정류장 하나 전에서 일어났다. 늦게 일어나면 내릴 때 가방이 걸린다고 했다. 루시앙이 내일은 늦지 말라고 하자 그녀는 이미 듣지 않는 척했다. 문이 열리고 찬 바람이 들어왔다.

"두 시!"

클레르가 말했다. 마르타는 밖에서 손가락 두 개를 들어 보였다. 버스가 움직이자 그녀의 얼굴이 창틀 뒤로 사라졌다.

집까지는 두 정거장이 더 남아 있었다. 루시앙이 손가락으로 클레르의 반지를 조금 돌렸다. 그녀는 가만히 있다가 그의 손을 잡았다.

"가을에 저 애한테 노래 시키지는 말자."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몰래 시킬까 봐 말하는 거야."

루시앙이 웃자 그녀도 웃었다. 내일은 그가 매번 이야기하던 사람들을 만날 것이었다. 클레르는 몇 명쯤 되느냐고 물었다. 그는 이름을 하나씩 세기 시작했다. 두 정거장이 짧았다.

# 제4장 벨마르

3월 3일 토요일

마르타는 두 시 전에 왔다. 클레르는 분수대를 한 바퀴 돌아서야 그녀를 찾았다. 물이 나오지 않는 분수 가장자리에 앉아 종이 접시에 든 것을 먹고 있었다.

"너 여기 있었어?"

"시간 맞춰 오면 다들 놀라서 못 찾더라고."

"언제 왔는데?"

"방금요."

접시는 거의 비어 있었다. 클레르는 더 묻지 않았다. 마르타가 마지막 한 입을 내밀었다. 꼬치에 꽂힌 작은 감자였다. 클레르는 받아 먹고 장갑을 벗었다. 해가 나자 생각보다 따뜻했다.

광장에는 서로 다른 천막이 늘어서 있었다. 빵과 양파 볶는 냄새가 섞였다. 악기를 든 아이들이 무대 뒤를 오갔고, 한 남자가 접힌 보면대를 펴다가 손가락을 끼었다. 아이들이 웃었다. 남자도 아픈 손을 흔들며 웃었다.

루시앙은 무대 옆에서 탁자를 옮기고 있었다. 그를 부르자 손을 들었지만 오지는 못했다. 탁자 반대쪽을 잡은 사람이 먼저 가는 바람에 몸이 뒤따라갔다. 마르타가 그 모습을 보고 그의 별명을 불렀다. 이번에는 듣지 못한 것 같았다.

"두 시부터 손님이라더니."

클레르가 말했다. 마르타는 감자를 산 곳을 가리켰다. 가면서 기다리자고 했다.

그랑뤼에서 온 제과점 부스에는 마카롱이 색깔별로 놓여 있었다. 마르타는 가장 수수한 갈색을 골랐다. 가게 주인은 작년에 광장 반대편에 있었다고 했다. 클레르는 기억하지 못했다. 마르타는

기억했다. 지난해에는 가게 이름에 남편 이름이 함께 들어 있었는데 올해는 없어졌다고 했다.

주인이 웃었다.

"이혼한 건 아니에요. 간판이 길어서."

마르타의 귀가 붉어졌다. 클레르는 돈을 내며 웃음을 삼켰다. 주인은 반죽은 남편이 했고 설탕 배합은 자기가 했다고 말했다. 지금 남편은 뒤에서 커피를 쏟고 있다고도 했다. 천막 안에서 실제로 누군가 짧게 소리를 질렀다.

마르타가 한 입 먹고 말없이 다시 진열대를 보았다. 두 번째 것은 자기 돈으로 샀다.

"물어봐." 클레르가 말했다.

"뭘요."

"어떻게 만든 건지."

"그걸 막 물어보면 안 돼요."

"아까는 남편 이름까지 물었잖아."

마르타가 팔을 잡아 끌다가 멈췄다. 손님이 뜸해진 것을 보고 부스로 돌아갔다. 작은 가게를 얻을 때 무엇부터 확인했느냐고 물었다. 주인은 잠깐 진열대 아래를 가리켰다. 임시 전원을 쓰느라 보온기를 하나 꺼 두었다고 했다.

"들어갈 기계부터 정해요. 세놓는 사람 말만 듣고 계약금 내지 말고."

마르타는 휴대전화에 적었다. 클레르가 옆에서 보자 화면을 가렸다.

"한 가지만 물었죠?"

"응."

그녀는 약속을 지켰다는 듯 클레르의 팔을 잡고 사람들 사이로 돌아왔다.

* * *

루시앙이 두 사람을 찾아왔을 때는 이미 세 시가 가까웠다. 외투를 벗어 팔에 걸쳤고 셔츠 겨드랑이에 땀이 배어 있었다.

"미안. 연결 전선이 짧아서."

그는 물부터 마셨다. 마르타가 남겨 둔 감자는 식어 있었다. 그가 그래도 맛있게 먹자 마르타는 클레르에게 '봤지' 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때 접이식 의자를 든 여자가 다가왔다. 루시앙은 서둘러 물병을 닫았다.

"레아. 여기."

여자가 의자를 내려놓고 손을 내밀었다. 클레르가 손을 잡았다. 손바닥이 건조하고 따뜻했다. 레아는 루시앙에게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했다. 마르타에게도 아는 얼굴이라는 듯 인사했다. 금요일마다 르블레두에 모임의 빵을 찾으러 간다고 했다.

"지난번에 봉투에 적어 준 순서대로 나눴더니 안 모자랐어요."

"주문보다 세 사람이 더 왔잖아요. 다음에는 미리 말해요."

마르타가 말했다. 레아는 사람 수가 바뀌면 가게로 전화하겠다고 했다.

"오늘은 일 안 해요." 마르타가 말했다.

"잘됐네요. 앉아 쉬어요."

레아가 가져온 의자를 펼쳤다. 그것은 무대 쪽으로 가져가려던 것이었다. 클레르가 괜찮다고 했지만 레아는 새로 가져오면 된다며 발목을 한번 내려다봤다. 마르타가 잠깐 앉았다. 오래 걸으면 발을 바깥으로 딛는 버릇을 루시앙도 알고 있었다.

천막 뒤에서 누군가 레아를 불렀다. 어린아이가 보호자 없이 울고 있었다. 레아는 그쪽으로 가서 무릎을 굽혔다. 아이는 대답하지 않고 손에 든 종이컵만 구겼다. 레아가 물을 가져왔고 루시앙은 무대 진행자에게 걸어갔다. 곧 방송이 나왔다. 아이의 이름을 모르니 옷 색깔과 발견한 곳만 말했다.

마르타가 아이 옆에 앉아 자기 빈 접시를 접었다. 아이는 그것을 보았다. 마르타는 배를 만들려고 했으나 접시가 두꺼워 접히지 않았다. 아이가 울다가 웃었다. 마르타가 실패한 접시를 머리에 올렸다. 루시앙이 돌아왔을 때 아이도 자기 컵을 머리에 대고 있었다.

잠시 뒤 여자가 달려왔다. 아이를 끌어안은 다음 떨어져서 얼굴을 보았다. 혼을 내고 싶고 안고 있고 싶은 표정이었다. 레아는 보호자를 확인하고 둘이 돌아갈 때까지 기다렸다. 클레르는 마르타에게 의자를 돌려놓겠다고 했다.

"그건 여기 둬도 돼요." 레아가 말했다. "오래 서 있는 사람이 또 있을 거예요."

레아가 아이에게 내줬던 물컵을 치웠다. 루시앙은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게 의자를 조금 당겼다. 클레르는 그의 빈 물병을 받아 새 물을 채워 왔다. 레아 것도 하나 샀다.

"다음에는 같이 앉아서 마셔요."

그녀가 건네자 레아는 목요일에 오라고 했다. 세입자 상담도 있는 날이라고 했다.

* * *

오후에 셋은 베르리 광회랑 쪽으로 걸었다. 광장 소음이 유리 지붕 아래까지 따라왔다. 회랑 중간의 가게들은 문을 열어 놓았고, 한쪽 진열대 앞에서는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바구니 손잡이가 부딪혔다. 마르타는 가방을 앞으로 돌려 멨다.

벽에 붙은 낡은 안내판은 끝이 찢겨 있었다. 북측 우회라는 글자가 절반 남았다. 마르타가 휴대전화를 들어 사진을 찍었다.

"뭘 찍어?"

"'북측 우'요."

클레르가 간판을 보았다. 정말 거기까지만 보였다.

"나머지는 자기가 알아서 생각하라는 거지." 마르타가 말했다.

루시앙은 옆에 붙은 새 안내지를 가리켰다. 공사가 끝났다는 공지였다. 낡은 간판을 떼지 않은 채 아래에 새 공지를 붙여 놓았다. 마르타는 두 장이 같이 나오게 다시 찍었다.

"이건 학교 조별 과제 같아. 아무도 남이 한 걸 안 지워."

"네가 지우는 사람이야?" 클레르가 물었다.

"난 남이 한 게 나보다 나으면 안 지워요."

회랑 밖 공실 앞에서 마르타가 잠깐 멈췄다. 유리 너머의 수도꼭지와 벽에 붙은 콘센트를 보았다. 루시앙이 여기냐고 묻자 더 싼 곳을 12일에 보러 갈 생각이라고 했다.

"약속은 잡았어?" 클레르가 물었다.

"아직 전화만 했어요."

그녀는 휴대전화를 꺼냈다가, 화면을 끄고 주머니에 넣었다. 오늘은 놀러 왔다고 했다.

* * *

해가 기울 무렵 종이 왕관이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어린이 공연을 마친 아이들이 왕관을 벗어 어른들에게 씌웠다. 마르타는 처음에는 손으로 막다가, 작은 여자아이가 까치발을 들자 허리를 숙였다. 금빛 종이는 접힌 부분이 벌어져 있었다. 클레르가 뒤에서 눌러 붙여 주었다.

"어울려?"

"조금 큰데."

"내가 더 자라면 돼요."

루시앙이 사진 찍는 남자를 불렀다. 남자는 로맹이라고 이름을 말하고, 모임의 기록 사진을 맡았다고 했다. 광장에 온 사람들을 찍고 있었다. 그는 세 사람에게 붙어 서 달라고 했다. 마르타가 가운데에 서고 클레르가 한쪽 팔을 잡았다. 루시앙은 마르타 어깨 위로 손을 올렸다.

"축제 게시판에 올려도 될까요?"

남자가 물었다. 클레르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르타는 자기 얼굴이 너무 이상하지 않으면 된다고 했다. 남자는 화면을 보여 주었다. 첫 사진에서 루시앙이 눈을 감고 있었다. 두 번째에는 셋 다 웃었다. 마르타는 두 번째로 해 달라고 했다.

마르타가 자기 전자우편 주소를 적어 주고 셋이 함께 나온 사진을 보내 달라고 했다.

"엄마가 제가 밥 먹는지 친구 만나는지 자꾸 물어서요. 이걸 보내면 하나는 해결돼요."

"먹고 있을 때 찍었어야 둘 다 해결하지." 루시앙이 말했다.

로맹은 고른 사진을 원래 크기로 보내겠다고 했다. 축제 게시판용 파일과 원본은 모임 공유함에도 따로 넣는다고 했다. 루시앙은 거기서 자기 것도 받겠다고 했다. 마르타는 왕관을 벗지 않고 사람들 사이를 지나갔다. 뒤에서 보니 왕관의 한쪽이 벌어져 머리카락에 걸려 있었다.

저녁을 먹으려고 앉았을 때, 루시앙이 다시 불려 갔다. 마이크에서 잡음이 난다는 것이었다. 클레르는 그가 간 쪽을 보다가 자기 음식을 먹었다. 마르타가 루시앙의 접시 위에 냅킨을 덮었다.

"안 식게?"

"새가 있어서요."

옆 탁자의 상인이 웃었다. 그는 오후 내내 손님보다 새를 더 많이 쫓았다고 했다. 클레르는 얼마나 팔았느냐고 물었다. 그는 빈 상자 두 개를 가리켰다. 이 정도면 오늘 나온 값은 한다고 했다. 그러고는 다음 달 임대료 이야기를 했다. 축제 때 많이 판다고 나머지 날이 저절로 채워지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루시앙이 돌아와 덮인 접시를 열었다. 새를 피한 감자가 또 식어 있었다. 그는 클레르와 마르타에게 조금씩 나눠 주었다. 클레르는 이제부터 안 가도 되느냐고 물었다.

"정리할 때만."

그녀가 말없이 보자 그가 덧붙였다.

"같이 집에 갈 거야."

루시앙은 정리를 다른 사람에게 부탁했다. 레아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보고서야 클레르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 * *

귀가하는 길에 마르타가 두 번 멈췄다. 한 번은 신발 안에 들어간 작은 돌을 빼려고, 한 번은 버스 정류장의 노선표를 보려고였다. 클레르는 첫 번째에는 팔을 잡아 주었고 두 번째에는 그냥 기다렸다.

"집까지 데려다줄까?" 루시앙이 물었다.

"두 사람이 나 데려다주고 돌아가면 전차 끊겨요. 여기서 바로 타요."

마르타는 왕관을 벗어 가방 위에 올렸다. 종이가 하루 동안 구겨져 모양이 달라져 있었다. 클레르가 버릴 거냐고 묻자 마르타는 방에 들어가서 생각하겠다고 했다. 지금 버리러 갈 힘이 없다는 것이었다.

버스가 멀리서 보였다. 마르타는 갑자기 어젯밤 크림 이야기를 꺼냈다.

"신맛 나는 건 이름 정했어요."

"설마."

"완고한 클레르."

"내 이름 쓰지 말랬잖아."

"달고 순한 걸 그 이름으로 부를 수는 없잖아요."

루시앙이 웃었다. 클레르는 그에게도 이름을 붙여 보라고 했다. 마르타는 이미 정해 두었다며 천천히 오는 아몬드라고 말했다. 루시앙은 자기는 늦지 않는다고 항의했다.

"오늘 두 시에 어디 있었어요?"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버스 문이 열렸다. 마르타가 계단을 올라 뒤돌아보았다.

"다음 건 둘 다 먹어야 돼요."

클레르는 알겠다고 했다. 루시앙도 고개를 끄덕였다. 마르타는 카드를 찍고 안으로 들어갔다.

둘만 남자 루시앙이 클레르의 손을 잡았다. 손이 차가웠다. 그녀가 장갑을 끼라며 놓으려 하자 그는 자기 외투 주머니에 그녀의 손까지 넣었다. 어깨를 맞추어 걷기가 조금 불편했다. 그녀가 보폭을 줄였고 그도 줄였다.

"목요일에 와 볼래?"

그가 물었다.

클레르는 레아에게 물을 건네던 일을 떠올렸다. 상담받고 바로 돌아오는 대신, 그곳에서 자기가 할 일도 있을까 생각했다.

"회계 삼십 분 넘으면 나오는 거지?"

"응."

"당신이 나한테 했던 약속이야."

"알아."

큰길에서 둘은 손을 빼고 장갑을 꼈다.

"내 통지서, 목요일에 가져가면 되는 거지?"

루시앙이 고개를 끄덕였다. 집에 돌아와 클레르는 봉투를 가방 바깥주머니로 옮겼다. 목요일까지 잊지 않으려면 거기가 나았다.

# 제5장 올바른 노선

3월 8일 목요일

통합 신고 접수 전환 회의가 두 시간을 넘겼을 때, 가브리엘은 시연을 한 번 더 해 달라고 했다. 옆자리에서 누군가 시계를 보았다.

새 화면에는 기존 기록을 옮겨 볼 수 있었다. 담당자가 번호를 입력하자 신고자의 이름과 접수 시각이 나타났다. 가브리엘은 옛 화면에도 같은 기록을 띄워 달라고 했다. 담당자는 시연용 자료여서 두 시스템에 똑같이 들어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럼 서로 다르게 뜰 때는 누가 맞춥니까?"

"운영 지침에 들어갈 겁니다."

"오늘 확인할 수 있습니까?"

담당자가 사업 책임자를 보았다. 책임자는 구 시스템을 더 쓰면 계약 비용이 늘어난다고 했다. 새 화면이 단순해져도 옮긴 기록을 맞춰 보는 일은 남았다.

"현장에서 두 번 입력할 인력이 없습니다."

"이중 접수가 아닙니다. 옮기기 전 기록과 맞춰 볼 사람을 정하자는 겁니다."

가브리엘은 같은 내용을 옮겨 적느라 전화를 못 받던 접수원을 떠올렸다.

옆자리의 실무 법률관이 수정안을 밀었다. 전환 전에 대조를 마쳐야 한다는 원안이었다. 운영 책임자는 그 조건이면 예정일을 못 맞춘다고 했다. 일정이 늦어지면 계약을 다시 심사받아야 했다. 그 기간 동안 이미 줄인 구 시스템 인력을 되돌리는 비용도 필요했다.

"다음 달까지 두 체계를 다 유지하는 건 안 됩니다."

국장이 말했다. 발언을 끝내고 가브리엘을 보았다.

가브리엘은 ‘준비가 확인된 곳부터 순차적으로 전환’이라고 쓴 문장을 보았다. 법에 정해진 순서는 아니었다. 그가 안전하다고 판단해 넣은 조건이었다. 국장은 공통 화면이 생기면 지방 접수센터끼리 전화를 돌리는 일이 줄어든다고 했다.

“늦추는 손실도 봐 주셔야지요.”

가브리엘은 펜 뚜껑을 열었다.

“시행일은 유지하되 대조 완료를 별도로 보고하는 조건으로 하겠습니다. 완료 전이라는 표시를 지우지 마세요. 보고 책임자는 센터별로 지정하고.”

실무 법률관이 고개를 돌렸다. 가브리엘은 그녀를 보지 않고 3월 13일까지 첫 대조 결과를 보고하라고 적었다. 담당자는 그 정도라면 운영 계획에 넣을 수 있다고 했다. 국장은 다음 항목으로 넘어갔다.

회의가 끝나자 실무 법률관이 빈 컵을 모으며 말했다.

“완료 전 표시가 있어도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표시만 하라는 뜻은 아니야. 미대조 목록을 계속 처리해야지.”

“그럼 현장에서는 적합 의견을 받았다고 할 텐데요.”

가브리엘은 서류를 가방에 넣지 않고 다시 폈다. 조건부 의견이라는 문구에 밑줄을 그었다. 수신 부서를 운영과뿐 아니라 감사 담당에도 넣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자기 목소리가 조금 커졌다. 실무 법률관은 더 말하지 않았다. 가브리엘이 컵 두 개를 받아 들었다. 쓰레기통 앞에서 종이컵 안의 식은 커피를 비웠다. 전환을 멈추지 않은 것은 다행이었다. 그런데 회의 전에 쓴 문장은 이렇게 길지 않았다.

사무실로 돌아오니 국장이 보낸 메시지가 와 있었다. 협조에 감사한다는 짧은 문장이었다. 그는 답장을 쓰지 않았다. 13일 오전의 다른 회의를 옮겨 달라고 비서에게 말했다. 대조 결과를 자신이 보겠다고 했으니 그 시간은 비워 두어야 했다.

* * *

클레르가 모임 장소에 도착했을 때는 커피 냄새보다 젖은 외투 냄새가 먼저 났다. 낮부터 비가 왔다. 문 옆 우산꽂이는 이미 가득했다. 그녀가 접은 우산을 어디 둘지 망설이자 머리를 짧게 자른 여자가 플라스틱 통을 발로 밀어 주었다.

"여기 넣으세요. 오늘은 이게 우산꽂이예요."

루시앙이 안쪽에서 손을 들었다. 주방도 아닌 작은 세면대 앞에 서 있었다. 커피 주전자 두 개와 컵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그가 클레르를 보자 빈 컵을 하나 들었다가 내려놓았다.

"카다몸은 없어."

"여기까지 기대 안 했어."

그는 연하게 타 주겠다고 했다. 그녀는 그냥 자기처럼 달라고 했다. 루시앙이 눈썹을 들었다.

"같은 걸 마셔야 무슨 얘기인지 알지."

클레르는 컵을 받아 한 모금 마셨다. 썼다. 그가 웃자 그녀는 표정을 바꾸지 않으려고 했다.

방 안에는 아이 둘이 있었다. 탁자 아래에서 색연필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중 한 아이가 푸른색을 찾았다. 접이식 의자를 펴던 남자가 자기 발밑에서 찾아 주었다. 벽에는 새벽전선의 이름과 지역 모임 시간표가 붙어 있었다. 큰 구호 아래에 세탁기 수리를 도와줄 사람을 찾는 쪽지가 있었다.

레아가 클레르를 알아보고 임대료 통지를 가져왔느냐고 물었다. 클레르가 봉투를 꺼내자 레아는 상담을 맡는 사람에게 연결해 주었다. 여자는 당장 불법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계약 날짜와 갱신 조항을 읽더니 관리비 인상분까지 임대료에 섞여 있다고 짚었다. 항목별 계산을 받아 오면 다시 보겠다고 했다. 클레르는 자신이 집에서 계산할 때 놓친 줄에 표시했다.

"제가 대신 항의하면 안 됩니까?"

옆자리에서 누군가 물었다. 다른 세입자였다. 여자는 당사자 동의와 위임 범위를 먼저 확인하겠다고 했다. 클레르는 봉투를 다시

접었다. 기대했던 것보다 도움이 되는 말이었다. 루시앙이 멀리서 그녀를 보고 있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도 끄덕였다.

회계는 정말 이십 분쯤 걸렸다. 축제 때 산 종이컵 영수증이 하나 없었다. 세 사람이 동시에 자기에게 있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레아는 확인할 때까지 표시를 남겼다. 남은 돈은 다음 달 상담 자료 인쇄비로 쓰기로 했다.

클레르는 휴대전화 시계를 보았다. 루시앙도 보고 있었다. 두 사람은 마주 보며 조금 웃었다. 삼십 분은 넘지 않았다.

* * *

다음 안건은 한 건물의 임대료 문제였다. 우산 통을 내줬던 여자가 손을 들었다. 미레유라고 이름을 말한 뒤, 지난달에도 왔다고 덧붙였다.

그 건물의 세입자들이 관리사무소 앞에 모이기로 했다는 설명이 나왔다. 모임에서는 지원을 제안했다. 임대료 인상 통지와 수리 요구를 한꺼번에 제출하면 좋겠다고 했다. 에티엔이라는 남자가 안건을 진행했다. 클레르는 그의 이름을 루시앙에게서 들은 적이 있었다. 그는 말을 끊지 않고 기다렸다가, 상대가 끝나면 내용을 짧게 정리해 다시 말했다.

미레유는 지난달 공동대응에 이름을 올렸지만 이제 빼 달라고 했다. 그녀가 접힌 명단을 탁자 위에 놓았다.

에티엔이 물었다.

“인상에 동의하신다는 뜻은 아니시죠?”

“그런 말은 안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공동으로 대응하는 겁니다.”

여자는 손가방 손잡이를 놓았다.

“제가 사는 집 주소까지 나가면 곤란해요. 이사 갈 여유도 없고요.”

뒤에서 누군가 주소는 안 넣으면 된다고 했다. 다른 사람은 이름을 빼기 시작하면 명단의 힘이 약해진다고 했다. 에티엔이 손을 들었다. 말을 겹치지 말라는 뜻이었다.

"각자 한 달씩 버티면 관리사무소는 다음 달에 또 한 집씩 부를 겁니다. 같이 제출해야 같은 답을 받을 수 있어요."

몇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다. 클레르는 여자의 가방을 보았다. 손잡이가 꼬여 있었다. 여자는 그것을 풀다가 다시 쥐었다.

"한 달을 버텨야 다음 달도 살죠."

누군가 웃음을 터뜨렸다가 곧 멎었다. 에티엔은 자신도 그 사정을 안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협상보다 공동 교섭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여자의 요구를 반대 의견으로 기록하겠다고 말했다.

"의견 말고 이름을 빼 달라는 건데."

여자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클레르는 자기 앞에 있는 물컵을 밀었다. 손을 들면 될 일이었다. 이름을 빼는 것과 임대료에 반대하는 것은 다른 일이라고 말하면 됐다. 그러나 에티엔은 이미 다음 사람을 보고 있었고, 루시앙은 배포된 종이에서 무엇인가를 찾고 있었다.

클레르는 루시앙의 소매를 잡았다.

"저분 이름 빼는 건?"

그가 앞으로 몸을 숙여 명단을 보았다.

"아직 확정 아니래."

"본인은 빼 달라잖아."

"끝나고 얘기할게."

그녀는 소매를 놓았다. 그것으로 자기가 할 일을 한 듯한 기분이 잠깐 들었다. 그러고 나니 다시 손을 들기가 더 어려워졌다.

회의가 끝나기 전에 여자는 일어났다. 아이를 데리러 가야 한다고 했다. 출입문 가까이에 앉은 사람이 길을 비켜 주었다. 에티엔은 다음 주에 다시 이야기하자고 했다. 여자는 대답하지 않고 우산을 챙겼다.

* * *

루시앙은 정말 회의 뒤에 담당자를 찾아갔다. 클레르는 의자를 접으며 기다렸다. 이야기는 길지 않았다. 그가 돌아와 이름은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뺀 건 아니고?"

"오늘 출력한 건 다시 거두고, 당사자한테 연락한대."

"그건 잘됐네."

클레르의 말이 차갑게 나왔다. 루시앙은 곧바로 답하지 않았다. 그는 쌓인 의자를 벽으로 옮겼다. 클레르는 남은 컵을 모았다. 탁자 아래에서 아이가 푸른 색연필을 놓고 갔다. 그녀는 그것을 창틀에 올려놓았다.

나갈 때 레아가 다음 주에도 오겠느냐고 물었다. 클레르는 근무표를 봐야 한다고 답했다. 요즘 자주 하는 말이었다.

밖에서는 비가 잦아들었다. 루시앙이 우산을 펼치다가 다시 접었다.

"불편했어?"

"좋은 얘기도 있었어."

"그럼 나쁜 얘기는?"

"그 사람은 그냥 자기 이름을 빼 달라고 한 거잖아."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걸으면서 젖은 보도블록을 내려다봤다.

"에티엔은 지금 건물 여러 군데를 같이 보거든. 한 명씩 빠지면 나머지가 힘들어질까 봐 그랬을 거야."

"그분도 그 나머지에 들어가잖아."

루시앙은 잠시 걷지 않았다. 클레르도 멈췄다. 그녀는 그가 억울해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당신한테 따지는 게 아니야."

그녀가 말했다.

"알아."

집에 와서 루시앙은 두 사람의 젖은 외투를 떨어뜨려 걸었다. 클레르는 관리사무소에 보낼 질문을 적었다. 그가 컵을 가져와 옆에 앉았다. 이번에는 그녀가 마시는 커피였다.

"다음엔 네 편에서 얘기해줄게."

루시앙이 말했다. 클레르는 자기 편이 필요한 일인지 되묻고 싶었다.

"고마워."

그가 안도하는 것을 보고 그녀는 말을 덧붙였다.

"그런데 그 명단, 어디까지 보냈는지 물어봐 줄래? 빼는 것하고 이미 보낸 건 다르잖아."

"알아볼게."

그가 전화기를 가져왔다. 클레르는 답을 기다리는 대신 자기 봉투를 펼쳤다. 이름과 주소, 계약서의 조항을 넣고 인상분을 항목별로 나누어 달라고 적었다. 루시앙이 세면실로 간 뒤 전송을 눌렀다. 미레유에게 해 줄 말은 여전히 떠오르지 않았다.

# 제6장 우리의 미래

3월 11일 일요일

아버지는 세 사람이 먹기에는 큰 닭을 구웠다. 클레르는 현관에서부터 냄새를 맡았다. 마늘 껍질과 조금 탄 기름 냄새였다. 루시앙이 가져온 꽃을 받으며 가브리엘은 어디에 꽂을지 잠깐 망설였다. 클레르는 찬장 아래쪽을 열어 유리병을 꺼냈다.

"거기 있었니?"

아버지가 물었다. 그녀는 물을 받으며 그렇다고 했다. 어머니가 쓰던 꽃병은 더 위에 있었다. 꺼내려면 의자가 필요했다.

식탁에는 접시 세 개와 냄비 받침이 놓여 있었다. 예전에 어머니가 앉던 쪽이었다. 가브리엘이 루시앙에게 그 자리에 앉으라고 했다. 클레르는 꽃병을 창가로 옮기고 맞은편에 앉았다.

닭은 가운데까지 잘 익었다. 문제는 양이었다. 가브리엘은 접시를 돌리며 남으면 가져가라고 했다. 클레르는 집에도 먹을 것이 있다고 말했다. 루시앙은 내일 점심으로 좋겠다고 했다. 아버지의 얼굴이 조금 풀렸다.

식탁에서 처음 나온 이야기는 시험이었다. 루시앙이 배차 총괄 선발에 지원했다고 했다. 가브리엘은 선발 절차를 물었다. 필기와 면접, 근무 평가가 있다는 설명을 끝까지 들었다. 클레르는 대화가 무사히 이어지는 동안 채소를 잘랐다.

"일하면서 준비하기 쉽지 않겠군."

"남들도 다 하니까요."

루시앙이 답했다. 가브리엘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클레르는 그가 좋아하는 종류의 대답이라는 것을 알았다. 덕분에 식사가 편해질 수 있었다. 그것이 싫지는 않았지만 마냥 좋지도 않았다.

"전차 확장도 늦어지고 있죠?"

가브리엘이 물었다.

"새 노선 말씀이면, 차량보다 차고 쪽이 문제입니다. 교대 인력 배치도 아직 덜 나왔고요."

루시앙은 무엇이 정해졌고 무엇이 아직인지 나누어 말했다. 클레르는 듣다가 포크를 고쳐 쥐었다. 아버지와 그가 둘 다 자신을 보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끼어든 것 같았다.

가브리엘은 결혼식 이야기를 꺼냈다. 무엇을 도와주면 되느냐고 물었다. 클레르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식당은 잡았다면서."

"잡았어요. 다른 건 아직."

"예약금은?"

"냈고요."

그는 칼을 내려놓았다.

"혼자 다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야."

"혼자 안 해요."

클레르가 루시앙을 보았다. 루시앙은 자기 접시에서 시선을 들었다. 아버지는 그 말을 바로잡으려다가 그만둔 것 같았다. 물을 따라 주려 병을 들었는데 그녀의 잔은 거의 차 있었다. 그는 자기 잔에 조금만 따랐다.

루시앙이 마르타의 크림 이야기를 꺼냈다. 결혼식에 타르트를 만들겠다고 나선 친구가 있다고 했다. 가브리엘은 그 빵집에서 일하는 학생이냐고 물었다. 클레르가 그렇다고 했다.

"아직 공부하지?"

"식품화학 삼 학년이요."

"가게를 열고 싶다더니."

클레르는 아버지가 그 말을 기억하는 것이 의외였다. 자신이 언제 말했는지는 기억하지 못했다. 루시앙이 그 아이는 간판에 들어갈 이름부터 다 정해 놓았다고 했다. 가브리엘이 웃었다. 클레르는 오늘 식사에서 처음으로 힘을 들이지 않고 웃었다.

* * *

커피를 마시기 전에 가브리엘이 남은 닭을 용기에 담았다. 클레르도 부엌으로 갔다. 아버지는 뚜껑을 닫다가 용기 모서리에 낀 기름을 닦았다. 그녀는 행주를 적셔 식탁 위를 닦았다.

"병원은 어떠니?"

"늘 비슷해요."

"지난번 시약 얘기했지."

클레르는 행주를 접었다. 아버지에게 직접 얘기한 기억은 없었다. 루시앙이 말했을 수도 있었다.

"루시앙이 아까 말하더구나. 식사 전에."

가브리엘이 덧붙였다.

"지금은 들어왔어요. 밀린 것도 거의 끝났고요."

"다행이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거기서 끝낼 수도 있었다. 아버지가 용기를 건네며 누락된 인증서를 좀 더 일찍 알려 줬으면 덜 늦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알려 줬어도 늦었을 거예요. 확인하는 곳이 따로 있었으니까."

"그래도 확인은 해야지."

"알아요."

클레르는 용기를 받았다. 따뜻했다.

"검사실에서 확인을 하지 말자는 말은 안 해요, 아빠."

가브리엘은 손을 씻다가 수도를 잠갔다.

"그 뜻이 아니었어."

"그날 온 분은 일을 하루 뺐어요. 다시 오라는 건지 기다리라는 건지 알려 주는 데 오후가 다 갔고요."

가브리엘은 수건을 내려놓았다.

"지금은 연락됐니?"

"됐어요. 아빠가 알아봐 주실 일은 아니에요."

그는 빈 손으로 잠시 서 있었다. 그러고 나서 말했다.

"그래. 힘들었겠다."

그 말이 아버지 입에서는 어색했다. 클레르는 고맙다고도 괜찮다고도 바로 말하지 못했다. 그녀는 남은 용기를 하나 더 꺼내 아버지 몫을 따로 담았다. 다 가져가면 그는 저녁에 아무것도 먹지 않을 수 있었다.

거실에서 루시앙이 컵을 몇 개 가져오면 되느냐고 물었다. 클레르는 세 개라고 답했다.

* * *

집으로 돌아오는 전차에서 루시앙은 꽃을 산 곳이 너무 비쌌다고 했다. 클레르는 가격을 듣고 그를 보았다.

"왜 그렇게 큰 걸 샀어?"

"작은 건 너무 작았어."

"그게 작은 거니까."

그는 창밖을 보며 웃었다. 클레르는 그의 무릎 위에 놓인 음식 봉투가 기울어지지 않게 잡아 주었다. 일어나야 할 정류장까지 아직 멀었다.

"시약 얘기는 왜 했어?"

"무슨 얘기할지 몰라서. 아버님이 네 일 어떠냐고 물으셨어."

"다음에는 내가 할게."

"알았어."

조금 뒤에 루시앙이 식사는 괜찮았느냐고 물었다. 클레르는 생각하다가 닭이 맛있었다고 했다. 루시앙은 질문을 다시 하지 않고 자기 몫을 저녁에 먹겠다고 했다.

전차가 집 가까이 왔을 때 루시앙이 명단 이야기를 꺼냈다.

"그분 이름 뺐어. 관리사무소에 보낸 초안도 새 걸로 바꿔 달라고 했대."

"그분한테도 알려드렸대?"

"그건 모르겠어. 물어볼게."

그가 전화기에 짧게 적었다. 클레르는 고맙다고 하고 그의 무릎에 놓인 음식 봉투를 받아 들었다. 루시앙이 자리에서 일어나 손잡이를 잡자 그녀도 따라 일어났다.

집에 도착했을 때 마르타가 계단 아래에 있었다. 종이봉투를 들고 벽에 기대 서 있었다. 두 사람이 동시에 왜 여기 있느냐고 물었다.

"벨 눌렀는데 없어서."

"전화하지."

"지금 막 하려고 했어요."

얼마나 기다렸는지는 말하지 않았다. 봉투에는 작은 타르트 네 개가 들어 있었다. 라미레 주방에서 먹어 보고 남은 것이라고 했다. 흰 테이프 쪽 크림을 조금 덜 달게 만들었다고도 했다. 클레르는 남은 것이라는 말에 장난스럽게 불평했고, 마르타는 좋은 것부터 남겨 왔다고 했다.

셋이 올라가다가 루시앙이 우편함을 열었다. 우편함 열쇠와 집 열쇠가 고리에서 부딪혔다. 마르타가 갑자기 다음 주 일요일도 셋이 놀 수 있느냐고 물었다. 루시앙이 잠깐 멈췄다.

"그날은 우리 나가기로 했어." 클레르가 말했다.

"오빠 회의 있다던데."

루시앙은 우편함 문을 닫았다. 마르타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아닌가?"

클레르는 계단 한 칸 위에 서 있었다. 루시앙의 얼굴이 눈높이보다 아래에 있었다.

"위에서 얘기하자." 그가 말했다.

마르타는 봉투를 클레르에게 넘기고 자기는 가겠다고 했다. 클레르는 들어오라고 했다. 커피 한 잔은 하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마르타가 망설이다 따라왔다.

집에서 셋은 타르트를 먹었다. 클레르가 전보다 덜 달고 좋아졌다고 하자 마르타는 그제야 웃었다. 라미레에서 다음 주에 여섯 개를 더 받아 보겠다고 했다. 직원들 시식용이지만 재료비는 준다고 했다.

마르타가 휴대전화 화면을 내밀었다. 한나가 보내 온 냉장고 사진이었다. 자석 두 개 사이에 축제 사진이 붙어 있었다.

"엄마가 인쇄했어요. 셋이 같이 사는 줄 아는 거 아니야?"

"여기 또 오고 싶을 때 보여 줘." 클레르가 말했다. "가족사진에 있다고."

마르타가 냉장고 옆에 매달린 낡은 앞치마를 확대했다. 자기 것을 아직 쓰고 있다며 한나에게 새것을 사라고 답장을 보냈다.

마르타는 봉투에서 가게 약도를 꺼냈다. 내일 오전에 보러 가기로 했는데 혼자 가면 질문을 못 할 것 같다고 했다. 클레르는 근무 전에 함께 가겠다고 했다. 루시앙도 쉬는 날이냐고 물으려던 마르타가 입을 다물었다. 클레르는 그냥 물어봐도 된다고 했다.

루시앙이 잘됐다고 했다. 마르타는 용기를 씻지 말고 나중에 주라며 자리를 떴다. 문이 닫히자 클레르는 빈 접시를 바로 치우지 않았다.

* * *

"언제 정해졌어?"

그녀가 물었다.

"금요일."

"그런데 마르타가 먼저 알아?"

"어제 가게에서 만났어. 다음 일요일에 빵 주문할 수 있느냐고 묻다가."

루시앙은 탁자 위에 손을 올렸다. 클레르는 그의 손등에 난 작은 상처를 보았다. 축제 정리 때 생긴 것이었다.

"우리가 가기로 한 건 지난달이잖아."

"알아."

다음 일요일에는 시외 여행사에서 가을 예산으로 포르투에 갈 수 있을지 상담받고, 바닷가에서 점심을 먹기로 했다. 숙소를 얼마나 줄여야 할지도 물을 참이었다. 식당은 예약하지 않았지만 클레르는 그날을 비우려고 동료의 토요일 근무를 대신 맡았다. 자기 일정만 되돌릴 수는 없었다.

"여러 모임이 쓸 차량을 나누는 회의야. 내가 운행 일정을 설명해야 해."

"다른 사람은 못 해?"

"할 수는 있는데 시간이 더 걸려."

"그럼 시간이 더 걸리면 되잖아."

클레르가 말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도 자기가 얼마나 매섭게 말했는지 알았다. 하지만 말을 거두고 싶지는 않았다.

"당신이 한다고 했어?"

루시앙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한테 묻기 전에."

"응."

그녀는 식탁 아래에서 발을 뺐다. 식탁이 조금 흔들렸다. 종이 받침이 아직 그 자리에 있었다.

"이번엔 미뤄도 돼."

루시앙이 얼굴을 들었다.

"대신 나한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정하지 마. 내가 싫다고 할 수도 있잖아."

"알았어."

"대답만 하지 말고."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 다음 일요일 오전까지만 참석하겠다고 메시지를 썼다. 화면을 보여 주려 하자 클레르가 고개를 저었다. 내용을 읽어서 허가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가 전송하고 내려놓았다.

둘은 여행사에 보낼 문의를 함께 썼다. 25일 오전 아홉 시에 전화로 견적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시외로 나가는 차비는 아낄 수 있었다. 그렇다고 일요일 하루를 잃은 아쉬움이 사라지지는 않았다.

루시앙은 18일 점심만은 바닷가에서 먹자고 했다. 오전 회의가 길어져도 열두 시에는 나오겠다고 했다. 클레르는 오후 두 시를 적고 펜을 그에게 건넸다. 그가 자기 달력에도 옮겨 썼다.

* * *

밤에 루시앙은 책장의 느슨한 받침을 고쳤다. 클레르가 판을 누르고 그가 새 부품을 댔다. 무거운 책을 다시 올려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주머니에서 패드 봉지를 꺼내 식탁 다리에도 붙였다. 오래 괴어 둔 영수증은 이제 필요 없었다.

휴대전화가 울렸다. 그는 화면을 보고 직장이라고 말했다. 클레르는 바닥에 앉은 채 책등의 먼지를 털었다. 그는 짧게 답했다. 통화를 마치고 배차 총괄 지원 서류에 추천서를 추가로 내야 한다고 했다.

"누가 써 줘?"

"우리 반장. 내일 여쭤봐야지."

"써 주실 거야."

"어떻게 알아?"

"당신 일하는 거 알잖아."

루시앙이 그녀를 보았다. 클레르는 책을 한 권 더 건넸다. 그는 책을 받아 꽂다가 반장이 부탁했던 대체근무표도 내일 가져가야겠다고 말했다. 클레르는 잊지 않게 가방 위에 올려두라고 했다.

클레르는 달력에 적은 두 시를 다시 보았다. 그 아래 마르타의 가게 방문 시간을 넣었다. 내일은 자신이 먼저 가서 기다릴 생각이었다.

루시앙이 빈 부품 봉투를 들고 어디 버리느냐고 물었다. 클레르는 자기 옆 쓰레기통을 가리켰다. 그가 가까이 오자 그녀는 그의 팔을 잠깐 잡았다가 놓았다.

# 제7장 닫힌 가게들

3월 12일 월요일

마르타는 열쇠를 받아 본 사람처럼 문 앞에 섰다. 하지만 열쇠는 중개인이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손잡이를 잡았다 놓고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클레르는 종이봉투를 대신 들어 주었다. 봉투 안에는 자와 줄자, 연습장, 전날 밤에 뽑았다는 견적서가 들어 있었다.

"예약한 시간 맞아?"

"열한 시 반."

클레르는 시간을 보았다. 열한 시 이십 분이었다.

"일찍 왔네."

"언니를 기다리게 할 순 없잖아요."

마르타가 웃었지만 곧 유리문 안을 다시 들여다봤다. 클레르는 오늘 오후 근무였다. 세 시 전에는 병원으로 가야 했다. 마르타는 수업이 없는 오전을 골라 중개인에게 여러 번 전화를 걸었다고 했다.

가게는 한동안 비어 있었다. 이전에 양복 수선을 하던 자리였다. 안쪽 벽에는 옷걸이를 달았던 자국이 남았고, 유리 안쪽 바닥에는 먼지가 두껍게 앉았다. 길 건너 옛 개보수업체의 간판은 글자 두 개가 떨어져 나가 있었다. 그곳에는 작은 사무실이 새로 들어왔는데도 옛 간판을 떼지 않았다.

중개인은 열한 시 사십 분에 왔다. 미안하다고 하면서도 앞 손님이 오래 잡았다는 말을 먼저 했다. 문을 여니 묵은 천 냄새가 났다. 마르타는 코를 찡긋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전기 용량은요?"

마르타가 물었다. 축제의 제과점 주인에게 들은 말이 연습장 첫 줄에 적혀 있었다. 중개인은 견적서에 적혀 있다고 했다.

"이건 지금 용량이잖아요. 늘릴 수 있어요?"

그는 잠깐 종이를 보았다. 관리사무소에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마르타는 연습장 한쪽에 표시했다. 클레르는 창문을 열어도 되느냐고 물었다. 중개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창문은 열리지 않았다. 잠금장치가 문제가 아니라 페인트가 붙어 있었다.

"오래 안 열어서 그래요."

중개인이 말했다.

마르타는 클레르와 벽 너비를 쟀다. 작업대와 오븐을 넣으면 손님이 앉을 자리는 두 개쯤 남았다. 수도꼭지를 틀자 처음엔 물이 흐리게 나왔다. 맑아진 뒤에도 그녀는 잠깐 더 흘렸다.

"배수는 그대로 쓰면 되나요?"

"전에도 가게였으니까요."

"양복점이요."

중개인이 휴대전화를 꺼냈다. 마르타는 잠깐 입을 다물었다가, 연습장에 남은 질문을 읽었다.

"환기 설비도 물어봐 주세요."

그녀는 자기 목소리가 너무 작았는지 한 번 더 말했다.

* * *

나와서 마르타는 견적서를 접지 않았다. 바람이 불 때마다 종이가 휘었다. 클레르는 파일에 넣으라고 했지만 마르타는 계속 읽었다.

"보증금만 생각했어요."

"설비가 더 들겠네."

"보증금도 아직 없는데."

그녀가 웃었다. 클레르도 따라 웃으려다 그만두었다. 마르타는 자기 웃음에 아무도 합류하지 않자 입술을 다물었다.

두 사람은 가까운 카페에 들어갔다. 마르타가 창가를 골랐다. 견적서를 펼치기에 탁자가 작아서 메뉴판을 다른 자리로 옮겼다. 주문을 받으러 온 직원이 메뉴판을 다시 가져왔다. 마르타가 미안하다고 했다.

"여기부터 빼자."

클레르가 종이의 마지막 줄을 짚었다. 실내 장식 비용이었다.

"빼면 더 보기 싫어져요."

"보기 싫은 걸 못 먹는 건 아니잖아."

"언니는 가게를 안 해봤잖아요."

말이 조금 빠르게 나왔다. 클레르는 손을 뗐다.

"그렇지."

마르타는 종이를 보았다. 컵이 나올 때까지 둘 다 말을 하지 않았다. 클레르는 설탕 통을 마르타 쪽으로 밀었다. 마르타는 설탕을 넣지 않았다.

"미안해요."

"뭐가?"

"와 달라고 해놓고."

클레르는 고개를 저었다. 조언을 부탁받은 것도 아닌데, 숫자를 보자마자 줄일 곳부터 찾았다.

"나는 뭘 도와주면 돼?"

마르타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일단 안 된다고 하지 마요."

"안 된다고 안 했어."

"알아요. 근데 그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클레르는 웃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마르타가 연습장을 펴 보였다. 열두 가지 페스트리 이름과 재료가 적혀 있었다. 앞쪽에는 크림 배합을 시험한 날짜가 있었다. 어떤 것은 붉은 펜으로 지워졌고, 옆에 실패한 이유가 짧게 적혀 있었다. 그 밑에 '다시'라고 쓰인 줄도 있었다.

"열두 가지를 한꺼번에?"

"그건 꿈이고. 처음엔 네 가지요."

클레르는 완고한 클레르를 찾았다. 이미 가격까지 붙어 있었다. 루시앙의 천천히 오는 아몬드에는 가격 대신 물음표가 있었다. 견과류 값이 달라진다고 했다. 한나의 이름이 붙은 것은 작은 사과 과자였다. 가운데가 구워지기도 전에 가장자리가 탄다는 메모가 있었다.

"엄마는 사과가 너무 적대요."

"더 넣으면?"

"안 익어요."

"그럼 어쩌려고."

"얇게 해보려고요. 엄마는 그것도 작다고 하겠지만."

클레르가 연습장을 돌려주었다. 마르타는 견적서와 연습장을 나란히 놓았다. 어느 하나를 덮지 않았다.

그녀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같은 실험조의 엘리즈가 원가표를 보내 달라고 했다. 마르타는 한 장만 찍어 보냈다.

"배합도 달래요?" 클레르가 물었다.

"걔는 그거 다 알아요. 내가 계산을 틀렸대요."

답이 금방 왔다. 마르타가 종이에 손가락을 대고 더하다가 지우개를 꺼냈다. 여섯 개 분량의 달걀 값을 네 개에 나눠 놓은 것이었다. 그녀는 고친 값을 보며 웃었다.

"조금 싸졌어요. 엘리즈 거 하나는 공짜로 줘야겠다."

"이번에는 계약 안 할래요."

그녀가 말했다.

클레르는 이유를 물었다.

"졸업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건 아니에요. 빵을 만들 수 있는 자리인지도 모르는데 돈부터 내긴 싫어요."

마르타는 라미레 주방장이 밤에는 주방이 빈다고 했던 말을 꺼냈다.

"시간제로 쓸 수 있는지 물어볼래요. 조건부터 들어봐야죠."

"그럼 여기 견적은?"

"갖고 있을 거예요. 다음 거랑 비교하려고."

마르타는 중개인에게 전화했다. 받지 않았다. 확인할 항목과 계약금을 아직 낼 수 없다는 말을 문자로 보냈다. 잠시 뒤 다른 사람이 먼저 계약할 수 있다는 답이 왔다.

그녀가 화면을 클레르에게 보였다.

"알았다고 하면 되는 거죠?"

마르타는 휴대전화를 내려놓았다가 다시 들어, 알겠다고 보냈다.

"어제는 여기서 빵 굽는 꿈까지 꿨는데."

클레르는 뭐라고 말할지 찾다가 그만두었다. 대신 빵을 하나 더 주문했다. 마르타는 자기 것도 달라고 했다. 먹는 동안 마르타는 라미레 주방장에게도 메시지를 썼다. 다음 여섯 개를 만들 때 주방을 써 볼 수 있느냐고 물었다.

* * *

병원으로 가는 길에 행정센터 앞을 지났다. 문에 방문 예약 안내가 붙어 있었다. 마르타가 사진을 찍었다. 중개인이 용도 확인은 그곳에서 하라고 했단다. 처음에는 전화로 물어보고 필요하면 오겠다고 했다.

옆에는 '단일 창구 시범 운영'이라는 오래된 안내판이 남아 있었다. 마르타가 두 장을 번갈아 읽다가 새 안내지 아래의 번호를 저장했다.

헤어지기 전에 마르타가 클레르에게 견적서를 잠깐 맡겼다. 가방 안에서 납작해진 초콜릿을 꺼내려는 것이었다. 그녀는 포장을 뜯어 반을 내밀었다.

"오늘 고마워요."

"나중에 사장님 되면 갚아."

"그때는 빚 많아서 못 갚을 수도 있는데."

클레르가 초콜릿을 받아 먹었다. 마르타는 남은 것을 바로 먹지 않고 싸서 가방에 넣었다. 종이봉투는 겨드랑이에 끼웠다.

"처음 잘 나온 빵은 둘한테 줄게요. 조교님한테는 두 개."

"왜?"

"그 사람은 하나 먹고 맛을 생각해요. 생각하기 전에 다 먹으니까 하나 더 줘야 해."

클레르는 그 말이 정확해서 웃었다. 마르타는 대학 쪽으로 몇 걸음 가다가 돌아왔다. 전화기가 울리고 있었다. 라미레 주방장의 답이었다.

"수요일 저녁에 와 보래요. 아직 빌려준다는 건 아니고."

그녀가 견적서를 봉투 안에 밀어 넣었다. 오늘 본 가게의 약도는 뒤로 넘어갔다. 클레르가 봉투를 받쳐 주자 마르타는 빈손으로 답장을 썼다.

# 제8장 작은 타협

3월 13일 화요일

루시앙은 저녁 여덟 시가 지나서 돌아왔다. 클레르는 불을 줄였던 냄비를 다시 가운데로 옮겼다.

그는 신발을 벗고 잠깐 현관 턱에 앉았다.

"밥 먹었어?"

"빵."

"그건 몇 시에."

그가 손가락으로 눈을 눌렀다.

"한 시쯤."

클레르는 식탁에 그릇을 하나 더 놓았다. 루시앙은 옷부터 갈아입겠다고 했다. 그는 양말까지 갈아 신고 나왔다.

"오늘 아침부터 꼬였어."

그가 앉으며 말했다. 차량 한 대가 점검 때문에 빠졌는데 전달받은 표에는 들어 있었다. 다른 노선의 차를 가져올 수 있는지 확인하고, 운전기사들에게 바뀐 시각을 알리고, 이미 나간 안내를 다시 고쳤다고 했다. 클레르는 그가 말하는 동안 고기를 잘게 잘랐다. 그가 배고프면 설명이 길어진다는 것을 알았다.

"먹고 해."

그는 숟가락을 들었다. 두 입쯤 먹고 나서야 말이 줄었다.

식사가 끝나자 그가 가방에서 홍보지 묶음을 꺼냈다. 다음 주 공동행동을 알리는 종이였다. 주말부터 가게와 정류장에 나눠 줄 것이라고 했다. 병원 대기와 전차 배차, 주거비 문제가 한 장에 들어 있었다. 굵은 글씨로 '엿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고 적혀 있었다.

클레르는 종이를 가져왔다.

"이거 무슨 엿새야?"

"검사."

"모든 검사가 아닌데."

루시앙은 그녀 옆으로 의자를 옮겼다. 아래쪽 작은 글씨에는 일부 검사 항목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녀는 읽고도 바로 종이를 놓지 않았다.

"맨 위만 읽으면 지금도 모든 검사가 엿새씩 걸리는 줄 알겠어. 그때 밀린 건 끝났어."

"아래에 쓰긴 했어."

"나도 읽었어."

그는 잠시 홍보지를 보더니 사진을 찍었다. 레아에게 제목을 고칠 수 있는지 물어보겠다고 했다. 클레르는 기다렸다. 휴대전화에 답장이 왔을 때 그는 화면을 자기 쪽으로 돌려 읽은 뒤 말로 전했다.

"이번 건 이미 인쇄했대. 다음에는 제목에 넣겠대."

"그럼 이번 주말에는 이걸 나눠 줘?"

루시앙은 고개를 끄덕이려다가 멈췄다.

"인쇄비가 꽤 들었어."

클레르는 회계 모임에서 남은 돈을 세던 레아를 떠올렸다. 이걸 다시 찍으면 다른 데 쓸 돈이 줄어들 터였다. 그녀는 제목 아래의 빈 곳을 짚었다.

"붙이는 쪽에라도 써."

그녀가 말했다. 그는 펜을 가져왔다. 제목 옆 빈 곳에 '일부 항목'이라고 적었다. 클레르는 그 글씨가 너무 작다고 했다. 루시앙이 줄을 긋고 다시 썼다.

둘은 몇 장을 함께 고쳤다. 작은 글씨에는 일부 항목이라고 되어 있었지만 지난달 수치라는 말도 필요했다. 두 줄을 쓰고 나니 손이 저렸다.

"다른 묶음은 얼마나 있어?"

"나도 몰라. 여기 건 내일 좀 더 고칠게."

클레르는 펜을 내려놓았다. 그가 가진 것만 고쳐서는 다른 사람들이 읽을 제목이 달라지지 않았다. 그렇다고 이 종이 몇 장을 그대로 둘 수도 없어, 마르기 전에 겹치지 않도록 식탁에 펼쳤다.

* * *

루시앙이 설거지를 하는 동안 클레르는 병원에서 받아 온 근무표를 가방에 넣었다. 자기 이름을 찾다가 3월 18일 일요일의 빈칸을 보았다. 바닷가 점심은 오후 두 시였다. 그는 오전 회의를 끝내고 올 수 있다고 했다. 상담은 그다음 주였다. 그녀는 빈칸 옆에 작은 점을 찍었다.

"이 자료는 어디서 났어?"

그녀가 홍보지를 가리켰다.

"병원 공개 안내에도 있고. 네가 전에 얘기해 준 것도."

"내가?"

"환자 이름 같은 건 없어.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졌다고 했잖아."

클레르는 지난달 말 집에서 시약이 없다고 투덜거린 것을 떠올렸다. 인원이 줄어 평일에도 점검이 밀린다는 말도 했다. 환자 정보를 말한 적은 없었다. 숫자를 정확히 말했는지는 기억이 흐렸다.

"내 말만 듣고 쓴 건 아니지?"

"확인할 수 있는 숫자만 썼대."

그가 수도를 잠그고 손을 닦았다.

"출처 적힌 데 같이 볼래?"

홍보지 아래에는 그녀가 본 적 있는 병원 공개 안내문 제목이 적혀 있었다. 엿새라는 숫자도 그 문서에 있었다.

"됐어. 제목은 꼭 고쳐."

"응."

그는 설거지를 마저 했다. 클레르는 근무표를 가방 안쪽에 넣었다. 다음부터는 집에서 푸념할 때도 숫자를 빼고 말해야 하나 생각했다가, 그건 이상하다고 여겼다. 루시앙에게는 자기 하루를 말하고 싶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으면 병원에서 있었던 일은 계속 병원에만 남을 것 같았다.

* * *

밤 열 시가 넘어서 여행사에서 답이 왔다. 25일 오전 아홉 시에 전화로 상담할 수 있다고 했다. 클레르는 루시앙에게 시간부터 읽어 주었다. 그가 달력을 확인하고 된다고 했다. 그녀는 확인 답장을 보냈다.

마르타도 문자를 보냈다. 내일 라미레에 가져갈 재료의 양을 다시 계산해야 한단다. 뒤이어 온 재료표 사진에는 크림 한 번 분량을 반으로 줄인 흔적이 있었다. 클레르가 이유를 묻자, 첫날에는 치우는 데 얼마나 걸리는지도 재겠다는 답이 왔다. 클레르는 잘되면 알려 달라고 보냈다.

루시앙이 시험 책을 식탁으로 가져왔다. 클레르는 말린 홍보지를 한쪽으로 모아 자리를 내주었다. 그는 두 장을 읽고 나서 같은 줄을 다시 읽었다. 클레르는 먼저 자겠다고 했다가, 그가 노트북을 켜자 잠깐 기다렸다.

그가 옆으로 비키며 문장 하나만 봐 달라고 했다.

화면에는 모임에 보낼 메시지가 열려 있었다. 제목은 '대기 자료와 홍보지 수정'이었다.

"이 마지막 문장. 제목 고쳐 달라는 걸 좀 덜 딱딱하게 쓰고 싶어서."

클레르는 마지막 줄을 읽었다. 앞쪽 문단에는 공개된 대기 지표를 잘 정리해 줘서 고맙다는 말이 있었다. 그녀가 모르는 첨부 자료의 이름도 보였지만 내용은 열려 있지 않았다.

"부탁하면 되지."

"그러면 받은 사람들이 잘못 만든 것처럼 보이잖아. 내가 자료 보낼 때 설명을 덜 했을 수도 있고."

클레르는 그를 보았다. 루시앙은 자기가 말한 것을 생각하는 듯 잠깐 입을 다물었다.

"그렇게 보여도 고쳐야지." 그녀가 말했다.

"알아."

그는 마지막 줄을 지우고 다시 썼다. 제목에 '지난달 일부 검사'라고 넣어 달라는 요청이었다. 클레르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가 전송했다.

둘이 양치하는 동안 답이 왔다. 루시앙이 먼저 읽고 그녀에게 보여 주었다. 다음 인쇄에 반영하겠다는 말 아래, 이미 넘긴 물량은 예정대로 쓰겠다고 적혀 있었다.

"이미 넘어간 게 있어?"

"각 지역에."

클레르는 전화기를 돌려주었다.

"그쪽에서도 고칠 수 있잖아."

"내가 들고 가는 건 고칠게. 다른 데 건 담당자한테 부탁해야 해."

그는 다시 요청을 보냈다. 곧바로 답은 오지 않았다. 클레르는 세면대에 튄 물을 손으로 쓸어냈다. 그가 작은 수건을 건네 주었다.

침대에서 루시앙이 내일 시험 책을 일찍 펴야겠다고 했다. 클레르는 달걀은 자기가 삶겠다고 했다. 그는 괜찮다고 하다가 그냥 고맙다고 했다. 그녀는 그가 놓아 둔 손을 찾아 잡았다. 그가 침대 옆에 놓은 시험 책은 몇 장 넘어가지 않은 채였다.

* * *

3월 14일 수요일

아침 커피를 마시는 동안 라디오에서 집회 예고가 나왔다. 주거 단체와 교통 노동조합, 공공서비스 이용자 모임이 이번 주말에 공동 행사를 연다고 했다. 참여 단체 이름은 한꺼번에 읽기에 길었다. 진행자는 중간에 숨을 고르고 나머지를 읽었다. 행사 구간을 지나는 노선은 운행이 바뀔 수 있다고 덧붙였다.

루시앙은 그 대목에서 소리를 조금 키웠다. 출근하면 조정표를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클레르는 달력에서 일요일의 빈칸을 확인했다. 오전에 광장으로 가려면 평소 타던 노선이 어디까지 다니는지 알아봐야 했다.

"마르타도 그날 나와?"

그녀가 물었다.

"물어봐야지. 빵집에서 일할 수도 있어."

"그날 나는 오전에 갈 수 있을 것 같아."

라디오에서는 주말 날씨로 이야기가 넘어갔다. 일요일에는 구름이 많지만 비는 오지 않을 거라고 했다. 클레르는 달력의 작은 점을 보았다.

"우리는 두 시."

그녀가 말했다.

"두 시."

루시앙이 답했다. 그는 시험 책을 가방에 넣었다. 홍보지도 넣으려다 식탁 위에 남겨 놓았다. 아직 안 고친 것이 섞여 있었다.

클레르는 고친 종이 한 장을 골랐다. 제목 옆에 덧쓴 글씨부터 읽고 자기 가방에 넣었다.

"내가 가져갈 건 내가 고칠게. 일요일에 어디부터 나눠 줘?"

그가 광장에 모여 각자 맡은 가게로 간다고 설명했다. 두 시 약속은 그대로였다.

# 제9장 나눌 몫

3월 18일 일요일

클레르는 광장에 가기 전에 빵집에 들를 생각이었다. 전차에서 내렸을 때 이미 보도가 막혀 있었다. 사람들 사이에 선 것은 경찰이 아니라 접이식 탁자를 나르던 남자 둘이었다. 탁자 다리 하나가 펴지지 않았다. 뒤에서 아이를 안은 여자가 지나가겠다고 말했고, 남자들이 탁자를 세웠다. 클레르도 그 틈으로 빠져나왔다.

분수 쪽에서는 마이크를 시험하고 있었다. 교통 노동조합의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자기 깃발을 찾았다. 세입자 모임은 정해진 인상률보다 갱신을 거절당하는 일을 먼저 말해야 한다고 다투고 있었다. 클레르는 자기 집 계약서를 봐주었던 여자를 찾아 인사했다. 여자는 손바닥에 적힌 전화번호를 다른 종이에 옮기느라 대답이 늦었다.

"미레유 씨는요?"

여자가 고개를 들었다.

"오늘은 안 와요. 이름은 뺐고요."

클레르가 다행이라고 하자 여자는 종이를 두 번 접었다.

"명단에서는요. 그 집 서류를 같이 봐주던 사람이 이제 개인 상담으로 돌리라더라고요. 본인이 공동대응에서 빠졌으니까."

"그럼 처음부터 다시 접수해요?"

"제가 다음 주에 따로 만나기로 했어요."

여자는 손바닥의 숫자를 손가락으로 문질렀다. 잘 지워지지 않았다. 클레르는 옆 탁자에서 물티슈를 찾아 건넸다. 누가 결정했느냐는 질문은 하지 못했다.

루시앙은 무대 옆에서 흰 종이를 높이 들고 있었다. 급하게 인쇄한 글씨가 뒤쪽에서는 보이지 않는 모양이었다. 그는 종이를 옆

사람에게 주고 내려와 노인 두 명을 화장실이 있는 공공도서관 쪽으로 안내했다. 클레르가 손을 들자 그도 알아보고 입 모양으로 열두 시라고 했다.

그녀는 손가락 두 개를 세워 대답했다. 두 시. 두 사람의 약속은 바닷가 식당의 늦은 점심이었다.

르블레두 문에 붙은 종이는 클레르가 어젯밤 고친 것과 달랐다. 큰 제목 아래의 빈 곳이 그대로였다. 그녀는 가방에서 자기 것을 꺼냈다. 주인은 바꿔 붙여도 된다고 했지만, 지금 계산대에 선 손님부터 보내 달라고 했다.

"검사 받으려면 아직도 엿새라면서요."

손님이 거스름돈을 기다리며 말했다. 클레르는 밀렸던 일부 검사에 관한 지난달 자료라고 설명했다. 손님은 자기 아내의 검사 이름을 물었다. 그녀는 예약한 진료실에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그가 나간 뒤 종이를 갈아 붙였다. 테이프 밑에 예전 종이의 모서리가 남았다.

마르타는 계산대 뒤에서 빵을 봉투에 나눠 담고 있었다. 갈색 봉투에는 값을 썼고 흰 봉투에는 아무것도 쓰지 않았다.

"흰 건 뭐야?"

"어제 남은 거요. 오늘 것도 섞여 있어요. 모양 안 나온 것."

클레르가 하나 집으려 하자 마르타가 손목을 가볍게 막았다.

"먼저 수 세고."

가게 주인이 배달료를 더 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사이, 두 여자가 문으로 들어왔다. 한 사람은 새벽전선의 표식을 달고 있었고 다른 사람은 교통 노동조합 조끼를 입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봉투를 가리켰다. 주문한 빵의 수가 맞지 않았다. 마르타는 계산대 아래의 쪽지를 꺼내 각각 보여 주었다.

"여기까지가 주문이에요. 남은 건 먼저 온 순서로 안 줄 거예요.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주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두 여자는 자기 주문만 들고 나갔다. 마르타는 흰 봉투를 입구의 작은 탁자에 올렸다. 클레르는 봉투를 벌리는 일을 도왔다.

"네가 여기서 다 해?"

"사장님이 주는 거예요. 저는 이름표 만드는 사람."

그녀는 밀과 달걀이 들어 있다는 쪽지를 탁자 끝에 붙였다. 구호가 들려오자 바깥에 있던 몇 사람이 소리가 나는 쪽을 보았지만 줄을 떠나지는 않았다. 한 남자는 일하러 가는 길이라고 했다. 마르타는 그에게도 같은 봉투를 주었다.

루시앙은 열두 시에 왔다. 클레르는 먼저 시계를 봤고, 그가 그 시선을 보고 웃었다. 정말로 회의를 나왔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가방을 받아 들었다.

"두 시까지 갈 수 있어."

"알아. 나도 표 봤어."

마르타가 둘 사이에 작은 봉투를 들이밀었다. 레몬 크림을 넣은 과자가 두 개 있었다.

"수요일에 주방 써 봤어요. 치우는 데 굽는 것보다 오래 걸렸고."

클레르는 하나를 먹었다. 지난번보다 바닥이 덜 젖어 있었다. 마르타는 그 말을 듣고 연습장을 꺼내려다 손에 밀가루가 묻은 것을 보고 그만두었다.

"맛있다는 말도 해줘야지." 루시앙이 말했다.

"맛있어."

"이제 시켜서 하는 말이 됐잖아요."

마르타가 웃었다. 두 사람은 돌아오는 길에 빈 통을 가져다주겠다고 했다.

* * *

바다는 식당 유리창 너머로 보였다. 클레르는 처음에 바깥 탁자에 앉겠다고 우겼다가 메뉴판을 놓치고 안으로 들어왔다. 루시앙이 주워 온 메뉴판 끝이 젖어 있었다.

"이것까지 계산하면 안 돼요." 그가 종업원에게 말했다.

종업원은 이미 밑에 비닐을 깔고 있었다. 클레르는 웃음을 참으려고 물을 마셨다. 루시앙이 그녀의 머리카락에서 작은 해초를

떼어냈다. 바람 때문에 앞이 안 보인다고 하더니 정확히 하나를 집었다.

주문을 마친 뒤 클레르는 미레유의 이야기를 했다. 루시앙은 명단을 고쳤다는 답만 받았다고 했다. 상담에서도 빠지게 된 것은 몰랐다.

"그 여자분이 따로 만나준대."

"그럼 다행이네."

"그분이 안 해주면?"

그는 물잔을 내려놓았다.

"가서 물어볼게. 내가 이름 빼 달라고 했을 때는 그런 얘기 없었어."

클레르는 그가 휴대전화를 꺼내는 것을 보고 손등을 눌렀다.

"지금 하라는 건 아니야."

그는 전화기를 뒤집어 놓았다. 음식이 나왔고, 두 사람은 접시 가운데의 조개를 서로에게 미뤘다. 클레르가 껍데기를 잘 벌리지 못하자 루시앙이 자기 것과 바꾸었다. 그런 뒤 시험 공부 이야기를 꺼냈다. 모르는 문제가 나온다며 노트를 가져올까 하다가 오늘은 그만두었다고 했다.

"가져왔으면 내가 먼저 풀었을걸."

"당신은 규정에 없는 답을 써."

"대부분 규정이 잘못된 거지."

그는 웃었다. 클레르는 그 얼굴이 좋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음식이 식어서 다시 먹기 시작했다.

돌아오는 기차에서 그는 그녀의 무릎에 얹힌 손을 잡고 잠들었다. 클레르는 마르타에게 바다 사진을 보냈다. 답은 식당 영수증을 보여 달라는 것이었다. 디저트 가격을 알고 싶다고 했다. 클레르는 구겨진 종이를 펴서 찍었다. 루시앙이 잠결에 그녀의 손을 놓아주었다가, 전송이 끝나자 다시 잡았다.

* * *

3월 19일 월요일

가브리엘은 금요일까지 들어오기로 한 보완 자료를 월요일 오전에도 받지 못했다. 열세 번째 센터의 항목이 비어 있었다. 지난 화요일 첫 보고를 받았을 때 그가 돌려보낸 이유도 그것이었다. 전체 접수 건수와 전환 일정은 있었지만, 아직 대조하지 않은 기록을 어느 센터가 얼마만큼 갖고 있는지 없었다.

여자 법률관이 운영과에서 내려온 안내문을 가져왔다.

"센터에는 이게 갔습니다."

첫 장에 '법률검토 적합'이라고 적혀 있었다. 가브리엘은 뒷장을 넘겼다. 자신이 붙였던 조건은 부서용 붙임에만 있었다. 센터로 보낸 짧은 안내에는 완료 전 표시도, 대조 담당자의 확인도 없었다.

"원문을 같이 보내라고 했는데."

"수신함에 원문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 안내만 다시 전달받은 곳도 있고요."

그녀는 확인한 센터 세 곳을 손가락으로 짚었다. 가브리엘은 운영과장을 불렀다.

운영과장은 새 화면에서 기록을 찾는 시간이 줄었다는 수치를 보여주었다. 지난해 십일월부터 시험 운영한 센터들은 되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달 추가 전환을 멈추면 교대 인력을 다시 두 시스템에 나눠야 했다.

"다 되었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말했다. "법률상 진행할 수 있다는 뜻으로 쓴 겁니다."

"진행할 조건이 있다는 뜻입니다."

가브리엘은 안내문에 줄을 그었다. 법률관은 정정 공문을 쓰기 시작했다.

"남은 대조가 끝날 때까지 새 센터 전환은 보류할까요?"

그녀가 물었다. 운영과장이 가브리엘을 보았다. 가브리엘은 새 화면을 배우느라 전화 응대 인원을 빼야 한다던 센터장의 말을 기억했다. 업무를 멈췄다가 다시 시작하는 데에도 사람이 들었다.

"이미 진행 중인 것에 대해서는 조건부 검토를 유지하겠습니다. 누락 목록부터 금요일까지 받겠습니다. 완료된 것으로 표시하지 말고요."

그가 말했다. 운영과장은 그 의견을 국장에게 올리겠다고 메모했다. 오후에 온 결재본에는 전환을 계속한다는 국장의 결정이 있었다.

법률관은 정정문을 인쇄해 왔다. 가브리엘은 수신처에 감사 담당이 있는지 확인하고 서명했다. 그녀가 종이를 가져간 뒤에도 운영과장의 보고서는 책상에 남아 있었다. 그는 접수 대기시간이 줄었다는 부분에 표시해 두었다. 오후 회의에서 그 성과도 말할 생각이었다.

* * *

3월 24일 토요일, 저녁

루시앙이 가져온 다음 날 안내에는 시청이 제안한 협의 일정이 적혀 있었다. 임대료와 교통 문제의 담당 부서가 달랐고, 새벽전선은 각 모임에서 한 사람씩 보낼 명단을 모으고 있었다. 미레유의 이름은 없었다. 개인 상담 날짜를 잡았다는 답도 함께 왔다.

클레르는 그 답을 읽고 휴대전화를 돌려주었다.

"확인했네."

"했지."

"고마워."

그는 소파에서 그녀 옆으로 미끄러져 앉았다. 내일 아홉 시 여행사 전화를 받을 때 꼭 물어볼 항목을 적어놓자고 했다. 둘은 탁자 위에 노트를 펼쳤다. 여행 날짜를 바꾸는 비용, 기차표 환불, 방에 창문이 있는지.

"창문 없는 방도 팔아?"

"사진에는 안 보였어."

클레르는 마지막 줄에 '창문'이라고 크게 적었다. 루시앙은 열 시까지 광장에 가야 했으므로 상담은 아홉 시 반에 끝내기로 했다. 그는 알람을 맞춘 뒤 전화기를 치웠다. 클레르는 '침대가 둘이면 붙일 수 있는지'도 적었다. 루시앙이 그것까지 물어야 하냐고 하자 그녀는 펜을 건넸다.

"그럼 네가 물어봐."

# 제10장 같은 광장

3월 25일 일요일

상담원은 창문이 있느냐는 질문에 잠깐 대답을 멈췄다.

"외부 창문 말씀하시는 거죠?"

클레르가 루시앙을 보았다. 그가 소리 없이 웃기 시작했다.

"네. 열리는 걸로요."

상담원이 객실 안내를 다시 찾는 동안 두 사람은 같은 수화기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바다 쪽 방은 더 비쌌다. 클레르는 어차피 낮에는 밖에 있을 거라고 했고, 루시앙은 비가 오면 방에 있을 수도 있다고 했다. 결국 작은 안뜰 쪽 방의 견적을 받았다. 예약은 아직 하지 않았다.

아홉 시 이십팔 분에 통화가 끝났다. 루시앙은 적어둔 금액을 냉장고에 붙였다. 클레르는 숫자 밑에 창문 그림을 그렸다.

"문 열고 나가면 되잖아."

그가 말했다.

"돈 주고 방을 빌리는데 쫓겨나려고?"

그는 코트를 입으면서도 웃었다. 현관에서 그녀에게 입을 맞추고 십 분 뒤에 따라오라고 했다. 클레르는 컵을 씻고 나갔다. 부엌 창문을 조금 열어두었다.

광장에 가까워질수록 걷는 속도가 느려졌다. 마르타와 만나기로 한 시계탑은 사람들 어깨 위로만 보였다. 클레르는 조금 먼저 도착했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옆 골목으로 물러섰다. 아이의 장갑을 떨어뜨린 남자가 사람들 발밑을 찾고 있었다. 그녀도 함께 보았다. 장갑은 바로 옆 신문 가판대의 받침에 걸려 있었다.

"오늘은 아이 데리고 오기 좀 그러네요."

남자는 장갑을 털면서 말했다. 클레르가 돌아갈 거냐고 묻자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앞에서 말할 사람이 제 아내예요. 한 시간만 있다가요."

그가 아이를 안아 올렸다. 아이는 어머니를 찾는 대신 클레르가 든 빵 봉투를 보았다. 그녀는 마르타가 오면 물어보자고 했다.

마르타는 자기 봉투를 따로 들고 왔다.

"어제 제가 못생긴 것만 챙겨 놨어요. 그쪽 건 돈 주고 샀어요?"

"네가 안 올 수도 있잖아."

"제가 빵까지 배신해요?"

두 사람은 웃으며 그늘을 찾아 걸었다. 마르타는 엘리즈가 자기 발표 자료에서 과자 이름을 빼자고 했다고 불평했다. 학술 발표에 가게 상품명처럼 들리는 말을 넣지 말자는 것이었다.

"맛을 기억하게 해야 하는데."

"먼저 점수를 받아야지."

"둘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마르타는 클레르의 봉투를 열어 안을 들여다봤다. 더 비싼 빵이라는 것을 알아보고 자기 것과 하나 바꾸었다.

세입자 모임의 자리는 연단에서 조금 떨어져 있었다. 몇 사람은 법안을 바꾸자는 피켓을 들었고, 옆의 남자는 이미 집을 비워야 하니 법안이 언제 바뀌든 상관없다고 했다. 그는 클레르에게 이사할 때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는 방법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녀는 모른다고 했다. 상담을 해주었던 여자가 늦게 와서 그의 종이를 받아보았다.

"오늘 연단에서 제 얘기 해줘요?" 남자가 물었다.

"전체 갱신 문제는 말할 거예요."

"저는 갱신이 아니고 나가는 돈인데."

여자는 그를 데리고 탁자 옆으로 갔다. 마르타가 남은 빵을 놓아도 되느냐고 물었다.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종이 밑에 눌리지 않도록 자리를 비웠다.

낮이 되자 줄이 생겼다. 마르타는 주문받은 적도 없는데 왜 다시 배식하느냐며 투덜거렸지만, 봉투 속을 보고 사람 수를 셌다.

클레르는 손을 씻을 물을 얻어 왔다. 한 남자가 새벽전선 회원이 아니어도 받아도 되느냐고 물었다.

"빵 좋아하면 돼요."

마르타가 말했다. 남자는 두 개를 집었다가 하나를 돌려놓았다.

루시앙은 식사 시간이 지나서야 왔다. 그는 마르타에게 남은 것을 달라고 하지 않았다. 가방에서 눌린 사과를 꺼냈다. 클레르가 자기 빵을 반으로 잘라 주자 사과도 반으로 갈랐다. 레아가 멀리서 그를 불렀다.

"좀 먹고요."

루시앙이 대답했다. 레아는 알겠다는 표시를 하고 다른 사람을 찾았다. 그는 서둘러 삼키지 않았다. 클레르는 그가 앉아 있는 동안 바지에 붙은 테이프를 떼어주었다.

* * *

오후가 되자 연단 옆에서 다툼이 났다. 클레르는 처음에 음향이 고장 난 줄 알았다. 마이크가 꺼졌고, 세 사람이 서로 종이를 보여주고 있었다. 교통 노조의 여자가 내려와 자기 사람들에게 말했다.

"시간을 줄이겠대요. 늦어졌다고."

"우리 때문에 늦어졌어요?"

"그건 아닌데."

클레르는 무대 뒤에서 에티엔을 보았다. 그는 손목시계를 가리키며 누군가에게 짧게 말했다. 통역을 맡은 사람이 의자를 앞으로 당겼다. 다른 단체의 발언 두 개를 한 순서로 합치는 모양이었다. 스피커에서 잠시 뒤 같은 구호가 나왔다. 여기저기서 따라 외쳤지만 세입자 상담 탁자의 남자는 계속 자기 서류만 내려다보았다.

레아가 루시앙에게 접힌 종이를 건넸다. 그는 마이크 옆에 가서 바뀐 순서를 전했다. 클레르는 그가 사람을 다그치지 않는 것을 보았다. 말을 마치려던 노인에게 물을 가져다주고 한 발 물러났다. 노인은 한 문장을 더 읽은 뒤 내려왔다.

마르타가 클레르의 옆구리를 찔렀다.

"저 사람, 결혼식 때도 순서 바꿔요?"

"네가 축사 길게 하면."

"아직 시키지도 않았잖아요."

"지금 했어."

마르타는 웃다가 입을 다물었다. 그러고는 무슨 말을 할지 미리 말하지 않을 거라고 했다. 클레르는 준비만 길고 당일에는 떨어서 아무 말도 못 할 거라고 놀렸다. 마르타는 절대 아니라며 봉투를 접었다.

저녁에 셋이 광장을 빠져나올 때는 빈 종이컵이 신발에 밟혔다. 루시앙이 두 개를 주웠고 마르타가 그에게 쓰레기봉투를 벌려주었다. 누군가는 오늘 나온 사람의 수를 말했고, 다른 사람은 그보다 훨씬 많았다고 했다. 클레르는 어느 쪽도 헤아릴 수 없었다. 하루 종일 만나지 못한 친구가 광장 반대쪽에 있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

"너희는 오전에 뭘 봤어?" 루시앙이 물었다.

클레르는 장갑을 잃어버린 아이와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아야 하는 사람을 말했다. 마르타는 빵 두 개를 집었다가 하나를 내려놓은 남자 이야기를 했고, 루시앙은 마지막 발언을 맡았던 노인의 이름을 가르쳐주었다. 그가 어떤 노선을 이십 년 동안 운전했는지도 알았다.

전차에 올라타자 자리가 하나 났다. 마르타가 앉았고, 두 사람은 그녀 앞에 섰다. 그녀는 자기 무릎에 친구들의 가방까지 올려놓았다. 클레르는 손잡이를 잡은 루시앙의 팔에 기댔다.

"그 남자 서류는 어떻게 됐대?"

그녀가 물었다.

"어느 남자?"

"보증금."

"내가 알아볼게."

그는 이번에도 바로 전화기를 꺼내지는 않았다. 전차가 모퉁이를 돌았다. 마르타가 떨어지려는 가방을 붙잡으면서 두 사람을 올려다봤다.

"축사에 쓸 건 지금부터 조심해서 말해요."

# 제11장 고쳐 쓴 말

3월 28일 수요일, 저녁

새로 인쇄한 종이에는 지난달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었다. 루시앙은 처음 받은 한 장을 불빛 아래에 들고 읽었다. 일부 검사가 지연되었다는 설명도 있었다. 글자가 작아지긴 했지만 뜻이 달라지지는 않았다.

그는 사진을 찍어 클레르에게 보냈다. 레아가 상자 뚜껑을 접으면서 물었다.

"이 정도면 맞아요?"

"맞아요. 병원에서 지금 접수 못 한다는 말처럼 안 읽혀요."

"다행이다. 지난번 건 전화가 좀 왔어요."

그녀는 어느 동네의 재고가 남았는지 적힌 종이를 같이 주었다. 회수할 사람이 정해진 곳과 아직 정해지지 않은 곳이 나뉘어 있었다. 루시앙은 토요일에 자기가 두 곳을 다녀오겠다고 했다. 레아는 그의 이름을 쓰고, 옆 사람에게 인쇄 파일을 지우지 말라고 말했다. 수정 전후 것을 둘 다 남겨 두자는 것이었다.

루시앙은 클레르의 답을 기다렸다. 한동안 없다가 짧게 왔다.

잘 바뀌었네. 고마워.

그는 그 문장을 두 번 읽고 전화기를 넣었다.

회의는 일곱 시에 시작했지만 자리는 그 뒤에도 계속 모자랐다. 교통 노조에서 온 여자가 자기 의자를 찾지 못해 창틀에 걸터앉았다. 루시앙이 접이식 의자를 구해 왔다. 여자는 지난 일요일 연단 순서가 줄어든 것을 먼저 말하겠다고 했다.

에티엔은 말을 끝까지 들었다. 음향 대여 시간이 정해져 있었고, 다른 쪽도 줄였다고 답했다. 다음에는 시간을 미리 확정하겠다고

했다. 여자가 요구한 교대 인력 충원 문구는 공동 요구안에 아직 들어가 있지 않았다.

"우리 조합에서 그 부분을 빼고 서명하지는 못해요."

"아예 빠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은 모두가 말할 수 있는 항목부터 묶는 거예요."

에티엔이 초안을 돌렸다. 루시앙 앞에는 날짜가 다른 문서 두 장이 놓였다. 최신 파일의 제목은 공동행동 요구였고, 맨 아래에 참여 단체 이름이 이미 인쇄되어 있었다. 교통 노조 이름 옆에만 연필로 확인 필요라고 적혀 있었다.

여자는 자기가 최종 문구에 동의할 권한은 없다고 했다. 지부 운영위원회가 목요일에 열린다고 했다. 루시앙은 그 말을 여백에 적었다. 처음에는 인쇄를 하루 미루자고 말하려 했다.

레아가 출입문 쪽에서 그를 불렀다. 지방에서 온 두 사람이 막차를 타야 했다. 오늘 가져갈 안내를 받을 수 있느냐고 했다. 루시앙은 공동 요구안과 시간·장소만 있는 참가 안내를 나란히 놓았다.

"이건 먼저 가져가도 되죠?"

그가 참가 안내를 가리켰다. 레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요구안은 아직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안내를 받고 갔다. 레아는 잘 구분해 줬다고 했다.

회의가 끝날 무렵 에티엔이 루시앙에게 정리본을 보내 달라고 했다. 배포 담당자들이 각자 받은 종이를 합쳐 쓰고 있어 혼선이 난다고 했다.

"당신이 한 번씩 읽어주면 좋겠어요. 현장에서도 말이 잘 통하니까."

루시앙은 다른 사람들이 코트를 입는 동안 앉아서 파일을 정리했다. 수정된 병원 문구, 집결 시간, 화장실 위치, 단체별 연락 담당. 교통 노조 이름 옆의 확인 필요가 눈에 걸렸다. 연필 표시를 파일의 각주로 옮기자 문서가 두 쪽으로 늘어났다. 그는 제목 아래에 작은 글씨로 '협의 중'을 넣었다.

레아는 내일 다시 확인하면 된다고 했다. 지방 담당자가 늦게라도 보내 달라며 전화했다. 루시앙은 파일을 첨부한 뒤 잠깐 멈췄다. 참가 안내만 보내는 방법도 있었다. 막차를 타기 전에는 그렇게 했었다.

그는 공동 요구안까지 붙여 보냈다. 내일 확인 결과를 보내면 함께 바꿀 수 있었다. 오늘 밤 각 지역이 서로 다른 문서를 만들게 두는 것보다 나았다.

집에 가는 길에 교통 노조의 여자가 보낸 메시지가 왔다. 자신은 그 문서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말이었다. 그는 협의 중이라는 표시가 있다고 답했다. 여자는 자기 단체 이름이 본문에 있으면 사람들이 그 표시를 읽지 않는다고 했다.

루시앙은 전차에서 내려 서서 전화했다. 상대는 받지 않았다. 그는 다음 회의에서 반드시 고치겠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그날 밤 전송한 파일을 취소해 달라는 연락은 따로 하지 않았다.

* * *

4월 2일 월요일

클레르는 냉장고에 붙은 여행 견적 위에 새 안내지가 덮인 것을 보고 떼어냈다. 자석이 부족해서 그렇게 해놓은 모양이었다. 식탁에는 루시앙의 시험 책이 펴져 있었다. 읽던 페이지 옆에 조직 회의에서 쓴 종이가 끼어 있었다.

“잘 바뀌었더라. 가게에도 새것 붙였던데.”

그녀가 말했다. 루시앙은 손을 씻으며 토요일에 다녀왔다고 했다. 나머지 동네는 다른 사람이 맡았다고 했다.

“이번에는 다 받았는지 답도 받았어.”

클레르는 고개를 끄덕였다. 루시앙은 수건을 걸다가 돌아봤다.

“보증금 물어봤던 사람도 연락 왔어.”

“광장에서?”

“상담해 준 분이 같이 집주인한테 전화했대. 나가기 전에 일부 받기로 했는데 오늘 들어왔대.”

“새집은 구했대?”

"계약금 낼 만큼은 됐대. 나머지는 아직이고."

클레르는 잘됐다고 했다. 그가 그녀의 뒤에서 냄비를 들여다보았다. 뚜껑에서 떨어진 물에 손등을 데자 크게 놀라는 시늉을 했다. 그녀는 웃으며 팔꿈치로 그를 밀었다.

밥을 먹다가 클레르는 안내지에 적힌 단체 이름을 물었다. 교통 노조의 여자가 여전히 자기 요구를 말할 기회가 없다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그래서 다음에는 따로 발언 시간을 뺐어."

"문구에는 들어갔고?"

"그건 아직. 다른 조합하고 안 맞는 데가 있대."

클레르는 종이를 뒤집었다. '우리는 합의했다'는 문장 아래에 단체들이 적혀 있었다. 그는 제목 아래의 협의 중이라는 말을 가리켰다.

"나는 그 사람들 이름부터 빼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싶은데."

"빠졌다고 알면 또 왜 갈라졌냐고 전화가 와. 금방 넣을 수 있는 걸."

"아직 넣을 수 있는지 모르는 거잖아."

루시앙은 대답 대신 자기 접시를 앞으로 당겼다. 클레르는 그가 불쾌해진 것을 알았다. 그렇다고 질문을 취소하고 싶지는 않았다.

"여러 사람이 같이 하는 일이야." 그가 말했다. "내가 문장을 다 결정하는 건 아니고."

"알아. 그럼 누구한테 말하면 돼?"

그는 다음 회의에서 다시 묻겠다고 했다. 이번에는 웃지 않았다. 클레르는 양파를 남긴 그의 접시를 가져다가 자기 그릇에 옮겼다. 그는 원래 생양파를 싫어했다. 익힌 것까지 남기는 날은 대체로 밥 먹는 데 마음이 가 있지 않을 때였다.

잠들기 전에는 시험 문제를 같이 보았다. 보기 네 개가 모두 비슷해서 그녀가 큰 소리로 읽자 그가 억양을 바꾸지 말라고 했다. 클레르는 더 과장해서 읽었다. 그는 결국 웃으며 책을 빼앗았다.

내일 집결이 끝나면 문구점 앞에서 마르타와 만나기로 했다. 클레르는 그에게 시간을 다시 확인했다. 그는 아홉 시 전에는 갈 수 있다고 했다. 이번에는 시험 책 뒤의 빈칸에 직접 적었다.

# 제12장 끝나고 만나는 자리

4월 3일 화요일

얀은 만나자마자 루시앙의 무전기를 자기 손으로 켜 보았다. 지난번에는 건전지 접촉이 나빠 중간에 끊겼다고 했다. 목소리가 잘 들리자 돌려주고 자기 이름을 말했다.

"알아요. 지난주에도 봤잖아요."

루시앙이 웃었다.

"사람이 많아서. 난 이름을 잘 못 외워요."

얀은 낡은 수첩에 루시앙의 이름을 적었다. 옆에는 남쪽 안내라고 썼다. 루시앙은 자기가 오늘 전체를 맡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얀은 안다며 자기도 회랑 쪽을 오가며 보는 사람일 뿐이라고 했다. 막힌 길을 경찰 대신 열 수는 없지만 사람들에게 확인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는 할 수 있었다.

레아가 셋을 불렀다. 오늘은 행진 없이 광장에 머무는 일정이었다. 단체마다 귀가 시간이 달라 끝났다고 한꺼번에 움직이지 않도록 안내해야 했다. 루시앙은 휴대전화로 전차 운행 상황을 확인했다. 평소 타던 정류장 두 곳이 임시로 바뀌었다.

"길을 모르면 물어봐요." 레아가 말했다. "없는 길 만들어 보내지 말고."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일은 직장에서도 매일 했다. 배차표가 바뀌면 먼저 승강장 안내부터 바꿔야 했다. 오래 기다린 사람에게 사정부터 길게 설명하면 화만 더 났다.

여섯 시가 지나자 사람들이 들어왔다. 한 여자가 유모차를 앞에 두고 멈춰 있었다. 루시앙이 길을 비켜 달라고 말하자 앞의 남자가 자기도 움직이고 싶다고 답했다. 조금 뒤 얀의 목소리가 무전기에서 나왔다. 자기가 서 있는 쪽에서 귀가하는 사람과 들어오는 사람이

엇갈려 멈췄다고 했다. 다른 쪽 상황을 확인할 때까지 새로 오는 사람들에게 기다려 달라고 해 달라는 부탁이었다.

루시앙은 바로 옆 안내원에게 그 말을 전했다. 레아가 확인했다고 답했다. 몇 분 뒤 그녀는 집결 안내를 잠깐 늦추고, 나가는 사람들이 먼저 지나가게 하라고 말했다. 루시앙은 기다리는 여자에게 이유를 설명했다. 여자는 짜증을 내면서도 유모차를 당겨 자리를 만들었다.

길이 풀리자 여자는 유모차를 밀고 빠져나왔다. 건너편에 닿아서야 루시앙을 향해 손을 들었다. 유모차 안의 아이도 따라서 손을 흔들었다. 그는 무전기를 들지 않은 손으로 답했다.

얀은 잠시 뒤 그 앞을 지나갔다. 소매가 젖어 있었다. 바깥 수도에서 넘어진 물통을 세우고 왔다고 했다.

"이런 건 그냥 알려도 되는 거죠?" 옆 안내원이 물었다. "위에서 말이 와야 하는 줄 알았어요."

"길 막힌 건 바로 알려줘요. 전체 일정 바꾸는 거야 레아한테 물어야겠지만."

안내원은 알겠다며 사람들 쪽으로 돌아섰다.

일곱 시 반에 교통 노조의 여자가 마이크를 잡았다. 자기들 요구가 아직 공동 문구에 다 들어간 것은 아니라고 먼저 말했다. 루시앙은 뒤쪽에서 들었다. 에티엔은 말을 끊지 않았다. 여자가 내려오자 물병을 주고 다른 단체 사람을 소개했다.

레아는 루시앙에게 다음 주에도 남쪽을 맡을 수 있는지 물었다.

"사람들이 당신한테 물으면 한 번에 알아들어요."

그는 시험 때문에 늦게까지는 어렵다고 했다. 레아는 끝나는 시간을 맞춰보겠다고 했다. 루시앙은 다음 일정을 받아 가방에 넣었다. 집결이 끝나기 전 마지막 안내를 하고, 후임이 도착한 것을 확인한 뒤 무전기를 돌려주었다.

* * *

마르타는 광장 북서쪽 문구점 앞에서 기다렸다. 가게는 문을 닫았지만 차양 아래는 환했다. 그녀가 두 사람이 앉을 만큼 가방을 옮겼다. 클레르는 신발 뒤축을 누르고 앉았다.

"얼마나 기다렸어?"

"빵 식을 만큼."

"그건 금방이잖아."

마르타가 봉투를 열어 주었다. 안쪽에 김이 조금 남아 있었다. 루시앙은 전화기에 대답하고 나서 앉았다. 남쪽 정리를 끝낸 사람들도 이제 간다고 했다. 마르타는 그 말을 듣고 자기 몫을 먼저 집었다.

"사람들하고 같이 안 걸어?" 클레르가 물었다.

"오늘 실험 세 번 했어요. 여기서도 줄 서긴 싫어."

광장에는 촛불을 끄는 사람들이 있었다. 초를 종이컵에서 빼서 따로 담는 사람 옆에서 아이 둘이 남은 과자를 나눠 먹었다. 루시앙이 클레르의 어깨를 당겨 자기 쪽에 기대게 했다. 그녀는 편하게 기대려고 몸을 돌렸다가 빵 부스러기를 그의 무릎에 흘렸다.

마르타가 연습장에 끼워 온 종이를 보여 주었다. 엘리즈와 짝을 지어 발표할 과제였다. 열흘 뒤 금요일이라고 했다. 라미레에서 만든 크림의 보관 조건을 수업 자료로 써도 될지 조교에게 물어놓았단다.

"가게 먼저 차릴 줄 알았는데." 루시앙이 말했다.

"그 전에 졸업시켜 줘야죠."

그는 자기 시험도 곧이라고 했다. 마르타가 시험 책을 얼마나 읽었느냐고 물었다. 루시앙은 먹는 동안 그런 얘기를 꼭 해야 하느냐고 했다. 클레르가 웃자 그도 웃었다.

마르타가 접시를 사고 싶다고 했다. 새것을 사는 것은 아니었다. 문을 닫는 카페에서 팔고 있는데, 가게부터 구하라는 한나의 말 때문에 아직 대답을 못 했다고 했다.

"놓을 곳은 있어?"

"엄마가 그 말부터 했어요."

"그럼 없는 거네."

"열두 장인데."

루시앙은 자기 시험 책을 좀 치우면 책장 한 칸은 빌려줄 수 있다고 했다. 클레르가 쳐다보자 곧 덧붙였다.

"집주인 동의를 받고."

마르타는 휴대전화를 꺼내 판매자에게 크기부터 물었다. 답을 받고 클레르 쪽으로 화면을 기울였다. 커다란 디저트 접시였다. 그녀가 만들려는 타르트를 놓으면 너무 비어 보일 것 같았다. 한참 사진을 확대해 보더니 사지 않겠다고 보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어." 클레르가 말했다.

"알아요. 제가 안 산 거예요."

마르타는 휴대전화를 넣고 남은 빵을 세 사람에게 다시 나눴다.

돌아갈 때는 문구점 옆 넓은 길을 택했다. 마르타가 발목을 한 번 돌린 뒤 걸었다. 회랑으로 가면 르블레두 쪽에 더 빨리 닿았지만, 오늘은 셋 다 전차 정류장으로 갈 참이었다. 루시앙이 안내판을 보고 운행 중인 노선을 확인했다. 멀리서 차가 오는 불빛이 보였다.

"다음에도 여기서 만나면 찾기 쉽겠다."

클레르가 말했다.

마르타는 차양 아래의 불을 돌아봤다.

"저녁 먹고 오는 날은 빵 없어요."

# 제13장 안으로 가지 않기

4월 5일 목요일

내무부 회의실에서는 지난 집회의 사진을 화면에 띄워놓고 있었다. 가브리엘은 사진 밑의 날짜부터 확인했다. 발표자가 서로 다른 날의 통행 제한 요청을 한 묶음으로 넘기고 있었다.

"이건 삼 일이 아닙니다."

그가 말하자 발표자가 돌아봤다.

"예. 지난달 사진도 있습니다. 비슷한 구역이라서."

가브리엘은 날짜를 각각 쓰라고 했다. 상가의 신고와 시청의 일정표가 맞지 않았다. 어떤 가게는 문을 닫아서 손해를 봤다고 했고, 다른 가게는 집회가 끝난 뒤에도 철거하지 않은 공사 울타리를 문제 삼고 있었다. 그는 두 신고를 분리했다.

현장 담당자는 매번 길을 바꿔주다 보면 나중에 어디를 통제하고 있는지 안내판도 따라가지 못한다고 했다. 사람들이 들어오기 전에 통행 범위를 정해달라는 요청이었다. 가브리엘은 사전에 알리는 범위와 현장에서 바꿀 수밖에 없는 범위를 나눠 적었다. 바뀐 제한은 현장 지휘자가 이유와 시각을 남겨야 한다고 했다.

"허락을 다시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뜻입니까?"

담당자가 물었다.

"기존 훈령의 긴급 변경 조항은 그대로입니다. 급한 위험이면 먼저 조치하고 보고해야죠. 기다리는 동안의 책임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현장 담당자가 종이를 넘기다 멈췄다.

"먼저 바꿨는데 나중에 급한 위험이 아니었다고 판단하면요?"

"그때 무엇을 보고 바꿨는지 남겨야 합니다."

"남겼는데도 판단이 다르면요?"

가브리엘은 그가 펜을 들고 답을 기다리는 것을 보았다. 기준을 더 써주겠다고 했다. 회의는 예정보다 길어졌고, 당장 필요한 안내문안부터 나갔다. 그는 세부 검토를 위한 다음 회의 날짜를 잡았다.

자리에서 일어설 때 부국장이 그의 팔을 잡았다.

"법률 쪽에서 문제없다고 정리된 거죠?"

"지금 적은 조건을 붙이면요."

가브리엘은 나가려다 돌아와 문안 마지막 장을 다시 확인했다. 현장 위험에 따른 변경과 보고가 들어 있었다. 그는 그 부분에 표시하고 부국장에게 돌려주었다.

* * *

4월 6일 금요일, 오후

클레르는 휴무를 바꾼 대가로 다음 주 목요일 근무를 맡았다. 집회에 가려고 바꾼 것은 아니었다. 아침에 결혼 예복을 보러 가기로 했는데 가게에서 예약을 다시 미뤘다. 마르타는 오후 수업이 취소되어 나왔다. 둘은 시내에 나온 김에 잠깐 광장에 들렀다가 라미레에서 차를 마시기로 했다.

처음에는 지난번보다 걷기 쉬웠다. 발언이 시작되기 전이라 사람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클레르는 루시앙에게 도착했다고 보냈다. 그는 남쪽에 있으며 잠깐 뒤에 나오겠다고 했다.

마르타는 라미레에서 주방을 빌리는 시간이 한 시간 늘었다고 했다. 대신 문을 닫은 뒤 바닥을 닦고 가야 했다. 청소비를 내는 것보다 낫다며, 자기가 잘 닦는다는 것을 주인에게 보여준 덕분이라고 했다.

"너 제과점 차리면 바닥만 반짝이겠다."

"과자는 전날 만들고 낮에는 바닥 닦죠."

클레르가 웃을 때 앞쪽에서 사람들이 돌아봤다. 무언가 단단한 것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그녀는 무엇이 날아왔는지 보지 못했다. 피켓이 위아래로 흔들렸고, 가까이 있는 남자가 뒤로 가라고 말했다. 조금 전까지 남아 있던 틈이 금방 사라졌다.

마르타가 그녀의 팔을 잡았다. 두 사람은 걸음을 맞추려 했지만 앞사람이 갑자기 멈춰 서로 부딪혔다. 클레르는 마르타의 가방끈을 잡고 옆으로 비켰다. 골목 입구에 서 있던 안내원이 기다리라고 손을 들었다.

"나가려고요." 클레르가 말했다.

안내원은 뒤를 돌아봤다. 다른 사람들이 반대쪽에서 나오고 있었다. 그가 무전기에 대고 물었지만 답은 소음에 섞였다. 루시앙이 사람들 사이에서 나타났다. 그는 기다리라는 손을 내리게 하고 두 사람을 벽 쪽으로 데려갔다.

"여기 있지 말고 가게로 가. 내가 갈게."

"같이 가."

클레르가 말했다. 그가 고개를 돌렸다. 노인이 주저앉아 있었고 옆의 여자가 혼자 일으키려 하고 있었다. 루시앙은 잠깐만이라고 했다. 그는 다른 남자에게 도움을 청하고 노인의 팔을 받쳤다. 클레르는 그를 부르려다가 마르타의 손에 이끌려 골목을 빠져나왔다.

라미레까지 오는 동안 마르타는 말이 없었다. 가게 주인은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었지만 두 사람 모두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클레르는 루시앙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한 번 받았다가 금방 끊었다. 다친 사람을 앉힐 곳을 찾고 있다고 했다.

* * *

루시앙이 도착했을 때는 가게의 저녁 준비가 시작되어 있었다. 마르타는 세면대 앞에서 손을 씻었다. 물을 잠그고도 손을 내리지 않았다. 클레르는 종이 수건을 두 장 뽑아 주었다. 바깥에서 누가 먼저 소리를 냈는지, 사람들이 왜 갑자기 골목으로 밀려왔는지 묻지 않았다. 자신도 본 것이 너무 적었다.

루시앙은 가게 문 앞에서 기다렸다. 그가 마르타의 코트를 받으려 하자 그녀가 직접 입었다. 단추 하나를 엉뚱한 구멍에 끼웠다가 풀었다.

"다음에는 안으로 안 갈 거예요."

루시앙이 알겠다고 했다.

"같이 있다가 가자고 하면, 그냥 여기까지 나와요. 누가 부탁했다고 또 들어가지 말고."

"오늘은 사람들이 나가는 길을—"

그가 말을 멈췄다. 마르타는 코트 깃을 폈다.

"알아요. 그래서 기다렸잖아요."

클레르는 루시앙이 왜 돌아오지 못했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았다. 넘어질 뻔한 사람을 붙잡던 것도 보았다. 그래도 마르타 앞에서 그 얘기를 꺼내기는 싫었다.

"앞으로 빵집에서 끝나면 그쪽으로 갈게." 클레르가 말했다. "아니면 문구점 앞. 광장 안에는 들어가지 말고."

마르타가 고개를 끄덕였다. 루시앙도 같은 약속을 했다. 문구점 앞까지 가는 길도 막히면 서로 기다리지 않고 귀가하기로 했다.

밖으로 나가자 마르타가 다시 휴대전화를 꺼냈다. 엘리즈에게 늦는다고 보내야 한다고 했다. 둘은 아홉 시에 발표 자료를 맞추기로 했었다. 클레르가 오늘은 쉬라고 하자 그녀가 고개를 저었다.

"저 사람은 내 몫까지 하고 있을걸요."

루시앙이 택시를 잡으러 큰길로 갔다. 마르타는 엘리즈에게 바로 연락하고 전화를 귀에 댔다. 처음에는 미안하다고 했다. 조금 뒤에는 표를 세 번째 장으로 옮기지 말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클레르는 그녀의 가방을 들어 주고 통화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

* * *

그날 밤 루시앙은 현장 보고를 보냈다. 레아가 구역별로 무엇이 있었는지 적어 달라고 했다. 그는 넘어진 노인을 도왔고, 뒤늦게 온 구급 담당자에게 인계했다고 썼다. 친구들이 빠져나오던 골목의 안내원이 한동안 사람들을 세워두었던 것도 적었다.

전화가 왔다. 레아는 어느 안내원이었느냐고 물었다. 루시앙은 이름을 몰랐다. 레아는 반대쪽 흐름을 기다리던 것일 수 있으니, 확인 전에는 출구를 막았다고 쓰지 말라고 했다.

"막았다고 쓴 건 아니에요. 나가겠다는 사람을 세워뒀다고요."

"그 차이가 밖에서는 안 읽혀요. 일단 확인 가능한 것부터."

그는 그 줄 뒤에 확인 필요라고 붙였다. 레아는 공개할 요약에서는 빼겠다고 했다. 개별 보고에는 남겨두자고 했다. 루시앙은 알겠다고 답했다. 자신이 사람들을 도와 나온 일은 그날의 짧은 성명에 들어갔다. 클레르는 텔레비전에서 그 성명을 보고 뒤를 돌아봤다.

"이게 다야?"

"조사할 게 남았대."

그녀는 더 묻지 않았다. 루시앙은 메시지 창을 다시 열었다. '안내 혼선도 확인하고 있죠?'라고 썼다가, 레아가 방금 그렇게 말했다는 생각이 들어 보내지 않았다. 시험 책을 펼쳤지만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았다. 클레르가 옆에 앉아 손등의 작은 상처에 연고를 발라주었다.

그는 손을 그대로 맡겼다. 그녀는 솜을 접으며 아까 길을 막았던 사람이 누구인지 물었다. 루시앙은 모른다고 했다.

# 제14장 기다리라는 말

4월 12일 목요일, 오전

도렐은 광장 통제 담당으로 다시 배정된 것을 보고 먼저 교대표를 찾았다. 지난 금요일에 다친 대원 두 명이 빠져 있었다. 그중 한 사람은 눈을 검사받고 있었다. 전날까지 현장에 나오겠다고 했지만, 도렐은 그의 이름을 넣지 않았다.

아홉 시에 도착한 처분은 신고된 도로 점유 행진을 금지하는 것이었다. 사유에는 지난 충돌과 응급 차량 통행 문제가 적혀 있었다. 광장 안 정적 집결은 별도로 접수된 일정에 남아 있었다. 도렐은 두 문서를 나란히 놓고 읽었다. 집결까지 모두 금지된 것으로 안내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현장에서 구분이 되겠습니까?"

그의 부관이 물었다.

"구분해서 보내야 구분하죠."

도렐은 행진 출발을 막는다는 문장과 일반 통행을 제한하는 문장을 따로 쓰게 했다. 통행 제한 구역은 시청 교통 담당에게도 보냈다. 오후 네 시 상급 지휘부에서 범위를 확정한 명령이 왔을 때, 현장의 안내가 모두 바뀌었는지까지는 보고받지 못했다. 그는 교대가 끝나면 확인하라고 했고 다음 보고를 받았다.

* * *

4월 12일 목요일, 오후

클레르는 점심시간에 마르타에게 전화를 걸었다. 행진 금지 소식이 병원 휴게실에서도 나오고 있었다. 루시앙은 걸어가는 행진을 하지 않고 광장에 머무를 거라고 했다. 클레르는 그 차이로 오늘 밤이 괜찮아지는지 알 수 없었다.

마르타는 실험실에서 나오는 중이었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목소리가 잘 들렸다.

"오늘 가게 가?"

"여섯 시 반부터요. 내일 발표라 바꾸려고 했는데 못 바꿨어요."

"그럼 끝나고 바로 들어가. 오늘은 거기 복잡할 것 같아."

마르타가 잠깐 대답하지 않았다. 뒤에서 누가 부르는 소리가 났다. 그녀가 상대에게 먼저 가라고 하고 다시 말했다.

"언니랑 오빠는요?"

"나는 근무 끝나고. 루시앙 만나서 먼저 저녁 먹으려고. 안쪽 말고 문구점 앞에 있을 거야."

"나도 끝나면 그리로 갈게요. 같이 전차 타요. 엘리즈가 자료는 일단 다 묶었대요."

클레르는 마르타에게 굳이 기다리지 말라고 했다. 마르타는 자기도 늦게 끝나니 누가 누구를 기다릴지 모른다고 했다. 둘은 웃었다. 문구점 앞까지 갈 수 없으면 가게 쪽에서 바로 돌아가고 전화하기로 했다. 클레르는 통화를 끊은 뒤 루시앙에게 같은 내용을 보냈다. 그는 남쪽 일을 넘기면 밖으로 나오겠다고 답했다.

저녁 여덟 시가 조금 넘었을 때 클레르는 문구점 앞에 도착했다. 지난번과 같은 차양이었지만 그 아래에는 이미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누군가는 따뜻한 차를 종이컵에 따랐고, 누군가는 집회가 끝나는 시간을 물었다. 클레르는 벽에 기대 휴대전화를 꺼냈다.

'나는 문구점 쪽. 끝나면 연락해.'

마르타의 답은 잠시 뒤 왔다.

'알았어요. 오늘은 손님 많아. 언니 것까지 남기면 혼나요.'

클레르는 '사서 먹을게'라고 보냈다. 그때는 메시지 옆에 읽었다는 표시가 붙었다.

루시앙은 아홉 시쯤 나올 수 있다고 했다가 한 번 더 미안하다는 답을 보냈다. 클레르는 자리를 뜨면 어긋날 것 같아 근처에서 산 샌드위치를 차양 아래서 먹었다. 마르타가 올 때까지 기다릴 생각으로 전화기에 알람을 맞췄다. 열 시 반이 지나면 다시 가게에 연락할 참이었다.

* * *

4월 12일 목요일, 오후 8시 50분 이후 — 루시앙

레아는 남쪽 집결을 유지한다고 말했다. 흩어지면 시청이 제안한 협의 전에 공동 요구를 거두는 모양이 된다는 것이었다. 각 단체가 자기 발언을 마친 뒤에는 떠날 수 있었지만, 새벽전선의 안내원들은 남기로 했다. 루시앙의 후임은 아직 오지 않았다.

"아홉 시에 나가기로 했어요."

그가 말했다.

"삼십 분만 더. 사람 찾고 있어요."

레아는 돌아가 다른 전화를 받았다. 루시앙은 클레르에게 늦는다고 보냈다. 그녀는 문구점에 있으며 먼저 먹겠다고 했다. 그는 미안하다고 답하고 휴대전화를 넣었다. 친구들이 광장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약속이 마음에 걸리면서도 한편으로 다행이었다. 자기 자리만 넘기면 밖에서 만날 수 있었다.

열 시 이십 분에 구역 보고가 돌았다. 회랑 쪽에 사람이 늘고 있었지만 아직 오가는 움직임이 있다는 말이었다. 얀은 혼잡이 더 심해지면 직접 알리겠다고 했다. 루시앙은 수첩에 시각을 적었다. 레아도 같은 보고를 들었다.

곁에 있는 안내원은 집에 전화해야 한다며 자리를 비켜달라고 했다. 루시앙은 그 자리에 대신 섰다. 안내원은 아이가 열이 난다고 했다. 그는 돌아오지 않아도 되니 가라고 했다. 그런 뒤 다른 사람을 보내달라고 레아에게 요청했다. 할 수 있는 일을 하나씩 정리하면 바깥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았다.

열 시 오십 분, 그는 아직 집결을 유지한다는 지침을 다시 중계했다. 말한 내용을 자기 단말에도 남겼다. 먼 쪽에서 난 소리 때문에 사람들이 묻고 있었다. 그는 무슨 소리인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행진을 시작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열한 시 오 분에 얀의 목소리가 들렸다.

"베르리 오렌지. 회랑 쪽 혼잡 계속 커집니다. 내가 선 쪽은 나가는 걸음이 멈췄어요. 들어오려는 사람들에게 피하라고 알려주세요. 현장 조정 요청합니다."

루시앙은 무전기를 귀에 가까이 댔다. 오렌지는 주의하고 이동을 다시 확인하라는 경고였다. 얀은 멀리서 들은 소문을 전달할 때와 달리 자기가 서 있는 쪽이라고 말했다. 지난번에도 그 말이 맞았다.

레아가 응답했다.

"보고 받았어요. 전체 해산 판단은 아직입니다. 안내요원은 각자 위치에서 확인 보고 주세요. 회랑 쪽 다시 확인할게요."

루시앙은 자기 구역이 유지 중이라고 답했다. 옆에 있던 청년이 지금 사람들을 보내도 되는지 물었다. 그는 잠깐 기다리라고 했다. 회랑으로 가지 말라고 알리는 것과 집회를 끝내는 것은 다른 일이었다. 지난번에는 자신이 그 차이를 다른 안내원에게 설명해 주었다. 그런데 지금 어느 쪽으로 가라고 함께 말할 수 없으면 사람들이 더 혼란스러워질 것 같았다.

그는 휴대전화를 꺼냈다. 세 사람의 대화창에는 클레르가 문구점에 있다는 말이 남아 있었다. 마르타는 아직 퇴근했다는 답을 하지 않았다. 가게에 있을 수도 있었고, 이미 나오고 있을 수도 있었다.

'회랑 쪽 피해서'

거기까지 쓰고 멈췄다. 어디로 오라고 할지 몰랐다. 새 줄에 '마르타, 가게에서 기다려'라고 썼다. 클레르에게는 움직이지 말라고 하면 됐다.

무전기에서 레아가 다른 구역을 불렀다. 그는 볼륨을 높였다. 길을 확인하면 같이 보내자. 루시앙은 두 줄을 모두 지우고 대화창을 닫았다.

몇 분 뒤 다른 구역에서 인원을 물었다. 그는 자기 곁에 남은 사람 수를 세어 답했다. 곧이어 집결 유지 여부를 다시 확인하는 질문이 왔다. 그는 바뀐 지시는 아직 없다고 말했다. 그 말을 하고 나서야 얀의 경고를 함께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다시 버튼을 눌러 덧붙이려는데 레아가 다른 사람을 불렀다.

그는 통화가 끝나기를 기다렸다. 청년은 이제 그를 보지 않고 사람들 쪽을 보고 있었다. 루시앙은 닫아둔 대화창을 다시 열지 않았다.

* * *

4월 12일 목요일, 오후 10시 40분부터 — 마르타

앞치마를 벗었을 때 열 시 사십 분이었다. 마르타는 벽시계와 휴대전화를 번갈아 보았다. 가게 시계가 늘 빠른 줄 알았는데 오늘은 같았다. 손톱 밑에 낀 반죽을 씻고 나오자 사장이 남은 빵을 두 봉투로 나눠 놓았다.

"내일 가져갈 건 따로 뒀어."

그가 냉장고를 가리켰다. 마르타가 발표용으로 준비한 것은 그 안에 있었다. 내일 학교에 가는 길에 찾기로 했다. 엘리즈에게 사진도 보내 놓았다. 한밤중에 기울어진 상자를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어 다행이었다.

마르타는 흰 봉투 두 개를 들었다. 길가에서 일을 마치지 못한 사람들이 아직 보였다. 사장은 가게 앞에서 나누고 빈 봉투는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나눠 주다가 또 누가 주문 물으면 사장님 전화 줘도 돼요?"

"내일 아홉 시 지나서."

그녀는 가게를 나섰다. 한 봉투는 옆 골목에서 차를 나누던 사람에게 주었다. 다른 것은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직접 나눴다. 먹을 사람이 아닌데도 받아서 뒤에 선 사람에게 넘기는 손이 있었다. 마지막 조각을 집은 여자가 값을 물었다. 마르타는 남은 거라 괜찮다고 했다.

멀리서 소리가 났을 때 그녀는 봉투의 밑바닥을 접고 있었다. 조금 뒤에 비슷한 소리가 또 났다. 앞에 있던 사람들이 고개를 들었다. 가게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었고, 광장 쪽을 보다가 하던 일을 계속하는 사람도 있었다. 마르타는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통화가 되지 않았다. 유리문 너머로 그가 아직 정리하는 것을 보고 손을 들었다. 사장도 손을 들었다.

그녀는 문구점 쪽으로 갈 수 있는지 클레르에게 물었다. 보내는 표시가 오래 돌았다. 얼마 전까지 사람들이 걷던 넓은 길에는 경찰이 서 있었다. 마르타가 전차 정류장으로 가느냐고 묻자 그쪽은 통행을 받지 않는다고 했다. 이유를 다시 물어도 답은 같았다. 경찰은 회랑으로 가라고 지시하지 않았다. 뒤에서 다른 사람이 질문하자 그녀는 비켜섰다.

르블레두로 되돌아갈 수도 있었다. 마르타는 가게 쪽을 한번 돌아봤다. 문구점에서 만나 같이 가기로 한 사람들이 있었고, 회랑 쪽에서는 아직 사람들이 천천히 걸어 나오고 있었다. 광장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도 맞은편 거리로 통하는 길이었다. 그 거리 끝이 문구점이었다. 축제 때도 다녔고 가게에 올 때도 다닌 길이었다.

그녀는 클레르에게 전화했다. 신호가 오래 가다가 끊겼다. 다시 누르려는데 짐수레를 미는 사람이 지나가, 벽 쪽으로 비켰다. 수레가 모퉁이를 돌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뒤로 걸었다. 빵집 문 위의 작은 차양 아래에서 빈 봉투를 가방에 넣었다.

휴대전화의 시각은 열한 시 십사 분이었다.

'빵 다 나눴어, 지금 갈게, 자리 좀 잡아줘.'

문구점 아래에서 잠깐 앉았다 가고 싶었다. 메시지는 전송함에 남았다. 마르타는 읽었다는 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전화기를 주머니에 넣었다. 조금 전까지 보이던 유리 지붕 끝이 사람들의 머리 뒤로 가려졌다.

처음에는 멈춰 서는 일이 더 많았을 뿐이었다. 앞사람이 움직이면 몇 걸음 가고 다시 섰다. 마르타는 누군가의 가방 지퍼가 자기 옷에 걸려, 손으로 천을 빼냈다. 상대가 돌아보며 미안하다고 했다.

"밖으로 나가는 쪽 맞죠?"

그녀가 물었다. 그 사람도 그렇게 알고 들어왔다고 했다.

어디선가 지금은 나가지 못한다는 말이 돌아왔다. 누가 직접 들은 말인지 알 수 없었다. 마르타는 고개를 돌렸다. 뒤에서 온 사람들이 앞의 사람들에게 길을 물었다. 목소리가 겹쳐 대답이 닿지 않았다. 그녀는 왔던 쪽으로 몸을 돌리려 했지만 발을 놓을 자리가 나지 않았다.

조명이 한쪽에서 어두워졌다. 완전히 캄캄해진 것은 아니었다. 바로 옆 사람의 얼굴은 보였고, 멀리 있는 표지의 글자는 보이지 않았다. 마르타는 가방을 앞으로 끌어당겼다. 빈 봉투가 안에서 바스락거렸다. 앞사람이 발을 옮기면 자신도 옮겨야 했다.

주머니 안에서 휴대전화가 눌렸다. 그녀는 손을 넣었다가 뺐다. 전화기를 꺼낼 만큼 팔을 움직이기 어려웠다. 바로 앞의 여자에게 잠깐만 멈춰 달라고 했지만, 여자는 자신도 멈추고 싶다고 말했다.

한 걸음만 옆으로 나가면 될 것 같았다. 마르타는 옆에 있는 사람에게 고개를 돌려 달라고 말했다.

* * *

4월 12일 목요일, 오후 11시 31분 무렵 — 클레르

문구점 주인이 안에서 차양 불을 껐다. 클레르는 유리문을 두드리려다가 그만두었다. 닫은 가게의 주인에게 다시 불을 켜 달라고 할 수는 없었다. 그녀가 휴대전화를 들자 남은 전지가 붉게 표시되었다.

루시앙의 답은 '아직 남쪽'에서 멈춰 있었다. 마르타는 일을 끝냈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클레르는 가게 번호를 찾았다. 벨은 울렸지만 받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읽었다는 표시는 몇 시간 전의 것이었다.

열한 시 반이 넘어서 루시앙과 잠깐 연결되었다.

"문구점에 있어?"

"응. 마르타 연락 왔어?"

"아직. 여기 사람들이—"

말이 끊어졌다. 클레르는 들리느냐고 두 번 물었다. 전화는 계속 연결 중이라고 나왔지만 목소리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녀는 기다리다가 끊었다. 문구점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회랑 쪽으로 걸어갈 수 있느냐고 물었다. 한 남자가 잠깐 기다리라고 했다. 그도 누군가를 데리러 가려는 참이었다.

사람들이 일어섰다. 앞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보려는 움직임이었다. 클레르도 까치발을 들었다. 회랑 안은 보이지

않았다. 누군가 넘어졌다는 말이 건너왔고, 곧 뒤로 물러나라는 외침이 들렸다. 처음에는 가까이서 나는 소리와 멀리서 나는 소리가 구분되었다. 조금 뒤에는 구분할 수 없었다.

클레르는 문구점 벽에 손을 대고 버텼다. 곁에 서 있던 남자가 자신의 어깨를 밀고 지나가려다 멈췄다. 그녀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클레르는 괜찮다고 답했지만 괜찮다는 말이 너무 작게 나왔다.

마르타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연결음이 들리지 않았다. 화면만 켜진 채였다.

"마르타?"

그녀는 통화가 시작되기 전에 이름부터 불렀다.

* * *

4월 12일 목요일, 오후 11시 55분 — 도렐

부관이 같은 보고를 두 번째 가져왔다. 통행 제한 안쪽에서 사람들이 빠져나오기 어렵다는 내용이었다. 도렐은 화면의 바깥쪽 영상부터 보았다. 그곳에서는 아직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었다. 안쪽은 가려져 있었다.

"직접 본 사람이 있습니까?"

"안쪽 담당이 보냈습니다. 다시 확인 중입니다."

도렐은 상급 지휘부에 통제 범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답은 현장 판단을 올리되 확인되지 않은 이동 지시는 내리지 말라는 것이었다. 바깥의 사람들을 다른 거리로 밀어내면 그곳의 통행과 구급차 진입을 다시 살펴야 했다. 그가 명령을 유지해 온 이유였다.

부관은 위험이 급하면 먼저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도렐도 그 조항을 알고 있었다. 화면의 안쪽은 여전히 가려져 있었다.

"현 통제는 유지합니다. 안쪽 보고를 다시 올려요. 추정 말고 본 것을."

부관은 복창했다. 기록 담당자가 시각을 적었다. 도렐은 현장을 더 보고 판단하겠다고 했지만, 그 문장이 기록되는 동안에도 유지 명령은 유효했다.

* * *

4월 13일 금요일, 자정이 지난 뒤 — 클레르

루시앙을 만났을 때 그의 손에는 장갑 한 짝이 들려 있었다. 자기 것이 아니라고 했다. 누구에게 받았는지 설명하려다 그만두었다. 클레르는 그가 오는 방향에 마르타가 있는지부터 보았다.

"가게에도 없어?"

루시앙이 물었다.

"전화를 안 받아."

그는 자기 휴대전화를 꺼냈다. 클레르가 방금 했던 번호를 다시 눌렀다. 그녀는 충전기를 빌릴 수 있는 곳을 찾았다. 사람들에게 물을 나눠주던 남자가 차 안에서 충전할 수 있다고 했다. 클레르는 전화기를 맡기는 순간 마르타에게 연락이 올까 봐 손에서 놓지 못했다.

"내 걸로 받으면 돼."

루시앙이 말했다. 그는 그녀의 전화기를 받아 케이블에 연결하고 자기 것을 건넸다. 클레르는 세 사람의 대화창을 열었다. 마르타의 마지막 말은 저녁에 가게에서 보낸 것이었다.

둘은 가장 가까운 안내 데스크부터 찾아가기로 했다. 루시앙이 앞장섰다가 그녀를 돌아보았다. 클레르는 그의 코트 소매를 잡았다. 떨어지면 이번에는 누구를 기다려야 할지 알 수 없었다.

# 제15장 돌아오지 않은 사람

4월 13일 금요일, 새벽 — 루시앙

안내 데스크의 여자는 마르타가 입은 옷을 다시 물었다. 루시앙은 저녁에 그녀를 보지 못했다고 했다. 클레르가 코트 색을 말하려다가 멈췄다. 지난번에 입은 옷과 오늘 입은 옷이 같은지 몰랐다. 전화기에서 사진을 찾기 시작했지만 나오는 것은 축제 때의 옷뿐이었다.

루시앙은 여자가 내민 종이에 이름부터 썼다. 벨렌의 철자를 두 번 확인했다. 나이를 쓸 때는 클레르에게 물었다. 스물한 살. 사진 속 모습보다 어리게 들렸다.

"어디에서 마지막으로 보셨습니까?"

"오늘은 못 봤어요."

그가 답했다. 여자는 펜을 들고 기다렸다. 설명을 빨리 해야 뒤에서 기다리는 사람들도 질문할 수 있었다. 루시앙은 가게에서 근무했고 끝난 뒤 만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자는 근무처를 적고 먼저 그쪽에 확인해 달라고 했다. 그가 전화를 대신 걸어달라고 하자 연결된 의료기관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자리에서 비켜나자 클레르가 손으로 얼굴을 덮었다. 손가락 사이로 눈이 보였다. 그녀는 울고 있지 않았다. 루시앙은 그녀에게 물을 마시라고 했다. 병을 열어주려고 했는데 손이 미끄러졌다.

"그쪽에 무슨 연락 없었어?"

클레르가 물었다.

"무슨 연락?"

"사람들이 위험하다든지. 더 들어오지 말라든지. 너희는 계속 무전했잖아."

루시앙은 뚜껑을 돌렸다. 얀이 했던 말이 정확히 떠올랐다. 들어오려는 사람들에게 피하라고 알려달라던 말. 그는 전체 해산 명령은 없었다고 답하려 했다. 클레르는 명령이 있었느냐고 묻지 않았다.

"없었어."

병뚜껑이 열렸다. 그는 물을 건넸다.

클레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대답에 기대는 것을 그는 보았다. 그녀는 이제 가게로 가보자고 했다. 루시앙은 지금 고치면 된다는 것을 알았다. 경고는 있었지만 얼마나 위험한지 몰랐다고, 확인 뒤에 보내려다 못 보냈다고 말할 수 있었다. 그렇게 말하면 그녀는 언제 들었는지 물을 것이었다. 그 시간에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도.

그는 데스크에 두고 온 사진을 받으러 돌아갔다. 여자가 연락처를 다시 확인했다. 루시앙은 자기 번호와 클레르의 번호가 모두 맞는지 살폈다. 번호를 잘못 써서 찾지 못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됐다.

밖에 나왔을 때 클레르는 혼자 걷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는 뛰어가 곁에 섰다. 그녀가 팔을 끼자 속도를 늦췄다. 르블레두 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했다. 사장에게 물으면 마르타가 어느 쪽으로 갔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 * *

4월 13일 금요일, 오전

르블레두 주인은 문을 열어 놓고 계산대 뒤에 앉아 있었다. 작업복을 입지 않은 그의 모습이 낯설었다. 클레르는 마르타가 자주 서 있던 자리를 먼저 보았다. 봉투를 펼치는 작은 탁자가 벽 쪽으로 밀려 있었다.

"몇 시에 나갔어요?"

"열 시 좀 넘어서. 아니, 기다려요."

그가 일어나 벽의 근무표를 가져왔다. 마지막 줄에는 마르타의 이름 옆에 열 시 사십 분이 적혀 있었다.

"이건 일을 마친 시간이에요. 밖에서 빵을 나눴어요. 나갈 때까진 봤는데 그다음은……."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클레르는 어떤 길로 갔느냐고 물었다. 문구점에서 친구들과 만난다는 말은 들었지만, 가게 밖에서 어디로 돌아갔는지는 보지 못했다고 했다. 어젯밤 손을 들어 인사한 뒤에도 가게 안에서 계속 정리했단다.

루시앙이 냉장고 앞에서 멈췄다. 안에는 마르타의 이름을 쓴 작은 상자가 있었다. 오늘 학교에 가져갈 것이라고 주인이 말했다. 친구가 찾으러 올지 모르니 버리지 말라고 해 두었다고 했다.

클레르는 상자에 손을 대지 않았다. 자신의 휴대전화에는 병원과 경찰서에서 적은 번호들이 있었다. 어느 곳에서도 마르타가 있다고 답하지 않았다. 일곱 명이 숨졌다는 발표는 보았지만 이름은 아직 모두 확인되지 않았다.

"저쪽 가게에도 물어봤어요?"

주인이 회랑 모퉁이를 가리켰다. 클레르가 고개를 저었다.

"경찰이 아침에 카메라 있느냐고 다녔어요. 혹시 지나가는 게 보였을지."

클레르는 가방을 다시 멨다. 루시앙이 함께 나가려 하자 그녀는 그에게 여기 남아 달라고 했다. 누군가 전화를 걸어 오면 받아야 했다. 그는 계산대 옆에 앉았다. 마르타의 빈 작업 자리에 그의 코트가 걸렸다.

* * *

4월 13일 금요일, 오전 — 클레르

모퉁이 빵집에서는 진열대 유리를 닦고 있었다. 문을 두드리자 안의 여자가 뒤를 가리켰다. 사장이 창고에서 나왔다. 클레르는 마르타 사진을 보여 주었다. 사장은 얼굴을 알아보지 못했다. 이틀 전까지는 같은 구역에서 빵을 파는 다른 가게의 학생을 그가 모른다는 것이 이상할 리 없었다.

"카메라에 찍혔을지도 모른다고 해서요."

그는 천장을 보았다. 작은 불빛이 켜져 있었다. 경찰도 그걸 물었다고 했다.

클레르는 녹화된 것을 같이 볼 수 있느냐고 했다. 사장은 경찰이 가져갈 자료를 자기가 먼저 내줘도 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가게 안에는 다른 손님 얼굴도 찍힌다고 덧붙였다.

"그럼 지우지만 말아 주세요. 안 나온다고 생각해도요."

사장이 청소하던 여자와 짧게 말을 주고받았다. 여자가 장부에 날짜를 적었다. 클레르는 자신의 번호 아래에 마르타의 이름을 썼다. 나오는지는 아직 모른다고 사장이 다시 말했다. 그녀는 알아들었다고 했다. 같은 말을 더 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밖에서 엘리즈에게 전화했다. 엘리즈는 학교에 있었다. 발표실이 바뀐 줄 알고 다른 건물까지 찾으러 갔다고 했다. 클레르는 르블레두 냉장고에 상자가 있다고 말했다. 말하는 동안 자기도 모르게 목소리가 밝아졌다. 찾을 수 있는 것이 하나라도 있었다.

"오늘 발표 안 해요."

"그래. 미안해."

"재료 말고. 마르타가요. 연락이 와야……."

둘 다 전화를 끊지 못했다. 엘리즈가 교수에게 전화해 보겠다고 했고, 클레르는 이미 연락했다고 말하려다 그만두었다. 대신 병원 이름 두 곳을 불러 주었다. 같은 곳에 거듭 전화하지 않도록 찾는 곳을 나눴다.

르블레두로 돌아가자 루시앙이 계산대에서 통화하고 있었다. 한나였다. 클레르는 수화기를 받아 가게에서 밤 열 시 사십 분까지 일한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한나는 그 뒤를 물었다.

"지금 알아보고 있어요."

"어젯밤 같이 있기로 했다며."

클레르는 진열대 아래 자기 신발을 보았다. 앞코에 마른 흙이 붙어 있었다.

"기다렸어요. 문구점에서."

"그럼 거기로 가야지. 왜 빵집에 있어."

그녀는 아침에 문구점에도 다녀왔다고 말했다. 한나가 대답하지 않았다. 전화 너머로 서랍을 여닫는 소리가 났다. 마르타의 최근

사진과 신분 확인에 필요한 것을 챙겨 오겠다고 했다. 클레르는 데리러 가겠다고 했지만 한나는 이미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거기 있어요. 또 움직이지 말고."

클레르는 전화기를 내려놓았다. 루시앙이 옆에 와 섰다. 그녀는 그에게 기대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었던 설명을 처음부터 다시 생각했다. 끝난 근무, 문구점, 두 번 끊긴 전화. 한나가 도착하면 빼놓지 않고 말해야 했다.

* * *

4월 13일 금요일, 밤 — 클레르

가브리엘은 아홉 시가 넘어 왔다. 현관에서 소속이 적힌 카드를 안주머니에 넣었다. 클레르는 아버지 뒤를 보았다. 누가 더 왔을 것 같았다.

"확인된 게 있대요?"

"아직 네게 말할 수 있는 이름은 없어."

"아빠는 들은 게 있어요?"

"나도 가족 확인을 거친 통보를 기다려야 해."

클레르는 그를 들어오게 했다. 식탁에는 전화번호를 적은 종이가 흩어져 있었다. 가브리엘은 한나가 앉았던 의자를 당기다 다시 밀어 넣었다. 한나는 친척과 함께 베르니로 돌아갔다. 전화기를 놓을 곳을 정해 두겠다며 연락이 오면 바로 깨우라고 했다.

루시앙이 싱크대에서 그릇을 씻었다. 물을 계속 틀어 놓아 클레르는 잠가 달라고 했다. 그가 수도를 잠그자 냉장고 소리가 컸다.

"누구한테 전화라도 해봐요."

클레르가 말했다.

가브리엘은 전화기를 꺼냈다가 식탁에 놓았다.

"오늘 이름을 앞당겨 듣는다고 확인이 빨라지는 건 아니야."

"오늘 하루 종일 모른다는 말만 들었어요."

아버지는 대답을 찾고 있었다. 클레르는 그 표정을 알고 있었다. 그는 곧 자신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정확히 나눠 말할 것이었다. 그녀는 먼저 방으로 들어가 코트를 가져왔다.

"다시 갈 거니?"

"여기 있으면 자꾸 자야 할 것 같아서."

루시앙이 젖은 손을 닦았다. 가브리엘은 차로 데려다주겠다고 했다. 클레르는 계단에서 아버지를 기다렸다. 아래층에서 누군가 늦은 저녁을 먹고 있었다. 접시가 부딪히고 텔레비전에서 웃음이 터졌다. 루시앙이 문을 잠그는 데 평소보다 오래 걸렸다.

그녀는 위를 향해 빨리 오라고 소리쳤다.

# 제16장 이름을 올리는 일

4월 14일 토요일, 오전

직원은 일곱 명 가운데 여섯 명의 신원이 확정됐다고 말했다. 한나는 종이를 받지 않고 직원의 얼굴을 보았다. 클레르는 그 여섯에 마르타가 들어 있다는 말을 다시 들어야 했다.

"오늘 일곱 시 오십 분 대조가 끝났습니다."

직원은 종이 위의 시각을 짚었다. 새벽에 받은 전화는 예비 통보였다고 했다. 지금은 여덟 시가 조금 지났고, 그 사이에 무엇이 달라졌는지 클레르는 종이에서 찾을 수 없었다. 이름은 같았다. 생년월일도 같았다.

한나가 서명란을 물었다. 직원은 당장 서명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한나는 그제야 종이를 받아 무릎에 놓았다.

복도에서 전화가 여러 번 울렸다. 루시앙은 소리를 끄고 한나의 가방을 들었다. 클레르는 병원에서 온 연락에 오늘도 갈 수 없다고 답했다.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선 남자가 벽을 향해 통화하고 있었다. 아들의 이름 철자를 한 글자씩 불러 주는 목소리가 들렸다.

한나가 그쪽을 보았다. 남자는 전화를 끊고 고개를 숙였다. 누구도 먼저 말을 걸지 못했다.

* * *

레코의 기자는 낮에 르블레두로 왔다. 클레르는 기자를 가게 안으로 들이기 전에 한나에게 물었다. 한나는 무엇을 알고 싶어 하는지 먼저 들을 수는 있다고 했다.

기자는 소피라고 이름을 밝혔다. 전날 일곱 명이 숨졌다는 발표 뒤에, 빵집에서 일하던 학생의 연락이 끊겼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했다. 성명도 사진도 아직 싣지 않았단다. 제보한 사람은 학교의

엘리즈였다. 그녀는 마르타가 발표에 오지 않았다는 것까지만 알았고, 그때는 사망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소피는 한나의 관계와 공식 통보가 끝났는지를 확인했다. 신원 확인서의 번호는 메모했지만 서류 전체를 찍지는 않았다. 가게 주인에게는 근무와 퇴근 시각을 따로 물었다. 주인은 전날 아침에 클레르에게 했던 대답을 되풀이했다. 퇴근 뒤의 길은 보지 못했다고 했다.

"빵을 나눠 주다 돌아오지 못한 학생이라고 써도 될까요?"

소피가 묻자 클레르는 문장을 잠깐 생각했다.

"그날 빵을 나눈 건 맞아요. 그런데 빵을 나누던 자리에서 죽은 건지는 몰라요."

소피는 노트의 한 줄에 선을 그었다.

한나는 사진이 필요하냐고 물었다. 그녀가 전화기에서 냉장고 사진을 찾아 보여 주었다. 지금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것은 이것뿐이라고 했다. 마르타가 보낸 원본은 집의 컴퓨터에 있다고 했다. 루시앙이 축제 공유함에서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클레르는 한나에게 화면을 보여 주었다. 왕관을 쓴 마르타 양옆에 자신과 루시앙이 서 있었다.

한나는 세 사람이 함께 나온 것을 오래 보았다.

"이걸로 해요. 혼자 있던 애가 아니니까."

소피는 촬영자를 물었다. 루시앙이 로맹에게 전화를 걸어 기자에게 넘겼다. 로맹은 기사에 원본을 제공해도 된다고 답했다. 소피는 그것과 별도로 한나에게 물었다. 사망자 신원과 일상을 전하는 이번 기사에 쓰고, 다른 용도의 요청이 오면 다시 연락하겠다고 했다. 한나는 허락했다. 친구들도 함께 나오는 데 동의했다.

루시앙은 공유함에서 세 사람이 나온 원본을 내려받았다. 보내기 전에 한나에게 다시 보여 주었다. 한나는 종이 왕관 위로 솟은 머리카락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이건 맨날 이랬어요. 아무리 눌러도."

소피는 그 말까지 적지는 않았다. 휴대전화를 돌려주었다.

오후에 올라온 기사는 일곱 명의 사망 사실과 마르타의 신원을 함께 전했다. 한나는 마르타를 스물한 살이라고 쓴 부분을 읽고 고개를 끄덕였다. 사진 밑에는 축제에서 친구들과 함께라고 적혀 있었다. 기사는 현장 경위가 조사 중이라고 끝났다.

엘리즈가 클레르에게 링크를 보내 왔다. 학과 게시판에 올려도 되느냐고 물었다. 클레르는 한나에게 전화기를 건넸다. 한나는 같은 기사를 연결하는 것은 좋다고, 마르타가 하려던 발표의 짝이 엘리즈였느냐고 되물었다. 답이 오자 한나는 냉장고 속 상자 이야기를 적기 시작했다.

* * *

4월 14일 토요일, 오후, 르블레두 — 클레르

엘리즈는 상자를 두 손으로 들고 왔다. 종이 뚜껑에 마르타가 적어 둔 글씨가 있었다. 먹지 말 것. 그 아래에 누군가 괄호를 쳐서 발표 전까지라고 덧붙였다. 한나는 그것이 엘리즈 글씨냐고 물었다.

"네. 제가 그냥 먹으려고 했어서요."

엘리즈가 웃으려다가 입을 가렸다. 한나는 뚜껑을 열었다. 냉장고에서 가져오는 동안 크림이 한쪽으로 조금 기울어 있었다.

"발표는 어떻게 해요?"

"교수님이 미뤄도 된다고 했어요."

"둘이 하던 건데."

엘리즈가 가방에서 종이를 꺼냈다. 마지막에 함께 고친 재료표였다. 한나는 그것을 먼저 달라고 했다. 엘리즈가 사본을 만들어 주겠다고 하자 왜 원본을 달라는 뜻으로 들었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클레르가 끼어들려는데 한나는 종이를 밀어 돌려주었다.

"미안해요. 복사해 줘요."

엘리즈는 종이를 접지 못하고 가방 입구에 붙들고 있었다. 루시앙이 밖에서 복사할 곳을 찾겠다고 했다. 엘리즈도 일어나 따라갔다. 한나는 닫힌 문을 한동안 보다가 상자 속 과자 하나를 집었다.

클레르는 먹어도 되느냐고 묻지 않았다. 자기도 하나를 가져왔다. 크림이 너무 차가워 맛을 잘 느낄 수 없었다.

"맛있다고만 하지 마요."

한나가 말했다.

"아직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알아. 먼저 말하는 거야."

클레르는 씹던 것을 삼켰다. 조금 있다가 아래가 눅눅하다고 말했다. 마르타라면 보관을 잘못했으니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했을 것이다. 한나는 과자를 돌려 밑을 보더니 다시 상자에 놓았다.

"얘가 그걸 제일 싫어했는데."

밖에서 복사기를 찾았다는 전화가 왔다. 한나는 엘리즈에게 자기 몫까지 발표해 달라고 하지 않았다. 몸이 괜찮을 때 다시 와 달라고, 재료표는 그때 받아도 된다고 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접시를 하나 더 꺼냈다. 클레르는 세 번째 접시를 어느 쪽에 둘지 기다렸다. 한나는 그것을 찬장으로 도로 넣었다.

* * *

4월 14일 토요일, 밤 — 클레르

한나는 돌아가는 차 안에서 한 번 잠들었다. 클레르는 깨우지 않으려고 휴대전화를 진동으로 바꿨다. 한나가 눈을 뜨자마자 무슨 연락이 왔느냐고 물어, 바꾼 것이 잘못인 것 같았다. 학교 친구가 내일 방문해도 되느냐고 물었다고 말했다. 한나는 내일이 무슨 요일인지 물었다.

집 앞에서 루시앙이 차 문을 열었다. 그는 한나의 가방을 현관 안까지 들고 갔다. 클레르는 냉장고 안의 음식을 확인해도 되느냐고 물었다. 한나는 문을 열어놓고도 무엇을 찾는지 모르는 듯 서 있었다. 친구 셋이 함께 찍은 축제 사진이 문에 붙어 있었다. 클레르는 손잡이를 잡느라 루시앙의 얼굴 일부를 가렸다가 손을 옮겼다.

베르니에서 돌아왔을 때는 막차가 거의 끝난 뒤였다. 클레르는 신발을 벗고도 현관에 앉아 있었다. 루시앙이 코트를 벗겨주려다 그녀가 팔을 움직이지 않자 옆에 앉았다.

"내가 오늘 무슨 말을 했지?"

그녀가 물었다.

"누구한테?"

"어머니한테. 내가 계속 뭐라고 했잖아."

그는 밥을 드시라고 했다고 답했다. 클레르는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이 견디기 어려워 얼굴을 무릎에 묻었다. 루시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가 몸을 떨기 시작하자 손을 등에 올렸다. 클레르는 그 손을 붙잡아 자기 앞쪽으로 당겼다.

둘은 옷을 갈아입지 않고 소파에 누웠다. 머리가 부딪혀 자리를 바꾸었다. 루시앙의 셔츠에서 하루 동안 밖에 있었던 냄새가 났다. 클레르는 그것이 싫지 않았다. 눈을 감으면 아침의 방이 떠올랐으므로 불을 끄지 말라고 했다.

"안 꺼."

그가 말했다.

새벽에 깼을 때도 그는 옆에 있었다. 한쪽 팔이 눌려 불편한 자세였다. 클레르가 조금 움직이자 그가 눈을 떴다. 그녀는 미안하다고 했고, 그는 팔을 빼서 반대쪽으로 돌려 누웠다. 이번에는 그녀가 그의 등을 안았다. 둘 다 잠이 오지 않았다. 그래도 한동안 그대로 있었다.

# 제17장 한 장의 얼굴

4월 15일 일요일, 오전 — 소피

소피가 출근했을 때 지역면에 올린 기사가 전국판 편집 화면에 떠 있었다. 사진의 세 사람 중 양옆 두 사람은 화면 밖으로 밀려나 있었다. 그녀는 담당 편집자에게 원래 비율을 유지해 달라고 했다.

"남자 친구인가?"

"가운데 학생의 친구들이에요. 사진 설명에 썼어요."

편집자는 설명을 읽고 화면을 되돌렸다. 전국판의 주요 사진으로 쓰자는 제안이라고 했다. 전날 밤 대학과 상인회 쪽에서 기사 링크가 여러 번 들어왔고, 방송국에서도 사진을 문의했단다. 소피는 그 요청을 사진가에게 직접 전달해야 한다고 했다. 레코가 사진을 다른 곳에 내줄 권리까지 받은 것은 아니었다.

"다른 여섯 명은?"

그녀가 물었다.

편집자는 사고 전체 기사 안에 확인된 이름을 넣고 있다고 했다. 한 가족은 아직 취재를 받지 않았고 다른 가족은 사진 없이 이름과 직장만 싣기를 원했다. 소피는 어제 복도에서 만난 니콜라 바레의 아버지가 보낸 답을 열었다. 아들이 스물네 살이며 자전거 수리점에서 일했다는 내용이었다. 정치단체 명단에는 올리지 말라는 문장도 있었다.

"이건 들어가야 해요."

"넣어. 전체 기사에서."

편집자는 화면을 두 개로 나눴다. 왼쪽은 일곱 명이 숨진 경위를 다룬 기사였다. 오른쪽에는 마르타와 친구들의 사진이 있었다.

"이쪽은 얼굴과 이름이 맞고, 가족 확인도 끝났고, 일상을 말해 줄 사람이 있어. 지금 내보낼 수 있는 인물 기사지. 이 학생이 사건 전체를 설명한다는 뜻으로 쓰지 말고."

소피는 한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역면에 올린 기사를 전국판에도 싣고 싶다고 설명했다. 사진을 새로 자르지 않고 같은 설명을 붙일 거라고 했다. 한나는 종이 신문으로도 받을 수 있느냐고 물었다. 소피는 주소를 확인한 뒤 보내겠다고 했다.

통화를 마치고 기사 끝에 다른 희생자들을 다룬 전체 기사로 가는 안내를 붙였다. 편집자가 제목을 줄여 보냈다. '친구들과 돌아가려던 빵집 학생'이었다. 소피는 귀가 약속이 친구의 증언이라는 점이 본문에 남았는지 확인하고 게재에 동의했다.

점심 전에 엘리즈에게서 전화가 왔다. 추모 모임 안내를 보내도 되느냐고 했다. 소피는 시간과 장소를 받아 두었다. 그 모임이 새벽전선 행사인지 물었더니 아니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실험조 친구들이 빈 발표 시간에 모이기로 했다고 했다. 누구를 초대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목소리였다.

소피는 한나에게 먼저 물어보라고 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사진 문의가 또 와 있었다. 그녀는 로맹의 연락처를 전달해도 되는지부터 확인했다.

* * *

4월 16일 월요일, 저녁 — 레아

레아는 일곱 명의 이름을 같은 크기로 놓은 시안을 가운데에 펼쳤다. 아직 맞춤법 확인이 끝나지 않은 이름 옆에는 연필로 표시해 두었다. 인쇄 담당자가 내일 아침까지 파일을 받아야 일요일 행진 전에 지방 연락처로 보낼 수 있다고 했다.

에티엔은 이름들보다 그 옆에 놓인 신문을 먼저 들었다. 마르타의 사진이 보였다.

"이건 우리가 찍은 거지?"

"로맹이 축제 때 찍었어요."

레아가 공유함을 열었다. 게시판에 올린 작은 파일 옆에 원본이 남아 있었다. 루시앙은 마르타 어머니에게 보내려고 같은 사진을 받았었다. 레아도 그날 의자를 가져다준 기억이 났다. 사진에는 그 의자가 나오지 않았다.

"가족이 이걸 쓰라고 했대요?" 얀이 물었다.

"신문 기사는 허락했어요."

"우리 포스터 말이야."

레아는 아직 묻지 않았다고 했다. 얀이 일곱 이름의 시안을 손끝으로 두드렸다. 이미 공동 추모를 준비하는 단체들과 그 안을 이야기했다고 했다.

에티엔이 신문을 내려놓았다.

"그 안은 안쪽에 넣자. 멀리서도 알아볼 얼굴이 필요해."

그는 마르타의 이름을 읽었다. 이미 학교와 빵집에서 쓰고 있는 이름이라고 했다. 새 이름을 외우게 할 필요가 없고, 그곳 사람들은 루시앙에게 연락하면 된다고 했다. 지역 담당자들이 인터뷰할 친구와 모임 장소를 물을 때마다 처음부터 찾아다닐 필요도 없었다.

"그런 일은 다른 가족한테도 물을 수 있잖아요." 얀이 말했다.

"물을 수 있지. 다 기다리는 동안 이번 주는 지나가."

레아는 이름 시안을 보았다. 일곱 명을 한 장에 올리는 것은 지금도 할 수 있었다. 기다려야 하는 안은 아니었다. 그녀는 그 말을 하려다 대신 사진을 어디까지 자를지 물었다.

에티엔은 양옆의 친구들을 가리켰다. 가운데 사람만 남기자고 했다. 레아가 사진을 잘라 보자 왕관 한쪽이 화면 밖으로 나갔다. 에티엔은 왕관이 보이게 조금 넓히라고 했다.

"마르타는 회원이 아니에요."

레아가 말했다.

"그러니까 회원들 추모식으로 보이면 안 되지. 빵집에서도, 학교에서도 자기 일로 느낄 수 있어야 해."

에티엔은 시안 아래에 새벽전선의 연락처를 넣게 했다. 지역 추모와 공동행동에 참가할 사람을 같은 창구에서 받자는 것이었다. 레아는 연락처 위의 문장을 읽었다. '우리는 마르타를 기억한다.'

루시앙이 친구로서 문의에 답하면 된다고 에티엔이 말했다. 얀은 친구라는 것과 유족을 대신하는 것은 다르다고 했다. 에티엔은 유족을 대신한다고 쓰지는 않았다며 사진으로 돌아갔다.

레아는 루시앙에게 연락했다. 전화는 받지 않았다. '축제 사진으로 공동 추모 포스터 준비 중. 어머니께 알려드릴 수 있어?'라고 썼다가, 끝을 '연락 부탁'으로 바꿨다. 아직 답이 오지 않았다.

인쇄 담당자가 파일을 언제 받을 수 있느냐고 다시 물었다. 레아는 에티엔의 승인을 적어 방금 만든 시안과 함께 보냈다. 루시앙의 답은 아직 없었다.

* * *

4월 16일 월요일, 늦은 밤 — 루시앙

레아가 보낸 파일을 열었을 때 루시앙은 사진에서 자기 어깨가 잘려나간 것을 먼저 보았다. 마르타만 남아 있었다. 종이 왕관도 남아 있었다. 아래에는 이름과 나이가 적혀 있었다. 그는 작은 글자를 확대하기 전에 레아의 전화를 받았다.

레아가 말했다.

"어머니께 연락 부탁드려요. 오늘 너무 힘드시다고 해서 내가 바로 전화하긴 좀 그래요."

"보여드리고 쓰는 거죠?"

레아가 잠깐 말을 멈췄다.

"파일은 벌써 인쇄소에 보냈어요. 내일 아침부터 나눠줄 건데 이제 다른 얼굴을 어디서 구해요. 가족이 언론에 내준 사진이기도 하고."

"기사 사진은 셋이 같이 나온 거예요."

루시앙이 말했다.

"그럼 싫다고 하시면 바꿔야죠. 그런데 여기서는 누구 얘기인지 한눈에 보여야 해요."

그는 한나가 냉장고 문에 붙인 사진을 떠올렸다. 세 사람이 같이 있는 것을 좋아했다. 언론에 쓰도록 허락한 것도 그 사진이었다. 포스터까지 써도 된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내일 여쭤볼게요."

"고마워요. 가족 연락은 당신이 해주면 서로 오해가 없겠어요."

통화가 끝났다. 한나의 번호가 최근 통화에 있었다. 지금 연락하면 아직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물어봐야 했다. 그는 레아에게 발송을 기다려 달라고 쓸 수 있었다. 대신 인쇄한 견본을 내일 보겠다고 했다.

부엌에서 클레르가 컵을 내려놓는 소리가 났다. 그녀는 오늘 한나가 전화를 너무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내일 점심에는 잠깐 혼자 있게 해드리자고 했다. 루시앙은 알겠다고 답했다.

레아가 견본은 내일 사무실에 있을 것이라고 보냈다. 루시앙은 가보겠다고 답했다. 포스터를 허락받지 않았다는 말은 클레르에게 하지 않았다. 그녀가 화면을 보러 왔을 때는 추모 행사에 쓸 것이라고 먼저 말했다.

클레르는 사진을 오래 보았다.

"같이 있는 걸 좋아하시던데."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컵을 하나 건넸다. 둘은 마르타가 왕관을 쓰기 싫다며 루시앙에게 씌웠던 일을 이야기했다. 루시앙은 그 사이에 내일 사무실에 갈 시간을 확인했다.

* * *

4월 17일 화요일, 오후

클레르는 안내지를 접으러 왔다가 포스터까지 상자에 넣게 되었다. 다른 지역에서 일요일에 올라오는 사람들에게 보낼 짐이었다. 새벽전선의 지역 담당자, 교통 노동조합의 지부 사무실, 세입자 모임의 연락처가 상자마다 적혀 있었다. 축제 때 물을 나르고 의자를 접던 사람들이 테이프를 끊고 있었다.

전화기 스피커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베르니의 노동조합 지부에서 걸어 온 전화였다. 차를 빌릴지 여부는 자기들 회의에서

정하겠다고 했다. 발레리아 정부에 현장 경위를 공개하라는 요구에는 함께하지만, 새벽전선 명의의 가입 안내를 조합원에게 나눠 줄 수는 없다고 했다.

레아는 가입 안내를 빼겠다고 했다. 클레르는 상자 위에 있던 작은 종이 묶음을 꺼냈다. 대신 행진 시간과 문의 번호만 있는 안내지를 넣었다. 전화 속 남자는 그 정도면 받을 수 있다고 했다.

포스터 속 마르타는 혼자 웃고 있었다. 클레르는 자기 팔이 있던 자리를 보았다. 마르타의 팔꿈치가 그림의 가장자리에서 끝났다.

"크게 뽑으니까 더 혼자 있는 것 같아."

그녀가 말했다. 루시앙은 뒤에서 상자를 들고 오다가 멈췄다.

"멀리서 안 보인대서."

"엄마는 셋이 있는 게 좋다고 했는데."

그는 아직 한나와 통화하지 못했다고 했다. 전화할 일이 너무 많아 같은 설명을 반복하게 하고 싶지 않았단다. 클레르는 자신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을 기억했다. 한나가 잠깐이라도 쉴 때는 굳이 깨우지 않았다.

그녀는 포스터 아래의 나이를 보았다. 스무 살로 되어 있었다. 상자는 아직 열려 있었다. 클레르는 맨 위의 포스터를 빼 들었다.

"그 묶음도 넣어요?"

옆 사람이 테이프를 든 채 기다렸다. 그녀는 포스터를 도로 얹었다. 나이는 루시앙에게 말하면 고칠 수 있을 것 같았다. 클레르는 상자 양쪽을 붙잡아 주었다.

루시앙에게 나이가 틀렸다고 말했다. 그는 새 파일은 고치겠다고 했다. 이미 출발한 상자는 바꿀 수 없었다. 클레르는 그 말을 듣고 더 요구하지 않았다. 자신이 고친 병원 홍보지 한 장이 가방 안에서 구겨지던 일이 잠깐 떠올랐다.

그날 저녁 베르니 지부의 게시판 사진이 단체방에 올라왔다. 포스터 아래에는 자기들 요구와 버스 출발 시간이 따로 적혀 있었다. 누군가 마르타를 아는 사람이 그 지역에도 있느냐고 물었다. 답은 없었다. 다른 사람이 빈 좌석이 남았는지 물었고 대화는 그쪽으로 옮겨갔다.

# 제18장 같은 광장

4월 22일 일요일, 오전 — 클레르

한나는 검은 신발을 현관에 벗어 놓았다. 뒤꿈치에 피가 배어 있었다. 클레르가 반창고를 찾는 동안 한나는 다른 신발을 신었다. 장례 뒤의 행진에는 오래 있지 않겠다고 했다.

"안 가셔도 돼요."

"가기로 했잖아."

"가기로 했어도요."

한나는 클레르를 쳐다봤다. 클레르는 그만 말하고 반창고를 내밀었다. 붙이는 것은 한나가 했다. 루시앙이 현관 밖에서 차가 왔다고 알렸다.

차 안에서 한나는 기사에게 조금만 천천히 가 달라고 했다. 늦지 않는다고 기사가 답했다. 클레르는 늦는 것이 걱정되어 한 말이 아니란 것을 알았지만 설명하지 않았다. 한나가 창문을 조금 내렸다. 강을 지나는 동안 차 안에 차가운 공기가 들었다.

광장 가까이 가자 루시앙의 전화가 울렸다. 그는 두 번 받지 않다가 세 번째에는 차 밖에서 통화하겠다고 했다. 안내 인원이 부족하다는 말이 열린 문틈으로 들렸다. 클레르는 한나를 따라 내렸다.

"갔다 올게. 금방."

루시앙이 그녀에게 말했다.

"늦어지면 전화해. 그냥 기다리게 하지 말고."

"그럴게."

그는 그녀를 안았다. 클레르도 팔을 둘렀다. 한나가 돌아보지 않는 동안 둘은 조금 더 붙어 있었다. 그가 먼저 팔을 풀었다.

* * *

4월 22일 일요일, 오후

버스에서 내린 사람들은 곧바로 한 대열로 섞이지 않았다. 자기 지부 깃발을 찾는 사람들이 있었고, 화장실부터 묻는 사람도 있었다. 클레르는 베르니에서 왔다는 여자에게 안내지의 화장실 표시를 짚어 주었다. 여자는 고맙다고 하면서 옷에 달린 마르타 사진을 고쳐 붙였다.

"아는 분이세요?"

클레르가 묻자 여자는 아니라고 했다. 신문에서 본 학생이라고 했다. 자기 동료의 아이도 빵집에서 일한다는 말을 덧붙였다. 어느 빵집인지는 클레르가 모르는 곳이었다.

여자는 가방에서 사과 하나를 꺼내 먹으며 자기 지부 사람들을 기다렸다. 차가 줄어서 교대근무를 맞추기 어려워졌고, 그 문제로 원래부터 올라오려던 참이라고 했다. 이번에는 사고 조사 요구도 함께 내기로 했단다. 클레르는 그 여자가 다시 마르타 이야기를 할 줄 알았다. 그러나 곧 버스에서 내린 친구에게 손을 흔들었다.

무대 옆에서는 방송국 촬영팀이 자리를 정하고 있었다. 새벽전선의 진행자가 중앙 쪽을 가리켰다. 그쪽에 서면 연설자와 큰 마르타 패널이 한 화면에 들어왔다. 촬영감독은 뒤의 다른 단체 깃발이 가리지 않는지 보고 삼각대를 폈다. 기자는 진행자에게 행사 규모를 물은 뒤, 경찰 쪽에서도 확인해야 한다며 자리를 떴다.

마이크를 든 기자가 돌아와 무대 옆에 섰다. 그의 화면 뒤에도 마르타가 있었다.

반대편에서는 노동조합 사람들이 따로 걷고 있었다. 일곱 명의 이름을 같은 크기로 쓴 현수막을 앞에 들었다. 니콜라 바레라는 이름도 보였다. 옆 사람은 마르타의 이름을 따라 읽다가 다른 이름에서 잠깐 멈췄다.

루시앙은 무대 아래의 통로를 비우고 있었다. 클레르를 보고 손을 들었다. 그녀도 손을 들었지만 그쪽으로 가지 않았다. 한나에게

보낼 사진을 찍으려다가 전화기를 내렸다. 화면 안에는 한나가 고른 세 사람의 사진이 없었다.

* * *

클레르는 행진이 끝나기 전에 무대 옆으로 갔다. 패널 앞에서 자원봉사자가 사람들에게 서 있을 자리를 알려 주고 있었다. 가족 쪽에 앉으라고 그가 권했다. 클레르는 가족이 아니라고 했다.

"친구도 이쪽이에요. 어머니는요?"

"먼저 가셨어요."

자원봉사자는 빈 의자 하나를 안쪽으로 옮겼다. 옆의 레아가 클레르를 알아보고 물을 건넸다. 클레르는 물을 받지 않은 채, 뒤에 일곱 이름을 같이 띄울 수 없느냐고 물었다.

"지금 순서 끝나면요."

"사진이 계속 있는데 다른 이름은 한 번도 못 봤어."

레아가 음향 탁자 쪽으로 갔다. 클레르는 그 자리에서 기다렸다. 앞에서 연설하던 사람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박수가 났다. 마르타의 사진이 사라지고 일곱 이름이 화면에 올라왔다. 클레르는 이름을 끝까지 읽었다. 촬영팀은 이미 카메라를 내려 짐을 싸고 있었다.

레아가 돌아와 이제 됐느냐고 물었다. 클레르는 됐다고 하려다 자신이 무엇을 허락할 수 있는지 생각했다.

"그 사진 원래대로 돌려놓는 것도 물어볼게."

"누구한테?"

"한나한테."

레아는 다음 행사를 준비하며 따로 만나자고 했다. 클레르는 날을 정해 달라고 했다. 화요일 오후가 비어 있다는 답을 받고 전화기에 적었다.

저녁 뉴스에서 본 것은 자신이 서 있던 쪽과 다른 광장이었다. 에티엔이 말하는 동안 마르타의 얼굴이 그의 어깨 위에 있었다. 이어서 다른 유족의 짧은 말과 별도 행렬이 나왔다. 뉴스가 끝나기 전에 클레르는 화면을 껐다.

루시앙은 식탁에서 신발 끈을 풀고 있었다. 손가락 끝이 붉었다. 클레르는 그에게 오늘 사람들을 잘 돌려보냈느냐고 물었다. 그는 마지막 버스까지 갔다고 했다.

"화요일에 사무실 가."

"내가 있을 시간에 와."

그녀는 한나와 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루시앙이 고개를 들었다. 클레르는 이미 약속을 잡았으니 시간을 바꾸지는 않겠다고 했다.

루시앙은 풀어 놓은 끈을 신발 안으로 밀어 넣었다. 클레르는 한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발은 좀 괜찮으세요?"

한나는 그 신발을 두 번밖에 신지 않았다고 했다.

# 제19장 허락하지 않은 것

4월 24일 화요일, 오후

마르셀 바레는 서류를 두 번 접어 들고 있었다. 클레르와 한나가 새벽전선 사무소에 들어갔을 때 그는 접수 탁자 앞에 서 있었다. 클레르는 신원 확인실 복도에서 보았던 남자임을 뒤늦게 알아봤다.

"아들 이름을 빼 달라는 게 아닙니다."

그가 말했다.

접수하던 사람이 종이를 다시 보았다. 마르셀은 니콜라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보도해도 된다고 했고, 공동 조사 요구에도 서명했다고 했다. 그가 거절한 것은 당의 표식 아래 아들 얼굴을 거는 일이었다.

"그럼 얼굴 없이 이름만 넣는 걸로—"

"어디에요?"

그가 물었다. 접수하던 사람이 답하기 전에 마르셀이 종이를 펼쳤다. 장례 안내, 사실을 확인하는 기사, 조사 청원, 행사 포스터가 네 줄로 나뉘어 있었다. 자기 손으로 쓴 것이었다.

"이걸 한 번에 묻지 마세요. 나는 하나씩 대답했어요."

한나가 그의 종이를 보았다. 클레르는 가방에서 포스터를 꺼냈다. 스무 살이라는 글자를 고쳐 달라고 생각하며 가져온 종이였다. 이제 그 부분부터 말하고 싶지 않았다.

"이 사진을 이 포스터에 쓰는 걸 허락한 사람이 누구예요?"

레아는 로맹이 파일을 모임에 기증했다고 말했다. 로맹은 안쪽 방에서 불려 나왔다. 그는 가방을 메고 있었다. 사진을 줄 때 돈을 받지 않았다는 뜻이었다고 했다. 신문에 제공할 때는 한나의 허락을 받았다고 루시앙에게 들었단다.

"신문은 제가 허락했어요." 한나가 말했다. "친구들이 옆에 있는 걸로."

로맹이 접힌 포스터를 폈다. 자신의 이름은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았다. 그는 그 점을 말하려다 한나를 보고 입을 다물었다.

"제가 파일을 줬다고 해서, 이분이 이것도 허락한 건 아니네요."

그는 레아에게 말했다. 레아는 이미 여러 지역에 나갔으니 한 번에 회수할 수 없다고 했다. 다음 인쇄를 중단하고 연락하겠다고 했다.

"오늘도 보내요?" 클레르가 물었다.

레아는 발송표를 확인했다. 오후 물량은 아직 안 나갔다고 했다. 클레르는 그 상자를 먼저 빼 달라고 했다. 레아는 잠깐 기다리게 한 뒤 창고 문을 열었다. 세 상자가 복도로 나왔다. 그중 하나에는 이미 운송장이 붙어 있었다.

마르셀은 그 모습을 보고 접수 탁자에서 자기 서류를 한 장 돌려받았다. 니콜라의 사진은 제공하지 않겠다는 문장이 남아 있었다. 그는 클레르에게 인사를 하고 나갔다. 같이 싸우자는 말도, 서로 연락하자는 말도 하지 않았다.

인쇄소에 갔을 때는 해가 기울고 있었다. 사장은 한나에게 발주서를 보여 주었다. 승인자는 에티엔, 파일을 보낸 사람은 레아였다. 날짜는 사월 십칠 일이었다. 클레르가 유족 허락을 확인했느냐고 묻자 사장은 발주처가 확인한 줄 알았다고 했다. 한나는 자기 이름이 적혀 있지 않은 칸을 오래 보았다.

"사본 주세요."

그녀가 말했다.

사장은 종이를 복사했다. 전화가 울리자 레아의 이름을 말하며 받았다. 그는 통화를 마치고 작업 대기 화면에서 같은 시안을 열었다. 다음 물량이 잡혀 있었다. 추가 발주를 취소한다는 메시지가 온 것을 한나에게 보여 준 뒤 대기 목록에서 뺐다. 이미 인쇄된 포스터가 모두 돌아온다는 뜻은 아니었다.

클레르가 발주서 사본을 받으려 하자 한나가 손을 내밀었다. 한나는 사본을 직접 가방에 넣고, 아직 벽에 붙어 있던 포스터도 떼어 달라고 했다.

* * *

4월 24일 화요일, 저녁 — 레아

레아는 인쇄소의 취소 확인을 에티엔에게 보여 주었다. 그는 남은 상자 수부터 물었다. 지역 연락망에 회수 요청을 보내면 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미 붙인 곳도 있고, 자기들이 받은 사람한테 또 줬어요."

"새 파일을 보내. 나이도 고치고."

"사진은 쓸 수 없어요."

에티엔이 전화기에서 눈을 들었다.

"그쪽에서 아예 그렇게 말했어?"

"한나가 직접 왔어요. 사진가도 있었고요."

그는 의자에 깊이 기대었다. 레아는 남은 상자를 둘 곳도 없다고 말했다. 사람 둘이 오후 내내 붙인 운송장을 다시 떼었다. 그중 한 사람은 이것 때문에 돌봄 시간을 바꿨다며 돌아갔다.

"그럼 다음 것은 이름만 가자."

에티엔이 말했다. 레아는 새 파일 제목을 바꿨다. 일곱 명의 이름을 쓴 시안도 다시 열었다. 에티엔은 그 안은 공동 행진용으로 남겨 두라고 했다.

"마르타 이름을 쓰지 말라는 말은 아니었잖아."

레아가 그를 보았다. 며칠 전에 얀이 접수 탁자에서 했던 질문이 생각났다. 무엇을 어디에 쓰겠다고 물었느냐는 질문이었다.

"따로 물어볼게요."

"장례 끝난 가족을 붙잡고 매번 허가서를 받자는 건 아니지?"

레아는 대꾸하지 않고 새 파일을 닫았다. 에티엔이 자기 전화기에서 행사 진행자에게 연락했다. 사진을 배경에서 빼되 연설 순서는 그대로 두라고 했다. 이어 베르니 지부의 버스 비용 정산을 물었다. 그쪽은 가입 명단 공유를 거절했고, 참가자 숫자도 자기들 이름으로 발표하겠다고 했다.

에티엔은 잠깐 욕을 했다. 레아 앞에서 한 말인지 전화 너머 사람에게 한 말인지 알 수 없었다. 그가 통화를 끊고 정산표를 달라고 했다.

"그 비용은 우리가 약속한 거니까 보내."

레아는 취소된 인쇄비 옆에 버스 비용을 남겼다.

* * *

4월 25일 수요일 — 클레르

취소된 인쇄 주문의 영수증을 한나에게 보내고 나서 클레르는 자기 휴대전화 사진을 지웠다. 포스터가 들어 있던 상자를 찍은 사진이었다. 곧 다시 복원했다. 지워야 할 이유가 없었다. 자신이 들고 보낸 것이라는 사실도 사진과 함께 남아 있었다.

루시앙은 일찍 돌아왔다. 장을 봐왔다고 했다. 그녀가 좋아하는 작은 요구르트가 있었고, 할인한다는 이유로 너무 많이 산 버섯도 있었다. 클레르는 봉투를 정리하다 그에게 물었다.

"내가 그날 그만하자고 했으면 멈췄을까?"

"무슨 날?"

"상자 보낸 날."

그는 버섯 포장을 뜯다가 멈췄다.

"당신이 보내라고 결정한 건 아니잖아."

"상자는 내가 닫았어. 나이만 고치면 되는 줄 알았어. 셋이 찍은 걸 좋아하신다고 내가 말해놓고."

루시앙은 자기가 먼저 물었어야 했다고 했다. 클레르는 그 말을 듣고도 편해지지 않았다.

"너만 안 물은 거 아니잖아. 나도 안 물었어."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버섯에서 작은 흙덩이를 떼어냈다.

클레르는 한나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영수증을 받았느냐고 묻고, 그날 자신도 포스터를 보내는 일을 했다고 말했다. 그쪽에서 한동안 소리가 없었다. 한나는 알고 있었다고 했다.

"네가 도와주려고 한 것도 알아."

클레르는 입술을 다물었다.

"싫다고 하면 그냥 싫다는 거야. 다음엔 바꾸지 마."

한나가 말했다. 클레르는 그러겠다고 했다. 위로도 조금은 바랐다.

통화를 끝내고 돌아왔을 때 루시앙은 요리를 시작하고 있었다. 그녀는 버섯을 씻으면 물이 많이 생긴다며 그릇을 가져갔다. 그는 늘 씻어 먹었다고 했다. 클레르는 평소 같으면 했을 잔소리를 하지 않고 반은 씻고 반은 닦자고 했다. 둘은 같은 도마를 번갈아 썼다. 식탁에 앉은 뒤에야 그가 오늘 말해줘서 고맙다고 했다.

# 제20장 남의 문장

4월 28일 토요일, 저녁

에티엔이 마르타의 이름을 말하자 사람들이 조용해졌다. 클레르는 옆자리의 한나가 무릎에 놓은 손을 보았다. 손가락 사이에 접힌 종이가 끼어 있었다. 이번 행사에도 사진을 쓰지 말아 달라고 보낸 편지의 사본이었다.

무대 뒤에는 사진 대신 이름이 떠 있었다.

"그녀는 우리의 미래를 말했습니다."

에티엔이 말했다. 이어 빵을 나누던 젊은 사람이 원했던 도시를 자신들이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가 잠깐 말을 멈추자 박수가 나왔다. 클레르는 손을 무릎에 두고 있었다. 한나도 박수를 치지 않았다.

행사가 끝난 뒤 기자 한 사람이 한나에게 소감을 물었다. 한나는 사진을 안 쓴 것은 다행이라고 답했다. 그리고 딸이 그에게 그런 미래를 말한 적은 없다고 했다. 기자가 녹음기를 조금 높였다.

"빵집을 하고 싶어 했어요." 클레르가 말했다. "그건 맞아요."

기자가 가게 이름을 물었다. 마르타는 아직 가게를 얻지 못했다. 클레르는 르블레두가 그녀의 가게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자기 입에서 나오는 설명이 너무 작은 것처럼 들려 화가 났다. 그러나 기자는 받아 적고 자신이 쓸 문장을 다시 읽어 주었다. 창업을 준비하던 학생이었다는 문장이었다. 클레르는 그 문장에는 고개를 끄덕일 수 있었다.

한나를 배웅하고 돌아오는 길에 루시앙은 에티엔이 마르타를 모욕하려던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클레르는 걸음을 멈췄다.

"그럼 엄마가 그렇게 말하지 말라면 그만하면 되잖아."

"그 사람이 하려는 말은 우리도 아는 거잖아."

"나는 마르타가 하려던 말을 알아."

루시앙은 대답하지 않았다. 잠시 뒤 그녀의 가방을 받아 들겠다고 했다. 클레르는 괜찮다고 했지만 손에 든 물병은 그에게 건넸다. 둘은 같은 정류장으로 걸었다.

* * *

4월 30일 월요일, 밤

한나가 오래된 음성메모도 보내 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휴대전화 반환을 기다리는 동안 친구들 전화기에 남은 것을 모으고 있다고 했다. 클레르는 카페르나의 흐린 날씨 소식을 찾아 보냈다. 한나는 컵을 놓고 실랑이하는 부분에서 웃었다. 스피커를 통해 그 웃음이 들리자 클레르도 따라 웃었다.

"이건 다른 데 주지 말아요. 나 먼저 좀 들을게요."

한나가 말했다. 클레르는 알겠다고 했다.

통화를 마친 뒤 루시앙이 자기 전화기에도 파일이 있다고 말했다. 그날 둘이 함께 들었고, 마르타가 세 사람의 대화방으로 보낸 것이었다. 그는 노트북의 추모 자료함을 가리켰다. 육월 행사 준비를 위해 모으는 중이라고 했다.

"거긴 보내지 마. 방금 들었잖아."

클레르가 말했다.

"밖으로 내는 건 아니야. 자료만 모으는 거지."

"보내지 말라고."

루시앙은 화면을 내렸다. 클레르는 한나가 파일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전화기를 충전했다.

* * *

4월 30일 월요일, 밤 — 루시앙

클레르는 한나에게 음성 파일을 보내고 잠들었다. 루시앙은 부엌에서 물을 마시다가 레아의 요청을 보았다. 추모 자료를 모으고

있었다. 생전의 사진, 친구들이 기억하는 말, 남아 있는 목소리. 공식 발언에 쓸 문장을 달라는 요청은 아니었다.

그는 세 사람의 대화창을 오래 거슬러 올라갔다. 마르타가 카페르나라는 가상 도시를 소개하던 음성은 이월에 있었다. 다시 재생하자 다리가 무너져서 강 건너 카페에 못 간다는 장난이 나왔다. 컵을 쓰지 말라는 말 뒤에 뉴스 진행자 흉내가 이어졌다. 그는 웃다가 재생을 멈췄다.

클레르는 아까 분명히 말했다. 한나에게만 보내는 것이며 조직의 자료 보관함에는 넣지 말라고. 한나도 다른 곳으로 보내지 말라고 했다고 했다.

레아에게 없다고 말할 필요는 없었다. 있는데 보낼 수 없다고 하면 됐다. 그는 그 문장을 쓰지 않았다. 휴대전화를 든 채 침실 문 앞까지 갔다가 돌아왔다. 클레르를 깨워 다시 물으면 같은 답을 들을 것 같았다.

그는 파일을 첨부하고 '내부 보관만. 공개할 때는 따로 물어봐 주세요'라고 썼다. 보내고 나서 '가족한테도'라는 말을 덧붙였다. 레아는 알겠다고 답했다.

전송은 금방 끝났다. 그는 '내부 보관만'이라고 쓴 자기 메시지를 다시 읽었다. 세 사람의 대화창으로 돌아가면 같은 음성이 남아 있었다.

그는 파일을 지워달라고 다시 보낼 수 있는 창을 보고 있었다. 레아가 다른 사진을 보내달라는 메시지를 이어서 썼다. 루시앙은 오늘은 더 없다고 답했다. 그러고는 창을 닫았다.

침실에 들어가자 클레르가 깨어 있었다. 왜 안 자느냐고 물었다. 그는 물을 마셨다고 했다. 그녀가 이불을 들어주자 그는 옆에 누웠다. 휴대전화는 화면을 아래로 해서 탁자에 놓았다.

# 제21장 남겨 둔 날짜

5월 2일 수요일 — 가브리엘

중간 발표는 열 시에 나갔다. 가브리엘이 정정 요청을 받은 것은 그 뒤였다. 법률관이 받아 적어온 첫 문장은 '비합법 집결 인원 사고'였다. 그는 사월 십이 일 처분을 꺼내 같은 구역의 집결 접수 문서와 나란히 놓았다.

"이 표현은 빼야 합니다."

홍보 담당자는 이미 보도된 문구라고 했다. 법률관은 그래서 정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브리엘은 그녀에게 말을 맡긴 채 두 문서를 복사했다. 도로 점유 행진을 금지한 처분이 그날 그곳에 있던 사람 모두의 신분을 정하지는 않았다. 누가 행진했고 누가 퇴근길이었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했다.

"우리가 통제한 이유를 설명한 겁니다." 담당자가 말했다.

"그 이유와 이 사람들 행위는 별개입니다."

가브리엘은 정정 의견에 서명했다. 홍보 담당자는 상부와 상의하겠다고 가져갔다. 오후까지 발표문은 바뀌지 않았다. 법률관이 다음 정례 발표 때 직접 설명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다.

"담당 부서가 답하게 합시다."

그가 말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다음 질문을 하지 않았다. 가브리엘은 불편했다. 자신이 말하면 부처 안에서 먼저 합의해야 할 일을 밖에서 다투는 모양이 될 것이었다.

그녀가 나간 뒤 가브리엘은 다른 정정 서류를 열었다. 통합 신고 전환에 관한 경위서였다. 참사 직후 조회되지 않는 접수 흔적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 원문을 다시 모았었다. 삼월 팔 일 자신의 조건부 검토, 십삼 일의 요약 보고, 십구 일에 보낸 정정 요구가

차례로 있었다. 맨 위에 운영과에서 만든 한 장짜리 경과가 놓여 있었다. '법률 검토를 거쳐 전환 완료'라는 말이 있었다.

그는 완료라는 단어를 지웠다. 법률 검토를 했다는 것과 기록 대조를 마쳤다는 것은 달랐다. 기존 자료를 옮겨 대조하는 작업과 당일 기관 사이에 전화가 넘어가는 절차도 같은 것이 아니었다. 그 문장으로 두 가지가 모두 검증된 듯 쓰여 있었다.

운영과장은 표현을 고치겠다고 했다. 다만 가브리엘이 사전 대조 완료 조건을 낮추었다는 대목은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고 했다. 기술 문제를 알기 전의 의견이었다는 이유였다.

가브리엘은 그 문장을 다시 읽었다. 빼면 문서는 더 간단해졌다. 조건을 지키지 않은 운영 담당자와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안내만 남았다.

"그건 둡시다."

그가 말했다. 접수 인력의 일을 덜어준다는 설명을 받아들여 조건을 낮췄고, 보완 보고가 부족한 상태에서도 검토 의견을 유지했다. 그 뒤 일어난 모든 일을 안다고 쓸 수는 없었다.

그는 경위서를 감사 담당에 보냈다. 수신 확인이 온 뒤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클레르는 병원에 있었다. 발표문을 봤느냐고 물었다.

"봤다."

"저 말대로면 마르타는 거기 있었다는 것부터 잘못이네."

가브리엘은 정정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딸은 언제 고쳐지느냐고 물었다. 그는 아직 모른다고 답했다. 통화가 끝난 뒤 홍보 담당자에게 다시 연락했다. 같은 질문을 이번에는 자신이 했다.

* * *

5월 3일 목요일, 저녁 — 클레르

병원 휴게실에서 마르타 이야기를 먼저 꺼낸 사람은 클레르였다. 며칠 동안 동료들은 그녀 앞에서 그 이름을 피했다. 그날 화면 아래에 전날 발표문이 다시 흘렀다. 한 직원이 소리를 줄이자 클레르는 그냥 두라고 했다.

"시위에 간 게 아니에요."

그 말을 하고 나서 누구에게 설명하는지 알 수 없었다. 직원은 자기도 안다고 했다. 클레르는 모르고 말한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고집스럽게 계속했다. 근무가 끝난 시간, 친구들과 만나려던 곳을 말했다. 말을 멈췄을 때는 쉬는 시간이 거의 끝나 있었다.

오래 함께 일한 기사가 종이컵을 버리고 돌아왔다.

"거기 집회에 갔어도 조사해야 하는 거잖아."

클레르는 그를 보았다. 그는 더 말하지 않았다. 둘이 실험실로 돌아가는 동안 그녀는 아까 한 말을 어떻게 고쳐야 할지 생각했다. 마르타에게 하지 않은 일을 시키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어도 된다는 말도 하고 싶지 않았다.

집에 와서 가브리엘에게 전화를 걸었다. 정정됐느냐고 물었다. 아직 공식 문장은 그대로라는 답이 돌아왔다.

"그럼 제가 기자한테 말할게요.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

가브리엘은 잠깐 기다리라고 했다. 누구에게 묻는 소리가 나더니 다시 전화기 쪽으로 돌아왔다.

"네가 본 것과 네가 확인한 것은 말해도 된다. 내가 고치라고 했다는 말까지 꼭 해야 하니?"

"아빠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녀는 소피에게 근무 확인과 약속 장소를 다시 보냈다. 이번에는 '시위와 무관한 사람'이라는 문장부터 쓰지 않았다. 마르타가 그날 무엇을 했는지 썼다. 소피는 다음 기사에서 정부가 참석자의 행위를 어떻게 구분했는지 묻겠다고 답했다. 언제 나갈지는 약속하지 않았다.

루시앙은 그녀가 전송을 마친 뒤에야 어깨에 손을 얹었다. 같이 쓰자고 하지 않은 것이 서운했냐고 묻자 그는 아니라고 했다. 클레르는 고개를 뒤로 기대 그의 손등에 볼을 댔다. 그러고는 읽어보겠느냐고 물었다.

* * *

5월 5일 토요일 — 클레르

결혼식 장소에서 온 메일에는 대답 기한이 있었다. 클레르는 세 번째 읽고 나서 루시앙에게 보여주었다. 메뉴 인원을 확정할 때는 아니었지만 날짜를 계속 잡아둘 것인지 알려줘야 했다.

루시앙은 의자에 앉았다. 이번에는 서서 짧게 읽지 않았다.

"미룰까?"

"얼마나?"

그는 답을 하지 못했다. 클레르는 달력에서 가을 날짜를 세다가 손을 내렸다. 그때가 되면 어떤 상태일지 몰랐다. 한나에게 말할 수도 없었다. 어머니가 아닌 한나에게 허락받아야 하는 일도 아닌데, 그 생각부터 났다.

"지금 날짜를 없애고 싶지는 않아."

클레르가 말했다.

루시앙은 그러면 오늘은 없애지 말자고 했다. 날짜를 유보할 수 있는지 먼저 묻기로 했다. 스피커를 켜고 둘이 같이 전화했다. 담당자는 일정 기간 한 번 옮길 수 있지만, 새 날짜를 확정하지 않으면 방을 계속 잡아둘 수는 없다고 했다. 이미 낸 돈 가운데 반환되는 부분과 돌려받지 못하는 부분을 나누어 설명했다. 클레르는 그 내용을 적었다. 루시앙이 대신 대답하려다 그녀가 적는 것을 기다렸다.

통화를 마치자 둘 다 지쳐 있었다. 취소한 것도, 결정한 것도 없었다. 늦어도 팔월 안에는 날짜를 확정하거나 자리를 내주어야 했다. 루시앙은 메일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자기 주소도 등록했다.

저녁에는 그가 시험 문제를 풀었다. 지난달 필기는 치르지 못했다. 장례 일을 함께하던 중에 시험 날짜가 지났고, 다음 선발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클레르는 채점하다가 쉬운 문제 하나를 틀린 것을 보고 놀렸다. 그는 일부러 틀렸다고 했다. 그녀가 믿지 않자 왜 틀렸는지 너무 길게 설명해서 더 웃겼다. 웃음이 멈춘 뒤에도 클레르는 책을 덮지 않았다.

"한 장 더 해?"

그가 물었다.

클레르는 책장을 한 장 넘겨 그에게 밀어 주었다.

# 제22장 빠진 줄

5월 14일 월요일 — 클레르

수간호사는 환자 자료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확인해 주었다. 그래도 내부 인력 운영표가 단체의 문서에 붙어 있는 것은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클레르는 자기 이름이 들어 있던 표의 윗부분을 보았다. 삼월에 집으로 가져갔던 출력물과 같은 페이지였다.

"제가 보낸 건 아닙니다."

그녀가 말했다. 누가 그 표를 보냈는지는 루시앙에게 물어봐야 했다. 자신이 파일을 보내지 않았다는 것만은 분명했다.

퇴근한 뒤 그에게 전화했다. 그는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고는 삼월에 탁자에 있던 표를 찍어 보냈다고 했다. 사람들의 이름을 가리고 숫자만 쓰게 했다고 했다.

"내가 그러라고 했어?"

"아니."

"그때 물었잖아. 자료 어디서 났냐고."

"대기 지표는 공개된 거였어."

클레르는 입을 다물었다. 그 말은 두 달 전에도 맞았고 지금도 맞았다. 그녀가 이번에 묻는 자료는 그것이 아니었다.

"내 가방에서 나온 종이가 하나 더 있었잖아."

"탁자에 있었어."

"그게 중요해?"

"아니. 그건 안 중요해."

잠시 뒤 그가 다시 말했다.

"병원에서 그 인원으로 버티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했어. 환자 정보는 없고. 당신한테 불이익이 갈 줄은…… 그럴 거라고 생각 안 했어."

클레르는 통화를 끊지 않고 끝까지 들었다. 그러고는 조직에서 쓰는 파일과 보낸 경위를 달라고 했다. 병원에 자신이 아는 만큼 설명해야 했다. 루시앙은 직접 가서 말하겠다고 했다.

"내 직장에는 내가 말할게. 네가 한 일을 정확하게 보내줘."

그녀가 말했다.

밤에 그는 전송 날짜와 수신처를 보냈다. 클레르는 그가 자기 대신 해명하겠다는 말보다 그 자료가 필요했다. 그녀는 내부 자료를 집에 가져가 둔 경위까지 적었다. 상사가 루시앙의 이름을 아는 것은 싫었지만, 누가 보냈는지 모른다고 쓰지는 않았다.

집에 돌아오자 루시앙이 밥을 해놓았다. 그녀는 혼자 먹겠다고 했다. 그는 접시를 놓고 물러났다. 클레르는 한참 뒤 찬 음식을 먹었다. 남은 것을 버리지 않고 용기에 담아 냉장고에 넣었다. 그가 아직 먹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 * *

5월 16일 수요일 — 루시앙

에티엔이 회의실에서 나올 때 루시앙은 문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정리된 사월 십이 일 기록을 손에 들고 있었다. 처음에는 자기 중계 시각이 맞는지 보려고 읽었다. 스물세 시 오 분의 얀 보고가 없었다. 그 뒤의 항목은 남아 있었다.

"이건 왜 빠졌습니까?"

루시앙이 물었다. 에티엔은 종이를 받아보고 어느 부분인지 다시 물었다. 루시앙은 경고 내용을 말했다. 회랑 쪽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알려달라던 것이라고 했다.

"현장 확인이 끝난 지침만 묶은 겁니다."

"보고잖아요. 확인 끝나기 전에도 있었던 보고인데."

에티엔은 복도에서 이야기할 일이 아니라며 빈 방으로 들어갔다. 루시앙도 따라갔다. 문은 닫지 않았다.

에티엔은 십육 일 정돈 때 레아가 중복과 확인되지 않은 항목을 추렸다고 했다. 루시앙은 그 회의에 없었다. 정리된 기록을 지금 처음 자세히 읽고 있었다.

"우리가 위험하다고 알았다는 식으로 가져다 쓸 겁니다."

에티엔이 말했다.

"알기는 했잖아요."

말하고 나서 루시앙은 자기 목소리가 커진 것을 알았다. 에티엔은 앉으라고 했지만 그는 서 있었다.

"어느 정도였는지는 몰랐죠. 경찰이 길을 막은 상태에서 우리에게 모든 판단을 돌리게 둘 겁니까?"

"경찰이 길을 막았다는 걸 빼자는 게 아니에요. 얀 보고가 왜 없어졌느냐고요."

에티엔은 종이를 내려다보았다. 루시앙은 더 말하지 않았다. 그때 자기가 무엇을 했느냐는 질문이 돌아올까 봐서였다. 얀의 말 뒤에 보낸 자기 응답이 어디에 남아 있는지 떠올렸다.

"원본은 어디 있어요?"

"자료 담당에게 확인해요. 이걸 지금 밖에 돌리지는 말고."

에티엔은 종이를 돌려주었다. 루시앙은 레아에게 원본을 보고 싶다고 메시지를 보냈다. 답은 자료 정리 중이라는 것이었다. 그는 내일 다시 묻겠다고 쓰지 않았다.

집으로 가기 전에 클레르에게 전화를 걸었다. 병원에서 자료를 받았는지 물었다. 그녀는 받았다고 했다. 추가로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해달라고 했다. 방금 에티엔에게 물은 일은 말하지 않았다.

* * *

5월 18일 금요일 — 클레르

루시앙은 다음 주 야간 모임 두 번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고 했다. 클레르는 말만 해놓은 것인지 묻고 싶었다. 그가 먼저 보낸 답장을 보여주었다. 레아는 대체 인원을 구하겠다고 했고, 토요일 오전까지도 빼야 하느냐고 물었다. 그는 그렇다고 답했다.

"당신 때문에라고는 안 했어."

그가 말했다.

클레르는 화면을 돌려주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으면, 좀 더 쉬면 안 돼?"

"계속?"

"응. 지금 맡은 거 다."

루시앙은 전화기를 뒤집었다가 다시 바로 놓았다.

"내가 다 놓으면 이제 오지 말라고 할까 봐 싫은 것도 있어."

"그런다고?"

"아니. 그런다는 말이 아니라."

그는 한쪽 손으로 얼굴을 문질렀다.

"여기서도 잘못했고, 거기서도 사람들 기다리게 하고. 그래도 가면 내가 할 줄 아는 일이 있으니까."

클레르는 더 말하지 않았다. 그가 자기 없이도 돌아갈 모임을 말하는 동안 그녀는 그곳에서 전화를 받고 의자를 나르던 그를 떠올렸다. 그 모습까지 싫어할 수는 없었다.

"그럼 두 번은 정말 비워."

"토요일도."

두 사람은 집에 있기로 했다. 무엇을 고쳐놓겠다는 계획도 세우지 않았다.

마르타의 작은 용기가 찬장 뒤에 있었다. 클레르는 꺼냈다가 다시 넣으려 했다. 루시앙은 한나에게 가져갈 것과 아직 두고 싶은 것을 나누면 어떻겠느냐고 했다. 그녀는 당장 가져가지 않아도 되냐고 물었다.

"물어보자."

그는 그 자리에서 전화기를 내밀었다. 클레르는 한나에게 용기가 있다고 말했다. 한나는 그것이 자기 집에서 가져간 것이라며 계속 써도 된다고 했다. 뚜껑은 다른 통의 것일 테니 잘 안 맞을 거라고도 했다. 두 사람은 정말로 닫히지 않는 뚜껑을 누르다가 웃었다.

클레르는 통 안에 남은 고무줄을 꺼내 서랍에 넣었다. 루시앙이 뚜껑과 통을 따로 씻었다. 그날은 그 일을 끝내고 잠깐 산책했다. 마르타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은 시간도 있었다. 빵집 앞에서는 다음 날 먹을 것을 골랐고, 오래된 영화가 다시 걸린 극장에서는 상영 시간을 확인했다.

집에 돌아와 그는 그녀에게 입을 맞췄다. 클레르는 피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한동안 현관에 서 있었다. 신발을 벗고 들어가자 그녀가 먼저 그의 손을 잡았다.

다음 날 아침 루시앙은 모임에 가는 대신 식탁에서 시험 책을 읽었다. 클레르는 맞은편에서 한나에게 보낼 물건 목록을 고쳤다. 목록 맨 아래에 '통은 여기'라고 썼다.

# 제23장 남은 사람들의 일

5월 20일 일요일, 오후 — 카림

르필의 기자 카림 벤살렘은 편집장에게 빈칸이 있는 표를 내밀었다. 정부가 발표한 시간과 목격자가 말한 시간이 같은 칸에 들어가지 않았다. 편집장은 맨 위에 놓인 마르타 사진을 옆으로 밀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 아는 게 뭔데?”

카림은 경찰이 밝힌 공식 구조 요청 시각을 짚었다. 그보다 앞서 신고했다는 사람이 있었다. 전화를 했다는 기억만으로 접수가 됐다고 쓸 수는 없었다. 그가 통화 내역을 받기로 했다고 하자 편집장은 언제 받느냐고 물었다.

“수요일에 다시 연락하기로 했어요.”

“그건 받는 날이 아니지.”

카림은 자기 자리로 돌아가 수요일 표시를 지웠다. 전화하기로 한 날짜는 다른 칸으로 옮겼다. 편집장이 미워서 종이에 눌러쓴 자국이 뒷장에까지 남았다.

메시지가 왔다. 영상을 갖고 있다는 사람이었다. 카림은 곧바로 전화했다. 상대는 이미 인터넷에 올라온 화면을 더 선명하게 만들 수 있다고 했다. 촬영한 사람이 누구냐고 묻자 전화를 끊었다.

그는 구급 담당자에게 다시 전화했다. 담당자는 근무표를 확인해 줄 수는 있지만 통화 내용을 마음대로 내줄 수는 없다고 했다. 정식 요청을 보내 달라고 했다. 카림은 같은 요청을 지난주에도 보냈다고 말했다. 상대는 자기 부서가 아니라 정보 공개 담당에게 도착했을 수 있다고 했다.

“어디로 보내면 당신이 읽습니까?”

그가 물었다. 상대가 이름과 주소를 불러 주었다. 카림은 받아 적고 방금 한 말이 날카로웠다고 사과했다. 전화를 끊기 직전

상대가 먼저 신고 번호의 마지막 자리를 확인해 달라고 했다. 카림의 메모에는 한 자리가 빠져 있었다.

* * *

5월 23일 수요일, 오전 — 카림

시 보관소의 직원은 회랑 도면을 잘못 가져온 것이 아니라고 했다. 카림이 가져온 준공 소식과 지금 펼친 서류는 다른 구간을 가리켰다. 삼월에 완성한 것은 북측 보행로였고, 팔 년 전 진단에서 문제가 된 것은 회랑 안 조명과 배수였다.

카림은 취재 메모에서 '보수 안 된 통로로 우회시킴'에 줄을 그었다. 누가 우회시켰다는 증언도 아직 없었다. 직원은 그가 긋는 줄을 보다가 도면 두 장을 겹쳐 주었다. 위치가 겹치는 것처럼 보였던 곳이 종이를 빛에 비추니 달랐다.

"이것도 복사해 주세요."

"안 쓸 거라면서요."

"다른 데가 고쳐졌다는 것도 필요해요."

복사비 영수증을 받아 가방에 넣었다. 기다리는 동안 편집장에게 전화가 왔다. 저녁 회의 전에 제목 하나라도 보내라는 말이었다. 카림은 제목을 보내지 않고 서로 다른 두 구간의 이름을 보냈다. 잠시 뒤 물음표 하나가 돌아왔다.

* * *

5월 28일 월요일, 오전 — 카림

소방청 담당자는 통합 전환 이력을 보여 주되 촬영은 막았다. 공개할 수 있는 이력 옆에 조사 중인 개별 접수 내용이 떠 있었다. 카림은 날짜를 받아 적고 정식 사본을 요청할 곳을 물었다.

"빈 시간이 있으면 그때 아무도 안 받았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받았다는 겁니까?"

담당자가 의자를 당겼다. 기관 사이의 접속 흔적과 사건을 등록한 시각은 다른 항목이었다. 카림은 한 칸으로 그려 놓은 표를 둘로 나누었다. 두 칸 모두 비어 있었다. 각각의 사본을 받을 담당자 이름부터 적었다.

밖에 나오자 점심시간이었다. 포장 가게 앞에 줄이 길었다. 그는 줄 끝에서 구급 담당자에게 다시 전화했다. 이번에는 번호를 끝까지 불렀다.

* * *

5월 28일 월요일, 오후

마르셀은 법률상담소의 복사기 앞에서 서류 순서를 맞추고 있었다. 한나는 그를 먼저 알아보고 인사했다. 클레르는 잠시 뒤에 들어가 둘 사이에 의자를 하나 더 놓았다.

책상 위에는 공동 민사청구의 위임서가 있었다. 조사 자료를 법원 절차로 요구하려는 것이라고 담당 변호사가 설명했다. 국가기관과 시의 기록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청구를 내일 접수한다고 당장 공개되는 것도 아니라고 했다. 자료마다 범위를 다투게 될 거라고 했다.

"신문에 아들 이름을 싣는 거하고 이것도 다른 거죠?" 마르셀이 물었다.

변호사는 그렇다고 답했다. 소송에 참여하는 것과 정당의 주장을 지지하는 것은 같지 않으며, 지금 쓰는 위임장에도 그런 내용은 없다고 했다. 마르셀은 마지막 장을 다시 읽었다.

한나는 수신처에 자기 주소를 적었다. 클레르의 주소를 적으면 일이 덜 번거로울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었다. 적다가 멈추고 클레르를 보았다.

"나한테 와야겠죠?"

"네. 필요한 건 제가 같이 볼게요."

마르셀은 니콜라의 이름을 적고 생년월일을 확인했다. 펜을 놓은 뒤 지갑에서 작은 사진을 꺼냈다. 자전거 앞에 서 있는 청년이었다.

사진을 달라는 사람은 없었다. 그는 한나에게만 잠깐 보여 주었다. 한나는 웃는 얼굴이 아버지와 닮았다고 말했다.

"일할 때 찍은 거예요. 어디서나 기름이 묻어 있어."

그는 사진을 다시 지갑에 넣었다. 위임서와는 함께 내지 않았다.

밖에서 클레르는 얀에게 받은 봉투를 한나에게 보여 주었다. 사임서와 짧은 개인 편지가 들어 있었다. 그가 반대했던 일들을 직접 적어 보냈다. 사진을 대표 이미지로 정할 때도 모든 유족에게 다시 물어야 한다고 했단다. 그때의 판단이 옳았다는 증명이 되려고 쓴 편지처럼 읽히는 부분도 있었다. 클레르는 그 부분을 두 번 읽었다.

"누가 어느 회의에서 뭐라고 했는지는 아직 몰라요."

한나가 말했다.

"여기 내 서명이 없는 건 알아요."

그녀는 사월 십칠 일 발주서를 내일 제출할 서류와 따로 챙겼다.

* * *

5월 30일 수요일 — 가브리엘

가브리엘의 앞에는 표결 장치가 없었다. 그가 앉은 자리는 정부 측 설명석이었다. 의원이 질문하면 마이크를 켜고 답한 뒤 다시 꺼야 했다. 제십사조 확장안을 묻는 질문은 대부분 적용 대상에 관한 것이었다. 비공개 자료라는 것만으로 처벌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라고 답했다. 조문이 정한 전달 행위와 고의를 따로 입증해야 했다. 자료를 넘기는 줄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 내용이 공공의 안전에 구체적인 위해를 줄 수 있음을 알면서 전달했는지도 입증해야 했다.

"그런데 평온을 해칠 수 있는 자료는 어디까지입니까?"

한 의원이 물었다.

그는 그 표현을 좁혀야 한다고 답했다. 초안에 붙인 유보 의견에도 같은 말을 썼다. 이미 발생한 사고의 경위를 확인하는 자료와 앞으로 실행할 보안 조치를 드러내는 자료를 한꺼번에 취급하면, 판단을 뒤의 분류 고시에 넘기게 된다고 했다.

위원장은 의견을 기록하겠다고 말했다. 수정안은 그가 요청한 만큼 좁아지지 않았다. 정해진 표결이 시작되자 가브리엘은 마이크에서 손을 떼었다. 의원들의 표가 집계되는 동안 법률관이 그의 옆에서 서류를 정리했다. 확장안은 가결되었다.

복도에서 담당 차관이 수고했다고 했다. 다음 고시 초안을 오늘 안에 보낼 테니 법에서 허용한 범위를 분명하게 해달라고 했다. 가브리엘은 유보 의견을 다시 건넸다. 차관은 안다며 받았다. 그러나 검토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가브리엘은 자리로 돌아가 다음 일정을 열었다. 모호한 문장을 실제 자료에 대입하는 일이 남아 있었다. 그는 그 일을 맡겠다고 답했다. 자신이 하면 너무 넓게 적용되는 것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 제24장 대표하는 사람

6월 2일 토요일, 오전 — 가브리엘

분류 고시에는 서명할 칸이 두 종류였다. 가브리엘의 이름은 법률검토란에 들어갔다. 발령란은 비어 있었다. 소관 장관들이 결재한 뒤에야 고시가 나갈 수 있었다.

법률관은 참사 관련 내부 교신 기록을 일괄 분류하는 항목에 표시해 두었다. 조직이 보유한 현장 기록도 포함되는 범위였다. 가브리엘도 전날 같은 곳에서 오래 멈췄었다. 기록의 이름으로 묶으면 조사에 필요한 과거 사실과 아직 유효한 보안 정보가 같은 칸에 들어갔다.

"다시 돌려보내면 오늘 발령은 어렵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가브리엘은 목록을 다시 나누어 오라고 말할 수 있었다. 대신 붙임에 개별 수사에서 자료의 내용과 전달 목적을 따로 확인하라는 문장을 넣었다. 고시가 법률의 요건을 줄이거나 새 처벌을 만들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목록은 이대로 보냅니까?"

법률관이 물었다.

"예. 유보 의견을 함께 붙여 주세요."

그는 법률검토란에 서명했다. 넓게 묶인 목록이 실제 사람에게 적용될 때 자신이 붙인 문장도 읽힐 것이라고 믿었다. 법률관은 본문과 붙임을 같은 묶음으로 접수했다.

오후 협상에 들어가기 전에 발령 결재가 끝났다는 연락이 왔다. 적용은 닷새부터였다. 가브리엘은 수신함에 보관하고 유족 대표라고 잘못 적힌 회의 참석자 명단을 펼쳤다.

* * *

6월 2일 토요일, 오후 — 가브리엘

에티엔이 가져온 책자 표지에는 마르타의 이름이 있었다. 표지 아래에 적힌 단체들의 이름을 가브리엘은 먼저 읽었다. 지난달 공동성명에 있던 노동조합 하나가 빠져 있었다. 그는 참석자 명단에 그 단체의 자리가 남아 있는지 확인했다. 없었다.

에티엔은 유족과 시민들이 조속한 해결을 원한다고 말했다. 가브리엘은 책자를 덮었다.

"유족을 대리하는 위임도 받았습니까?"

"저희가 유족 민사소송을 대리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에티엔의 대답은 빨랐다. 그는 자신들이 조직한 행진과 지역 모임을 대표한다고 말했다. 주거 협의체에 참여할 자격을 말하면서 그 숫자를 썼다. 가브리엘은 회의록의 참석 자격을 '유족 대표'에서 '단체 대표'로 고쳐 달라고 했다.

내무장관 카셀은 법률상 구별에는 이견이 없다고 했다. 그러고는 주거 개선안을 어느 범위까지 합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에티엔은 별도 조사기구 요구를 계속 협상 조건으로 걸어 둘 필요는 없다는 말을 꺼냈다. 오늘 철회한다는 말은 아니었다. 얻을 것이 분명하면 다음 회의에 의결을 받아 오겠다고 했다.

가브리엘은 한나를 만난 적이 없었다. 딸이 들려준 말과 이름만 알았다. 그 이름이 책자 안에 있는데도 이 방에서 답할 사람은 없었다. 그는 상대에게 유족의 요구까지 철회할 권한은 없다는 점을 문안에 명시하겠다고 말했다.

에티엔은 동의했다. 자기 단체의 요구만 정리하면 된다고 했다.

카셀은 협의체 위원 자리로 넘어갔다. 가브리엘이 추천과 위촉은 별도 절차라고 문구를 고치자 에티엔은 동의했다. 대신 주거 상담만 맡겨서는 안 된다고 했다. 예산 배분을 논의할 때도 방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조사기구를 요구하던 이유가 예산은 아니었을 텐데요."

가브리엘이 말했다.

에티엔은 책자에서 상담받은 세입자들의 건물 주소를 펼쳤다.

"이 사람들한테 다음 달에도 거리에 나오라고만 할 순 없습니다."

"사고의 경위를 확인하는 일을 대신할 말은 아니고요."

카셀은 법적 조사는 별도라고 끊었다. 오늘은 정치적 요구를 합의 가능한 항목으로 나누는 자리라고 했다. 가브리엘은 아침에 붙인 유보 의견을 떠올렸다. 그도 목록은 통과시키고 개별 판단을 뒤로 남겨 두었다.

에티엔은 이미 한 노조가 빠졌다며, 얻는 것 없이 돌아가면 다음에는 더 적은 단체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카셀은 그 숫자를 다시 묻지 않았다.

"다음 회의 전에 의결을 가져오겠습니다."

가브리엘은 회의록의 '철회' 앞에 '의결 후 별도 확인'이 남아 있는지 보고 확인 서명했다. 카셀이 서류를 가져간 뒤 자기 수첩에 '진상 요구 = 유동 자산'이라고 썼다. 에티엔의 말을 옮긴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방금 본 거래를 그렇게 이해한 것이었다. 제출할 회의록에는 넣지 않았다.

* * *

6월 2일 토요일, 저녁 — 카림

새벽전선 사무소에서는 아직 행사 상자를 옮기고 있었다. 카림이 명함을 내밀자 레아는 팔에 걸친 천을 먼저 내려놓았다. 그는 사고 당일 안내 기록을 볼 수 있느냐고 물었다. 정리된 대외 설명만 줄 수 있다는 답이 돌아왔다.

"정리하기 전 것은요?"

"개인 번호가 섞여 있어요."

"번호를 가려도 돼요. 어떤 순서로 안내가 갔는지 확인하려는 겁니다."

레아는 담당자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카림은 오늘 승인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녀는 그의 명함을 책상 위에 놓았다.

"질문을 보내주세요."

그는 이미 보낸 메일을 보여 주었다. 레아가 제목을 읽고 다른 주소를 적어 줬다. 카림은 그녀에게 지금 이 주소로 보내겠다고 했다. 그녀가 받았다고 확인할 때까지 복도에서 기다렸다.

나오면서 그는 마르타 이름이 적힌 행사용 상자를 보았다. 이번에는 얼굴이 없었다. 계단에서 편집장에게 전화해 조직의 원자료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편집장은 알겠다고 한 뒤 그가 미뤄 둔 다른 기사의 마감부터 물었다.

# 제25장 들을 수 있는 말

6월 8일 금요일, 저녁

한나의 원고에는 작은 사과 과자를 굽는 이야기가 있었다. 가운데가 익기 전에 가장자리가 타서, 마르타가 사진을 보내 올 때마다 둘이 두께를 두고 다투었다는 내용이었다. 무대 담당자가 그 부분에 연필로 괄호를 쳤다.

"앞의 인사까지 하면 구십 초를 넘습니다."

한나는 인사를 빼겠다고 했다. 담당자는 방송 시작 때 유족 인사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클레르는 옆에 붙은 진행표를 보았다. 에티엔에게는 스물두 분이 배정되어 있었다.

"그쪽에서 일 분만 줄이면 안 돼요?"

클레르가 물었다. 담당자는 자신이 바꿀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고 했다. 한나는 원고를 가져왔다. 인사를 한 문장으로 줄이고 과자 이야기를 남겼다.

무대에 올라간 한나가 종이를 펴자 객석이 조용해졌다. 마르타가 사과를 더 넣어 달라는 엄마 말을 싫어했다는 대목에서 앞줄의 누군가가 작게 웃었다. 한나도 잠깐 웃었다. 그러고는 딸이 빵집을 얻지 못한 채 견적서를 계속 가지고 다녔다고 말했다.

화면 옆 숫자가 바뀌었다. 진행자가 몸을 움직였다. 한나는 남은 종이를 보았고 마지막 문장을 읽지 못한 채 고개를 들었다. 박수가 먼저 나왔다. 클레르는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 내려오는 계단으로 갔다.

에티엔이 말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마르타의 목소리가 나왔다.

'여러분, 이 도시는 날씨가 몹시 흐립니다.'

클레르가 멈췄다. 컵을 쓰지 말라던 앞의 다툼도, 엄마에게 햇볕을 보내겠다는 뒷말도 없었다. 화면에는 아우레몽의 닫힌 거리와 경찰이 서 있는 사진들이 지나갔다. 가상의 카페르나를 소개하던 장난이 이 도시를 두고 한 말처럼 들렸다.

한나가 클레르의 팔을 잡았다.

"이거 너한테 보낸 거잖아."

"네."

클레르는 루시앙을 찾았다. 그는 음향 담당자 옆에 서 있었다. 그녀를 보고 그쪽에서 나왔다.

"보냈어?"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사월 말에. 자료함에만—"

클레르는 그의 말을 기다렸다. 루시앙은 시선을 무대 쪽으로 돌렸다. 뒤에서는 마르타가 어떤 도시를 원했는지 설명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틀기 전에 나한테 확인하겠다고 했어."

"엄마한테는?"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클레르는 음향 담당자에게 그 음성을 다시 틀지 말라고 했다. 담당자는 진행자의 신호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루시앙이 그제야 다가가 같은 말을 했다. 다음 순서의 영상 목록에서 파일 하나가 빠졌다.

한나는 끝내 읽지 못한 종이를 접었다. 클레르가 대신 들어 주려 하자 말했다.

"내가 들게."

두 사람은 복도로 나와 빈 의자에 앉았다. 안에서 박수가 다시 났다. 한나는 사과 과자가 적힌 부분을 손으로 폈다. 클레르는 그 부분부터 읽어 달라고 했다.

* * *

6월 8일 금요일, 밤 — 클레르

한나는 끝내 읽지 못한 문장부터 읽었다. 마르타가 가게를 열면 어머니에게도 값을 받겠다고 했다는 이야기였다. 가족이 공짜로 먹기 시작하면 망한다는 말을 듣고 한나가 그럼 다른 집에서 사 먹겠다고 했단다.

"진짜 그럴 거냐고 두 번을 물었어."

복도 끝에서 누군가 웃으며 지나갔다. 한나는 읽던 종이를 내렸다.

"지금 웃는 소리만 나도 싫어. 나도 웃었으면서."

클레르는 자기 무릎 위에 손을 올렸다. 무슨 말을 하면 또 듣기 좋은 설명이 될 것 같았다. 한나가 먼저 일어나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했다.

레아가 복도로 나왔다. 영상에 문제가 있었다고 들었다며 편집한 파일은 보관하고 다시 쓰지 않겠다고 했다. 클레르는 원음이 누구에게 갔는지 알려 달라고 했다. 레아는 자료함에 접근하는 사람을 모두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그럼 확인해. 먼저 없애지 말고."

"공개를 멈추는 건 요청한 대로 했어요."

"누가 받았는지 알고 싶다고."

클레르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레아가 뒤를 보았다. 문 앞에서 있던 자원봉사자가 안으로 들어갔다. 클레르는 따라가서 그에게도 말하고 싶었다. 방금 재생된 것은 도시를 고발한 유언이 아니라고. 그때 한나가 돌아왔다.

"가자."

클레르는 가방을 들었다. 레아에게 파일의 전달 내역을 보내 달라고 다시 말했다. 자신의 주소로 보내라고 했다.

한나를 데려다주고 돌아오는 길에 루시앙이 그저 갖고 있으려던 것이라고 말했다. 클레르는 차창을 닫았다. 바람 때문에 마지막 단어가 들리지 않았다.

"뭐라고?"

"이렇게 쓸 줄 알았다는 건 아니야."

"보내지 말라고 했잖아."

"알아. 그런데 자료실 안에만 두면—"

"아는데 왜 계속 그 말을 해?"

그는 차를 갓길에 세우려다 버스 정류장인 것을 보고 다음 골목까지 갔다. 클레르는 내리지 않았다. 루시앙이 시동을 끄자 건물 안에서 접시를 포개는 소리가 들렸다.

"내가 보내도 된다고 정했어. 당신이 안 된다고 했는데."

그가 말했다.

클레르는 그 문장을 듣고도 화가 가라앉지 않았다.

"엄마 앞에서 내가 뭘 알았는지 설명해야 했어. 너한테 안 된다고 한 걸 증명해야 했다고."

"내가 말씀드릴게."

"내가 모르는 네 말을 또 기다려야 해?"

그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렸다. 클레르는 주머니에서 전화기를 꺼내 자신이 보낸 파일을 다시 찾았다. 원음과 전송 날짜를 따로 저장했다. 사월 삼십 일 한나에게 보낸 대화에는 그녀가 약속한 말도 남아 있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루시앙이 가방을 들어 주려 했다. 클레르는 가방 끈을 어깨에 올렸다. 문을 열고 들어가 식탁 앞에 앉았다. 한나와 함께 민사소송 담당 변호사에게 보낼 의견서를 다음 날 출력하기로 한 것이 생각났다. 첫 문장에 사진과 음성의 사용 경위를 나눠 적었다. 어디까지가 자기 기억인지 표시하다가, 루시앙에게 날짜 하나를 물었다.

그는 전화기를 찾아 대답했다. 클레르는 그가 말해 준 화면을 자기 눈으로 보고 나서 적었다.

# 제26장 자기 몫의 전달

6월 9일 토요일, 밤 — 클레르

루시앙은 외장 드라이브가 책 뒤의 봉투에 있다고 했다. 클레르가 의견서를 인쇄할 파일을 옮기려 한다고 말했을 때였다.

"내 파일은 두고, 따로 넣으면 돼."

고친 책장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책 두 권을 빼고 봉투를 꺼냈다. 드라이브를 연결하자 날짜를 붙인 폴더들이 보였다. 그중에 사월 십이 일이 있었다.

클레르는 그 이름을 지나쳤다가 돌아왔다. 루시앙은 파일을 옮기는 데 쓰라고 했다. 그녀는 사월 십이 일 폴더를 열었다.

안에는 원고 첫 번째 판과 중계 기록이 있었다. 열 시 오십 분, 집결을 유지한다고 전한 내용이었다. 밖으로 나오겠다고 한 뒤에도 그는 그 일을 하고 있었다. 클레르는 화면의 시각과 자신이 기억하는 약속을 다시 맞춰 보았다.

클레르는 한 장을 끝까지 읽었다. 이것만으로 그날 그가 무엇을 알았는지 다 알 수는 없었다. 그녀가 보지 못한 다른 기록이 있을 것이었다. 루시앙에게 곧바로 물을까 하다가 화면을 닫지 않고 전화기를 들었다. 얀에게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느냐고 보냈다. 얀은 내일 만나자고 답했다.

* * *

6월 10일 일요일 — 클레르

얀은 정돈하기 전의 교신 기록표 사본을 내놓았다. 시각과 발신자, 보고와 조치의 요지가 적혀 있었다. 자기가 보거나 들은 것과 남의 보고는 따로 표시해 두었다.

클레르는 열한 시 오 분에 손가락을 댔다. 회랑 쪽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알려 달라는 경고였다.

"이건 제가 보냈습니다."

얀이 말했다.

"루시앙도 들었어요?"

그는 표를 클레르 쪽으로 조금 더 밀었다.

"그건 이걸로 확인 못 합니다. 모든 말을 옮긴 것도 아니고, 누가 끝까지 들었는지 적어 둔 것도 아니에요."

클레르는 같은 줄을 다시 읽었다. 경고가 없었다는 말은 더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 루시앙이 못 들었다고 하면 무엇을 물어야 할지는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

"신문사에 같이 가도 돼요?"

그녀가 물었다. 얀은 자기가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클레르는 그 드라이브에서 복사한 파일도 가져가겠다고 했다. 두 자료를 하나로 합치지 않았다.

그날 밤 클레르는 루시앙에게 얀의 경고를 물었다. 그는 자기가 들은 것은 유지 지침뿐이라고 했다.

"없었다고 했잖아."

"내가 들은 게 없었다는 뜻이었어."

클레르는 그가 열 시 오십 분까지 중계를 했다는 기록을 보았다고 말했다. 십오 분 뒤에도 같은 채널에 있었는지 확인하겠다고 했다. 루시앙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더 묻지 않고 사본을 가방에 넣었다.

* * *

6월 11일 월요일, 낮 — 클레르

카림은 얀의 표와 클레르가 가져온 파일을 따로 놓았다. 두 사람에게 각각 어디에서 얻었고 어떻게 보관했는지 물었다. 클레르가 친구를 잃었다고 말했을 때도 복사하면서 바꾼 부분이 있는지 묻는 질문은 건너뛰지 않았다.

"조직에 정리 전 기록을 요청해 뒀어요. 그쪽 설명도 받아야 합니다."

그는 유월 이 일 보낸 질문을 화면에 띄웠다. 클레르가 오기 전부터 기다리는 자료였다.

"이걸 가져왔으니 바로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원본 보관자에게 확인하고 대조해야 합니다. 여기서 직접 아는 것부터 말씀해 주세요."

클레르는 열 시 오십 분의 중계와 열한 시 오 분의 경고를 나누어 말했다. 루시앙이 다 알고 있었다고는 쓰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카림이 말했다. 그녀는 연락처를 남겼다. 루시앙의 파일을 넘겼다는 것도 그에게 말해야 했다.

* * *

6월 11일 월요일, 밤 — 클레르

루시앙은 그녀가 르필에 다녀왔다는 말을 듣고 의자를 돌렸다. 손에 들고 있던 식빵을 접시에 내려놓았다.

"내 파일도 줬어?"

"응. 어디서 났는지도 말했어."

루시앙은 접시를 밀어 놓았다.

"그 중계 기록은 내 단말에 남긴 걸 옮겨 둔 거야."

"왜 갖고 있었어?"

"나중에 시간이 다르다고 하면 확인하려고. 내가 정한 말하고 전달받아서 중계한 말은 다르니까."

"원고도?"

"첫 파일부터 같이 뒀어. 일 끝났다고 폴더를 지운 건 아니야."

루시앙은 그녀가 화면을 열어 읽는 일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했다.

"당신이 인쇄하는 데 쓰는 거니까. 나한테 말은 했어야지."

클레르는 가방을 내려놓았다. 집에 오는 동안 준비했던 말이 있었다. 그가 처음부터 사실대로 말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다고. 입 밖에 내면 자기 행동을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다.

"파일 옮기는 데 쓰라고 했지, 기자한테 가져가라고 빌려준 건 아닌 거 알아."

"그럼 왜."

"계속 네 대답만 기다릴 수가 없었어."

루시앙은 자기 것이 아닌 얀의 기록까지 함께 나갔느냐고 물었다. 얀이 직접 주었다고 그녀가 답했다. 그는 레아에게 알렸느냐고 물었다.

"내가 레아 허락을 받아야 해?"

"누구든 자료를 밖에 내면 먼저—"

그는 말을 멈췄다. 클레르는 싱크대 쪽으로 걸어가 물 한 잔을 마셨다. 너무 빨리 마셔 목이 아팠다. 돌아와도 루시앙은 같은 자세였다.

"네가 들은 걸 얀은 못 증명한대."

클레르가 말했다.

"그래서 카림도 확인하겠다고 했어. 내가 안다고 쓴 것도 아니고."

그는 그 말에는 안도한 듯 보였다. 클레르는 그 표정을 잘못 읽고 싶었다. 억울한 사실을 바로잡을 기회가 생겨서 안도하는 것이면 좋았다.

"너도 얘기할 수 있어. 직접."

루시앙은 카림의 이름을 다시 물었다. 그녀는 명함을 식탁에 놓았다. 그가 명함을 뒤집어 보았다. 뒷면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둘은 냉장고에 남은 것을 꺼내 먹었다. 식빵 한 조각이 접시에 남았다. 클레르는 그것을 싸 두려다 누가 먹을지 묻지 않고 봉투 입구를 접었다.

# 제27장 이름과 소지품

6월 12일 화요일

체포한 사람은 클레르의 가방을 열기 전에 영장을 보여주었다. 검찰의 청구로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이었다. 그녀는 제십사조라고 적힌 적용 조항을 두 번 읽었다. 비공개로 분류된 내부 교신을 언론에 전달했다는 혐의가 적혀 있었다. 어제 기자에게 한 설명을 여기서도 하면 되는 것인지부터 생각했다. 담당자는 변호인과 이야기할 수 있다고 했다.

유치원 담장 안에서 아이가 울었다. 그녀는 그 소리가 자기 일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한동안 듣고 있었다. 출근해야 한다고 말하자 연락할 사람의 번호를 적으라고 했다. 병원에는 누구에게 먼저 말해야 할지 몰랐다.

* * *

6월 12일 화요일, 오후 — 클레르

책상 위에 가방의 내용물이 놓였다. 지갑, 열쇠, 접은 영수증, 병원 출입증. 클레르는 출입증을 돌려 달라고 할 뻔했다. 그것이 있어도 오늘 출근할 수 없었다.

직원이 소지품 목록을 읽었다. 클레르는 집 열쇠 한 개가 적힌 줄을 보고 확인했다. 물건을 넣은 봉투가 봉해졌다. 직원이 서명할 곳을 짚자 그녀는 목록을 끝까지 읽고 사인했다.

그다음 질문은 파일에 관한 것이었다. 누가 제공했는지, 언제부터 알고 있었는지. 클레르는 날짜를 대답하다가 멈췄다. 자신이 본 날과 얀이 보관해 온 날이 같은 질문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지금 어떤 날짜를 묻는 거예요?"

담당자가 질문을 다시 읽었다. 그녀는 변호인과 이야기한 뒤 답하겠다고 했다. 방 안의 소리가 작아졌다. 담당자는 시간을 적고 종이를 넘겼다.

면담을 기다리며 그녀는 병원 번호를 외워 썼다. 평소 연락하던 동료 번호의 가운데 두 자리는 끝내 생각나지 않았다. 자신이 오늘 검사실에 오지 않았다는 사실은 벌써 누군가가 알고 있을 것이었다.

"병원에는 오늘 못 간다고 전해 주세요."

그녀가 말했다. 말을 하고 나니 오늘만 빠지는 것처럼 들렸다. 언제 돌아갈 수 있는지 모른다는 말도 해야 했다.

"사유는 제가 설명하고 싶어요. 연락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녀는 적은 번호를 다시 보았다. 누군가 대신 걸어 주기를 기다려야 했다.

변호인이 왔을 때 클레르는 일어나지 못했다. 그가 먼저 이름을 말하고 의자를 끌어 앉았다. 가브리엘이 연락을 도왔다고 했다. 그녀는 아버지가 무엇을 설명했느냐고 물었다.

"지금 말씀은 본인에게 듣겠습니다."

그 말에 클레르는 가방을 찾았다가 빈 옆자리를 보았다. 자료는 자기 손에 없었다. 그녀는 구두로라도 순서를 말하겠다고 했다. 유월 구 일, 십 일, 십일 일. 변호인은 날짜 사이를 띄워 적었다. 한 날짜의 질문이 끝나기 전에 다음으로 가지 않았다.

클레르는 루시앙 이름이 나오면 자꾸 말을 고쳤다. 그가 거짓말했다고 했다가 자신이 아직 확인하는 중이라고 했다. 변호인은 먼저 쓴 말을 지우고 두 번째 것을 적었다.

"제 아버지한테도 제가 말한 대로 전해 주세요."

"전달할 범위는 함께 정하죠."

아버지에게 그대로 전해 달라는 말마저 잘못한 것 같았다. 클레르는 화가 났다. 변호인에게 낸 화가 아니란 것을 설명할 힘은 없었다. 대신 지금 나갈 수 있느냐고 물었다. 그는 오늘 안에 나간다고 약속할 수 없다고 했다.

클레르는 두 손을 의자 아래에 넣었다. 손톱으로 의자 천을 눌렀다. 변호인은 잠깐 기다렸다가 내일 심사에서 어떤 것을 다투게 될지 말했다. 그녀는 듣다가 입을 열었다.

"좀 천천히 해주세요. 처음부터."

* * *

6월 12일 화요일, 밤 — 클레르

밤에 허용된 통화가 연결되었을 때 루시앙이 자기 이름을 먼저 말했다. 클레르는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울 것 같아 입을 다물었다. 그가 어디 아프냐고 물었다. 그녀는 아니라고 했다.

"내일 옷 가져갈게. 무슨 색 있는지 몰라서 둘 다 챙겼어."

그는 그녀의 얇은 가디건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클레르는 회색 것을 달라고 했다. 그가 알겠다고 했을 때 그녀는 잠깐 집에 있는 것 같았다.

"나도 이렇게 될 줄은—"

그가 말을 시작했다. 클레르는 그 이야기는 지금 하지 말자고 했다.

그는 멈췄다. 밥을 먹었는지 물었고, 그녀는 먹었다고 했다. 끊을 시간이 되었을 때 클레르가 먼저 내일 오느냐고 물었다. 그는 간다고 했다.

# 제28장 먼저 돌아온 전화

6월 13일 수요일 — 가브리엘

법원의 첫 심사가 끝났다는 연락은 변호인에게서 왔다. 구금은 계속되었다. 가브리엘은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물었다. 변호인은 검찰의 신청서에 붙은 수사관 보고부터 읽었다. 얀의 언론 접촉을 확인하던 중 클레르의 동행과 자료 전달 정황을 파악했다는 내용이었다.

신청서는 그 자료를 분류 고시의 내부 교신 항목에 넣었다. 비공개로 분류된 자료를 언론에 넘겼으니 공공의 안전에 미칠 위해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원자료는 아직 확보하지 못했고, 클레르가 사본을 가져온 만큼 남은 기록에도 손댈 수 있다는 주장이 뒤따랐다.

"누구에게 지우라고 했다는 겁니까?"

가브리엘이 물었다.

"그런 연락을 제시한 건 아닙니다. 보관자와 전달 범위가 다 확인되지 않았다는 거죠. 법원은 오늘 그 확인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구금을 유지했습니다."

변호인은 신청서에서 자료의 분류와 전달 사실을 짚었다. 그것만으로 고의와 증거를 없앨 위험까지 인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다음 심리에는 보관자가 누구이며 클레르가 실제로 어떤 사본을 넘겼는지부터 나누어 내겠다고 했다. 나머지 근거는 기록을 더 받아봐야 했다. 가브리엘은 더 캐묻지 않았다.

통화를 끊은 뒤 다른 번호를 눌렀다. 심사 부서에 오래 근무했던 동료였다. 이번에는 자료 전달 목적을 먼저 보게 할 수 없겠느냐고 물었다. 일반적인 질문처럼 시작했지만 동료는 누구 사건인지 이미 알고 있었다.

"따님 건은 빨리 올려달라고 해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빨라질 수 있습니까?"

가브리엘이 물었다. 동료는 결과를 바꾼다는 뜻은 아니라며, 다른 사건보다 먼저 검토하게 하는 정도라고 했다.

가브리엘은 잠시 생각해 보겠다고 답했다. 통화를 끊고도 딸에게는 아직 그 일을 말하지 않았다.

* * *

6월 15일 금요일, 오후 — 카림

소위원회에 제출될 부록의 자료 목록에는 국가경비대의 원본 무선교신 기록이 있었다. 카림은 그 이름을 확인하고 담당자에게 본문을 받을 수 있느냐고 물었다. 아직 공표되지 않았다는 답이 돌아왔다.

"목록에 있다고 기사에 써도 됩니까?"

공개된 목록 자체는 인용할 수 있다고 했다. 내용은 줄 수 없었다. 카림은 화면을 닫고 수첩에 두 줄을 남겼다. 국가경비대 원본 있음. 내용 미확인.

클레르가 붙잡혀 있다는 소식을 들은 뒤로 그의 책상에는 쓰지 못한 문장이 더 늘었다. 그녀가 가져온 것은 이미 법률 검토에 넘겨두었다. 얀에게는 사본을 한 번 더 보내 달라고 하지 않았다. 어떤 자료를 갖고 있는지부터 변호인과 상의하라고 말했다.

편집장은 기사에 체포를 먼저 넣자고 했다. 카림은 변호인에게 연락해 확인할 범위와 보도 시점을 물었다. 상대는 당사자의 방어에 관한 내용을 함부로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 카림은 전화기를 내려놓고 편집장에게 말했다.

"우리가 기다린다고 이 사람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서두른다고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언제 쓰자는 건데."

"체포 사실은 확인해서 쓰고, 파일 내용은 더 확인해야죠."

편집장이 책상 끝을 손바닥으로 쳤다. 크게 난 소리에 옆자리 동료가 돌아봤다.

"따로 하자는 말을 처음부터 해."

카림은 자기 화면에서 두 문서를 열었다. 하나의 제목에서 클레르 이름을 지웠다. 다른 문서에는 변호인에게 확인할 질문을 적었다.

* * *

6월 16일 토요일 — 가브리엘

후속 심리에서도 법원은 구금을 유지했다. 원자료의 보관 상태와 전달 범위를 더 확인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가브리엘은 경찰서 로비에서 루시앙을 만났다. 루시앙도 클레르를 빨리 나오게 할 방법을 이야기했다. 조직 성명에 자료를 넘긴 의도가 공공의 확인이었다는 문장을 넣을 수 있다고 했다. 클레르가 그 방향에 동의했다는 답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 아이에게 물었습니까?"

가브리엘이 물었다. 루시앙은 면회에서 말하려고 한다고 했다.

그는 자신이 동료에게 한 통화를 떠올렸다. 딸이 무엇을 원하는지 묻기 전에 먼저 순서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을 찾았었다.

* * *

6월 17일 일요일 — 가브리엘

면회에서 클레르는 두 사람의 말을 모두 듣고 나서 변호인과 상의하겠다고 했다. 공개 성명의 문장도 자기가 읽어야 했고, 아버지의 직함을 써서 순서를 바꾸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나가고 싶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녀가 말했다. 가브리엘은 그 말을 듣기 전까지 딸의 거절이 고집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내가 뭘 했는지부터 말하게 해주세요."

그는 딸에게 더 설명하려다 그만두었다. 면회가 끝난 뒤 동료에게 전화를 걸어 개별 선순위 검토 부탁을 취소했다. 사건 자료는 딸의 변호인을 통해 내겠다고 말했다. 동료는 정식 부탁을 한 것도 아니니 부담 갖지 말라고 했다. 가브리엘은 자기가 그 대답에 다시 기대지 않으려고 통화를 짧게 마쳤다.

# 제29장 대답이 필요한 자리

6월 18일 월요일 — 클레르

변호인은 정돈 전 기록표와 정리본 사본을 겹치지 않게 펼쳤다. 정리본 사본은 전날 얀이 추가로 제공했다. 그는 사임하기 전 조직에서 받은 배포본을 봉투와 함께 보관하고 있었다. 같은 시각의 항목이 한쪽에서 사라져 있었다. 클레르는 이미 얀이 경고를 보냈다는 것을 알았다. 루시앙은 자기가 들은 것은 없다고 말했다. 두 사실 사이에 적어 넣을 답이 아직 없었다.

"이 표로 어디까지 말할 수 있어요?"

그녀가 물었다.

변호인은 사월 십육 일 정돈 지시 사본도 꺼냈다. 경고는 정돈 전 표에 있었고 배포된 정리본에서는 빠졌다. 누가 그 지시를 내렸는지 확인할 자료도 있었다. 그러나 누가 경고를 끝까지 들었는지까지 이 표로 정할 수는 없었다.

클레르는 두 사본에서 손을 떼었다.

"제가 넘긴 것을 따로 적어 주세요."

그녀는 드라이브에서 복사한 파일을 먼저 말했다. 얀의 표는 얀이 직접 가져갔고, 정리본은 어제 그가 변호인에게 준 것이었다. 얀이 보관해 온 원자료까지 자기 손에 있었던 것처럼 적히는 것은 싫었다.

변호인은 보관자와 전달한 사람을 나누어 적었다. 클레르는 자기가 넘긴 사본을 제출하는 데 동의했다. 남은 자료를 그대로 보존하도록 얀과 루시앙에게 요청해 달라고 했다.

"카림에게도 제가 무엇을 확인해 달라고 했는지 물어봐 주세요."

변호인은 그 요청까지 적어 그녀에게 읽어주었다. 클레르는 전달 경위가 자기 설명과 같은지 확인한 뒤 서명했다.

클레르는 루시앙에게 물을 질문을 적었다. 그때도 무전기를 갖고 있었는지. 얀의 목소리를 들었는지. 레아의 답을 들었는지. 그 뒤 자신에게 알리려고 했는지.

왜 마르타를 죽게 했느냐는 문장은 쓰지 않았다. 그 질문 하나로 시작하면 그는 자기가 알지 못했던 것만 이야기할 수 있었다. 클레르는 그가 알고도 한 일을 듣고 싶었다.

* * *

6월 19일 화요일, 저녁 — 가브리엘

법률관은 딸 사건을 맡은 변호인에게 넘길 자료와 부처에 낼 의견을 다른 서류철에 넣었다. 가브리엘이 둘을 같은 탁자에 올리자 그녀가 다시 떼어 놓았다.

"사건 자료는 여기 두시면 안 됩니다."

그는 자기 손을 내려다봤다. 아침부터 물어본 것들을 이 방에서 전부 정리하고 싶었다. 법률관은 딸 사건의 검토 권한이 없었다. 그가 부탁하면 거절하기 어려운 사람일 뿐이었다.

가브리엘은 사건 서류를 자기 가방에 넣었다. 그녀에게 변호인과 직접 연락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법률관은 알겠다고 했다. 그의 수치심을 덜어줄 말은 하지 않았다.

퇴근한 뒤 가브리엘은 차 안에서 동료의 번호를 열었다. 선순위 부탁을 거둔 뒤로도 딸은 안에 있었다. 면회에서 나가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던 목소리가 떠올랐다. 그는 동료 대신 변호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자기 서명이 들어 있는 유월 이 일 검토 문서를 정식 경로로 확보할 필요가 있는지 물었다. 변호인은 이미 요청했고, 원문과 붙임이 함께 오는지도 확인하겠다고 했다. 가브리엘은 별도 사본을 당장 보내겠다는 말을 삼켰다. 요청한 경로를 따르겠다고 답했다.

집에 와서 딸 방에 들어갔다. 짐을 옮긴 뒤 남은 충전기와 낡은 양말이 서랍 한 칸에 있었다. 손댈 것이 없었다. 저녁을 데우며 내일 검토할 초안을 읽었지만 같은 문장을 세 번 읽고도 잘못 끊긴 곳을

찾지 못했다. 법률관에게 내일 아침 첫 문단부터 같이 보자고 메시지를 보냈다.

* * *

6월 20일 수요일, 오전 — 가브리엘

법률관이 일반 기준 검토 초안을 가져왔다. 자료가 비공개였다는 사실만으로 전달 목적과 해악, 증거를 없앨 위험까지 한꺼번에 추정하지 말자는 내용이었다. 사건마다 확인한 근거를 쓰게 하자는 것이었다. 딸에게만 적용되는 문장은 없었다.

그녀는 첫 장을 따로 내밀었다. 가브리엘의 딸이 관련 혐의로 구금되어 있다는 이해관계 고지였다.

"이걸 넣으면 가족 때문에 냈다고 하겠지요."

그가 말했다.

"빼도 그렇습니다."

그녀가 답했다. 가브리엘은 고개를 끄덕였다. 딸 사건의 실무 검토에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문장도 남겼다. 동종 사건에 적용할 기준을 검토해 달라는 요청도 그대로 두었다.

첨부에는 삼월의 조건부 검토와 유월 이 일 분류 고시 검토가 있었다. 차관실에서는 두 사안을 한 문서에 넣으면 별개의 문제까지 번진다고 했다. 가브리엘은 조문 검토에 관한 문서와 전환 경위서를 별도로 접수하되, 서로 참고할 수 있도록 목록을 붙이겠다고 답했다. 서명 경위를 삭제하지는 않았다.

그는 첨부의 수신처와 원문 대조를 이십이 일까지 마치도록 했다. 법률관은 다음 업무일인 이십오 일 정식 접수 일정에 넣었다. 법률관에게도 자신의 자리에서 기다리지 말고 접수되었는지 확인해 달라고 부탁했다.

# 제30장 서로 다른 대답

6월 20일 수요일, 면회실

클레르는 변호사가 넘겨 준 두 사본을 나란히 놓았다. 정돈 전 기록표의 열한 시 오 분에는 경고가 남아 있었다. 정리한 기록에서는 그 줄이 빠져 있었다. 그녀는 같은 날의 같은 채널이 맞는지 다시 확인했다.

"열한 시 오 분에 얀 목소리를 들었어?"

루시앙은 종이를 보았다. 클레르는 그가 고개를 들 때까지 기다렸다.

"들었어."

"레아가 대답한 것도?"

"응."

그녀는 펜을 들었다가 놓았다.

"그때 마르타가 어디 있는지 알았어?"

루시앙은 모른다고 했다. 가게 일을 끝내면 문구점 쪽으로 온다는 것만 알았다고 했다.

"그럼 나한테는 왜 안 보냈어?"

"확인되면 같이 알릴 줄 알았어."

그가 말했다. 클레르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이 표에 모든 말이 적힌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다시 물었느냐고 물었다. 루시앙은 묻지 않았다고 했다. 누가 확인하느냐고 물었더니 그는 레아 쪽에서 판단할 거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당장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대기열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믿었단다.

"누가 네 전화기를 가져간 건 아니잖아."

그는 고개를 숙였다. 맞다고 했다.

"보내려고 쓰기는 했어. 길을 확인하고 같이 보내려고 지웠어."

"피하라는 말까지 확인을 받아야 했어?"

"아니."

그는 그때도 그것을 알았다고 했다.

클레르는 그가 보냈다면 마르타가 그 메시지를 받았을지 알 수 없었다. 자신의 전화도 한참 동안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 그 생각 때문에 화가 줄어들지는 않았다. 그녀는 사본을 한 장 넘겼다.

"나한테는 경고가 없었다고 했어."

루시앙은 부정하지 않았다.

"열흘 전에도 네가 들은 건 없다고 했어."

그도 인정했다. 클레르는 십팔 일 변호인과 정리했던 질문 옆에 펜을 놓았다. 기록만으로 정하지 못한 대답을 지금 그가 하고 있었다.

"그 말은 왜 했어?"

"말하면 당신이……."

그가 멈췄다. 클레르는 그 뒤를 대신 채우지 않았다.

한참 뒤 루시앙이 말했다.

"무서웠어. 당신이 알게 되는 게."

그는 사본의 모서리를 눌렀다.

"그날 내가 뭘 했는지 말하면, 당신은 다른 건……."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었다.

"아무것도 못 볼 것 같았어."

"사진은?"

클레르가 물었다.

그는 얼굴을 들었다. 레아가 연락한 뒤에도 한나에게 묻지 않았다고 했다. 신문에 났으니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말을 꺼냈다가 스스로 멈췄다. 한나는 셋이 같이 나온 사진을 고른 사람이었다. 루시앙도 그 자리에 있었다.

"괜찮지 않은 거 알았어."

그가 말했다.

"그래도 그냥 갔어. 이번 주만 지나고 수습하면 될 줄 알고."

유리 아래 좁은 틈으로 클레르가 종이를 다시 당겼다. 음성을 보낸 것에 대해서는 이미 들었다. 그때도 자료만 모으는 것이라고 했었다. 그녀는 같은 말이 다른 날의 다른 행동을 지나 여기까지 온 것을 보았다.

루시앙이 밥은 먹느냐고 물었다. 클레르는 아침에 먹었다고 답했다. 무엇을 먹었느냐고 묻지는 않았다. 예전 같으면 그녀가 먼저 말했을 것이다.

* * *

6월 20일 수요일, 저녁 — 레아

에티엔이 돌아오자 사무실 안쪽에서 박수가 났다. 레아는 집행부 의결 결과를 전하는 종이를 받고 나서야 따라 손뼉을 쳤다. 주거 협의체의 열두 자리는 위촉 절차를 남겨 두고 합의에 들어갔다. 단체가 요구하던 별도 조사기구는 협상 요구에서 빠졌다.

상담을 맡던 여자가 문장을 읽다가 종이를 내려놓았다.

"그럼 저번에 서명하러 온 사람들한테는 뭐라고 해요?"

에티엔은 국가 조사와 가족 소송은 계속된다고 했다. 자기들이 그것을 철회할 권한도 없다고 했다.

"우리 요구 얘기예요."

여자가 말했다.

"주거 예산에 들어가면 실제로 바꿀 수 있습니다. 밖에서 계속 같은 요구를 할 때보다."

"그걸 물어보고 받았어야죠."

에티엔은 의결을 거쳤다고 답했다. 여자는 그 회의에 온 사람 말고 서명한 사람들에게 물었느냐고 다시 물었다. 방 안에서 박수가 완전히 끊겼다.

레아는 공지문을 열었다. 에티엔이 첫 줄을 불러 주었다. 시민의 힘으로 제도의 문을 열었다. 레아는 적지 않았다.

"철회한 것도 같이 써야 해요."

그가 화면을 보았다.

"조사 포기라고 쓰면 안 됩니다."

"별도 조사기구 요구를 내렸다고 쓸게요."

에티엔은 잠깐 기다리게 하더니 앞 문장 다음에 넣으라고 했다. 국가 조사와 민사 절차가 별개라는 것도 함께 쓰라고 했다. 상담 담당자가 그 순서에는 고개를 저었지만 더 말하지 않았다.

레아는 퇴근하기 전에 공지문을 올렸다. 첫 답장은 축하한다는 말이었다. 두 번째는 앞으로 상담을 어디서 받느냐는 질문이었다. 한참 뒤 서명 철회가 가능한지 묻는 글이 달렸다.

에티엔은 내일부터 협의체 준비 인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루시앙에게도 시간을 물어보라고 했다. 레아는 연락처를 열었다. 그가 오늘 클레르 면회에 간다는 것이 생각났다. 일정만 묻는 짧은 문장을 써서 보냈다.

답은 바로 오지 않았다.

# 제31장 돌아갈 집

6월 23일 토요일 — 클레르

클레르는 변호인이 두고 간 종이의 뒷면에 날짜를 적었다. 처음에는 루시앙에게 물을 것들을 쓰려고 했다. 쓰다 보니 자기 이름이 들어가는 날도 있었다.

삼월 십삼 일. 자기 손에 든 홍보지는 고쳤지만 다른 곳의 것은 그대로 쓰인다는 답을 읽었다. 그래도 십팔 일에는 배포하러 갔다. 사월 십칠 일. 한나에게 묻지 않은 포스터 상자를 닫았다. 나이를 고치면 나아질 것처럼 말했다.

그녀는 그 아래에 '나도 같았다'라고 썼다가 지웠다. 같은 일을 한 것은 아니었다. 루시앙이 들은 경고를 자신도 들었다고 만들 수는 없었다.

그녀는 한나가 고른 사진과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도 상자를 계속 접었다고 다시 썼다. 누가 허락받았는지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 그 문장은 짧았고, 뒤에 덧붙일 변명도 많았다. 그녀는 쓰지 않았다.

저녁 식사가 들어왔다. 옆자리 여자가 남길 빵이 있으면 달라고 했다. 클레르는 자기 몫을 반으로 나눴다. 마르타가 생각났지만 그 여자에게 말하지 않았다.

밤에는 집에 돌아가면 무엇을 먼저 할지 생각했다. 씻고 싶었다. 자기 침대에서 자고 싶었다. 루시앙이 집에 있을지 궁금했다. 그가 없는 방을 원한다고 아직 말할 수는 없었다. 그 사실 때문에 낮에 쓴 문장을 지우지는 않았다.

* * *

6월 25일 월요일, 오전 — 가브리엘

접수 담당자는 서명한 본문보다 붙임의 수를 먼저 셌다. 가브리엘은 자기 자리에서 기다렸다. 일반 기준 의견과 전환 경위서는 별도의 접수번호를 받았다. 두 문서의 목록에 자신의 삼월 검토와 유월 고시 검토가 모두 있는지 확인했다.

차관실에서 전화가 왔다. 굳이 기록을 한 묶음으로 찾아볼 수 있게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말이었다. 가브리엘은 관련된 검토 경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딸 사건에 관한 질문에는 담당 변호인을 통하겠다고 했다.

"가족 일을 부처 전체의 검토 문제로 만들지 마십시오."

상대가 말했다.

가브리엘은 책상 위의 사본을 보았다. 가족 일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빨리 냈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렇다고 지금 낸 의견의 적용 대상을 딸로 줄이고 싶지도 않았다.

"계기가 딸인 것은 밝혔습니다."

그가 말했다. 상대는 그 문장을 검토하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

가브리엘은 접수 확인을 법률관에게 남기고 법원으로 갔다. 늦지 않으려고 평소보다 빨리 걸었다.

* * *

같은 날, 법원 — 클레르

법원에서 나온 변호인은 서류 두 종류를 나누어 설명했다. 검찰이 구속취소를 청구했고 법원이 석방을 결정했다. 불기소 처분은 검찰의 별도 문서였다.

변호인은 십팔 일 클레르가 서명한 전달 경위서와 얀과 루시앙이 내준 대조용 사본을 펼쳤다. 원자료를 계속 보관하고 있다는 두 사람의 확인서도 있었다. 클레르가 건넨 사본의 범위는 확인됐고, 다른 보관자에게 기록을 없애거나 바꾸라고 요구한 정황은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더 붙잡아 둘 구체적인 근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했다.

불기소 문서에서는 카림의 답과 실제 파일을 대조한 부분을 읽어주었다. 카림은 그날 무엇이 전달됐는지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했다. 검찰은 클레르가 비공개 파일을 일부러 넘겼다는 사실은 확인했지만, 공공의 안전에 미칠 구체적인 위해를 알고 전달했다는 근거는 찾지 못했다.

클레르는 설명이 끝나자 오늘 집에 갈 수 있느냐고 다시 물었다.

소지품을 돌려받을 때 봉투에 있던 집 열쇠부터 확인했다. 출입증과 지갑도 있었다. 열쇠가 적힌 줄 옆에 확인 서명을 하고 손안에 쥐었다. 담당자가 봉투도 가져가라고 했다. 클레르는 빈 봉투를 접어 가방에 넣었다.

계단 아래 가브리엘이 있었다. 그는 먼저 서류를 달라고 하지 않았다. 클레르가 내려오자 가방을 받아 들겠다고 했다. 그녀는 가방을 건넸다. 안에는 얇은 옷과 메모한 종이들이 있었다.

차 안에서 가브리엘은 오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클레르는 그것 때문에 나오는 것이냐고 물었다. 그는 아니라고 했다. 변호인이 방금 설명한 자료와 절차에 따라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 왜 냈어요?"

"다음 건에서도 같은 것을 물어보게 하려고."

그는 그 대답을 하고 나서 덧붙였다.

"내가 검토한 경위도 같이 냈다."

클레르는 창밖을 보았다. 자신을 꺼내주었다는 말보다 그 말을 듣기가 조금 나았다. 아버지가 정한 기준이 다음 사람에게 도움이 될지는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집으로 가달라고 했다. 가브리엘은 베르니나 자기 집에 들르자고 하지 않았다.

* * *

6월 25일 월요일, 오후 — 클레르

루시앙은 현관에서 그녀를 안으려다가 멈췄다. 클레르는 먼저 씻겠다고 했다. 욕실에는 새 수건이 놓여 있었다. 자신이 쓰던 것이 어디 있느냐고 묻자 그가 빨아서 서랍에 넣었다고 했다. 그녀는 서랍에서 익숙한 수건을 꺼냈다.

나왔을 때 식탁에는 컵 두 개가 있었다. 커피를 마시고 싶지는 않았다. 루시앙은 물도 있다고 했다. 클레르는 물을 마셨다. 그가 커피를 따르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오히려 불편해 자기 것은 마시라고 했다.

"오늘 나가 있을까?"

그가 물었다.

클레르는 침실을 보았다. 그의 옷이 여전히 한쪽에 걸려 있었다. 그 옷을 치워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이 없어지는 것보다 일이 너무 많다는 느낌이 먼저 들었다. 그러다가 그와 같은 방에서 잠들고 싶은 마음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

"오늘은 있어."

그녀가 말했다. 루시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 다 괜찮아졌다는 뜻은 아니야."

"알아."

"내가 다시 물으면 이미 끝난 얘기라고 하지 마."

그는 그러겠다고 했다. 그녀는 조직에서 연락이 온 것과 자기가 하기로 한 일을 먼저 말해달라고 했다. 대신 전화기를 매일 검사하고 싶지는 않다고 했다.

"봐도 돼. 내가 먼저 보여줄게."

그는 식탁 위로 전화기를 밀었다. 클레르는 손을 뻗지 않았다.

"안 보고 싶다고."

"숨기는 게 없다는 걸 알면—"

그녀가 고개를 저었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또 뭘 확인하는 사람이 되잖아."

루시앙은 컵을 내려놓았다. 그는 답장을 쓰기 전에 약속할 것이 있으면 먼저 말하겠다고 했다. 클레르는 그것을 믿는다고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당장 서로의 짐을 나누지는 않기로 했다.

루시앙은 레아에게 받은 연락을 말했다. 지난주에 협의체 준비를 맡을 시간이 되는지 물어왔고, 아직 답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건 안 할 거야."

클레르는 그가 답장을 쓰는 동안 물을 더 마셨다. 레아는 다른 사람을 알아보겠다고 답했다. 루시앙은 화면을 조금 더 보고 나서 전화기를 내려놓았다.

저녁에는 그녀가 잠들었다. 눈을 떴을 때 창문이 어두워져 있었다. 루시앙은 거실에서 작은 소리로 통화하고 있었다. 그녀가 나온 것을 보고 누구와 통화하는지 말했다. 직장에 내일 출근 시간을 확인하는 중이었다. 클레르는 부엌으로 갔다.

그가 통화를 마친 뒤 달걀을 구울까 하고 물었다. 클레르는 하나만 달라고 했다가 두 개로 고쳤다. 그는 프라이팬을 꺼냈다. 그녀는 자기 접시와 그의 접시를 나란히 놓았다.

달걀이 익을 무렵 루시앙이 불을 줄이고 돌아섰다. 그때 클레르는 한 걸음 다가가 그를 안았다. 그의 손이 등에 닿자 눈을 감았다. 먼저 놓고 의자에 앉았다.

"식겠다."

그녀가 말했다. 루시앙은 달걀을 접시에 옮겼다.

# 제32장 보이지 않는 곳

6월 30일 토요일 — 카림

한나의 공개 편지에는 빵집을 열려던 딸에 관한 말과 사진 사용을 거절한 날짜가 함께 있었다. 카림은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만 표시해 돌려보냈다. 한나는 '딸이 죽은 뒤'라는 문장을 '내 딸이 죽은 뒤'로 바꿔 달라고 했다. 제목이 아니고 자기 편지이니 내 딸이라고 쓰겠다고 했다.

편지는 르필에 게재되었다. 카림은 처음 몇 시간 동안 댓글에 답했다. 읽은 사람이 늘어나는 속도는 점점 느려졌다. 한나는 주소를 보내줘서 고맙다고만 했다. 누구에게 다시 보냈는지는 말하지 않았다.

* * *

7월 3일 화요일, 오전 — 카림

편집장은 부두 쪽 협상이 길어지고 있다며 내일 지면이 줄 수 있다고 했다. 카림은 오늘 공개된 소위원회 부록을 펼쳤다. 기다리던 교신 원문이 들어 있었다. 이틀 전에 확인한 부검 최종 보고서를 옆에 놓고, 스물세 시 오십오 분의 봉쇄 유지와 자정이 지난 공식 구조 요청에 다른 색을 칠했다. 카림은 메모의 '스물네 분을 놓쳐서?'를 지웠다. 스물세 시 오십오 분 옆에는 '왜 유지했나'라고 썼다.

에티엔의 협상에 관한 가브리엘의 메모도 있었다. 문구를 인용하기 전에 누가 한 말인지 물었다. 가브리엘은 자기 해석이며, 상대의 수첩을 베낀 것도 공식 회의록에서 옮긴 것도 아니라고 답했다.

카림은 그 문구를 뺐다. 합의문과 참석 자격 정정 내역을 놓고, 협상에 참석했던 사람에게 어느 요구가 언제 내려갔는지 확인했다.

레아에게는 삭제된 두 항목의 시각을 따로 써서 보냈다. 열한 시 오 분 보고에 관한 답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현장 확인이 끝나지 않은 보고여서 정리본에서 제외한 것입니다.'

카림은 답장에 한 줄을 더 썼다.

'얀이 그 말을 했다는 사실도 부정하시는 겁니까?'

레아는 그 사실을 부정하는 뜻은 아니라고 답했다. 카림은 답장을 정돈 지시 사본 옆에 놓고 얀의 백업과 정리본, 발송 경위를 대조했다.

루시앙에게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것만 답해 달라고 했다. 클레르에게 들은 자백을 그의 답변으로 인용할 수는 없었다.

옆자리 기자가 놓고 간 커피는 식어 있었다. 카림은 한 모금 마시고 원고를 보낼 날짜를 일요일 밤으로 적었다. 그때까지 확인되지 않는 영상과 통신사 자료의 문장은 보류하기로 했다.

* * *

7월 5일 목요일, 오후 — 카림

회랑 모퉁이 빵집의 주인은 영상을 틀기 전에 경찰에 낸 서류부터 꺼냈다. 사월 십삼 일에 보존 요청을 받았고, 다음 날 사월 십이 일 밤 영상을 따로 저장해 제출했다고 했다. 카림이 받는 사본은 그때 보관한 것에서 나온 파일이었다.

"경찰에는 줬는데 기자한테는 안 준 이유를 써야 합니까?"

주인이 물었다.

"누구한테 언제 보관을 부탁받으셨는지 확인하려는 겁니다. 가게 이름은 따로 여쭤볼게요."

주인은 어느 쪽에서 사람이 와도 다시 장사를 해야 하는 사람은 자신이라고 했다. 카림은 그 말을 듣고 기다렸다가 보존 날짜와 카메라 시계의 오차를 확인할 자료를 부탁했다. 공개된 제출 목록에도 같은 영상이 있는지 대조하기로 했다.

화면에서 마르타가 잠깐 멈췄다. 빈 봉투를 가방에 넣는 모습이었다. 표시는 열한 시 십이 분이었다. 그녀는 곧 화면 끝으로 나갔다. 카메라가 보는 것은 문 앞과 모퉁이의 일부뿐이었다.

주인이 재생을 멈췄다.

"여기로 들어갔으니까 안에 있었던 거죠?"

"그 방향으로 간 건 보입니다. 이 화면만으로 그 뒤 위치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

카림은 시간과 관찰 범위를 적었다. 마르타가 일하던 르블레두의 근무표는 열 시 사십 분을 가리켰다. 그 주인은 퇴근 뒤 빵을 나누는 것까지 보았지만 마지막 길은 보지 못했다. 두 가게의 증언을 하나로 붙이면 그 사이에 카메라가 없던 시간이 사라져 버렸다.

카림이 확인을 마치자 가게 주인은 커서를 움직여 프로그램을 닫았다. 바탕화면에는 가격표 파일들이 나타났다.

* * *

7월 7일 토요일, 오후

변호사가 보내 온 통신사 자료에는 넓은 범위가 표시되어 있었다. 유족들이 오월 말 청구한 뒤 여러 차례 범위 조정을 거쳐 제출된 자료였다. 카림은 지도에 찍어 둔 작은 점을 지웠다. 마르타의 마지막 문자 시각과는 맞았지만, 회랑 안의 특정 지점을 가리키지는 않았다.

한나는 이번 달 이 일에 돌려받은 휴대전화를 변호사와 함께 확인했다. 기기에 남은 문자와 친구들 전화기의 음성메모는 다른 파일이었다. 클레르는 문자 속 '자리 좀 잡아줘'가 문구점 차양 아래서 만나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예전에도 거기서 빵을 먹고 쉬었다고 했다.

"회랑 안에 앉으려고 들어갔다는 말은 쓰지 말아 주세요."

"그렇게 확인된 게 없으니까요."

카림은 귀가 약속을 설명하는 말을 남기고 마지막 위치를 단정한 문장은 지웠다.

밤 열한 시 사십 분부터 자정이 지난 열두 시 오 분 사이. 개별 사망 시각은 그보다 좁힐 수 없었다. 접속과 전산 접수 사이의 스물네 분 공백은 그 뒤에 시작했다. 같은 밤 열한 시 오십오 분의 봉쇄 유지 기록은 사망 시간 범위 안에 있었다. 카림은 두 기록을 떨어뜨려 놓았다. 어느 순간 어떤 선택으로 누가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까지 확인된 것은 아니었다.

경찰의 음향 장비 사용 기록은 확인됐으나 다른 소리의 발원과 각각의 현장 영향은 여전히 빈칸이었다. 카림은 그 칸을 채우지 않고, 확인된 집결 유지와 경고 미전달·기록 삭제의 문장으로 돌아갔다.

* * *

7월 8일 일요일, 오후 — 카림

편집장이 제목을 물었다. 카림은 사망 경위와 기록 공백, 삭제된 경고, 사진 사용을 나눈 초안을 보여 주었다.

"한 번에 읽히겠어?"

"앞에 그날 밤을 놓고, 그 뒤에 기록을요."

카림은 사진 사용 경위를 남겨 둔 채 문장을 줄였다. 소피에게는 지역면과 전국판 사진을 함께 띄워 달라고 했다. 둘 다 세 사람이 나왔다. 한나에게 확인한 날짜는 사월 십사 일과 십오 일로 달랐다.

"사진을 새벽전선에 다시 준 적 있습니까?"

소피는 없다고 했다. 원본 크기와 잘린 위치를 대조한 로맹의 설명도 같았다. 신문과 포스터는 같은 촬영 파일에서 따로 나왔다. 한쪽에는 한나와 촬영자에게 확인한 소피의 메모가, 다른 쪽에는 레아가 보낸 파일과 에티엔이 승인한 발주서가 있었다. 한나는 허락하지 않았다고 답했고, 레아도 별도 허락을 받은 적은 없다고 회신했다.

레아는 이미 보도된 사진이며 공동 추모를 위한 사용이었다고 설명했다. 마르타를 회원으로 표시한 적도 없다고 했다. 카림은 그 반론 옆에 새벽전선 연락처가 찍힌 사진과 가입 안내가 함께 배포된 지역의 자료를 붙였다. 가입 안내를 거절한 지역은 따로 적었다.

베르니 노동조합 지부가 보낸 회의 기록에는 사망 사건 전부터 준비한 공공교통 문제의 상경 계획이 있었다. 일곱 명의 사망 뒤 조사 요구가 더해졌고, 게시판에는 마르타의 포스터가 붙었다. 카림은 버스를 빌리기로 한 날짜를 확인했다.

사월 이십이 일 방송의 촬영감독도 답을 보내왔다. 무대의 큰 사진과 연설자가 함께 잡히는 자리는 현장 취재 때문에 골랐다고 했다. 카림은 무대 배치와 방송 구도에 답한 사람을 각각 적었다. 새벽전선이 방송 편집을 지시했다는 증거는 없었다.

마지막으로 육월 추모제 음성을 원음과 번갈아 재생했다. 원음에서는 컵을 놓고 다투다가 가상의 도시 날씨로 돌아왔고, 무대에서는 그 한 문장 앞뒤가 잘려 있었다. 그는 사월 십이 일의 문자와 다른 줄에 파일 이름을 적었다. 이 음성이 조직으로 간 것은 첫 포스터 발주 뒤였다.

편집장이 돌아와 첫 문단을 읽었다. 고친 것은 첫 문장의 조사 하나였다.

"여기까지 와서 헷갈리게 쓰면 안 되지."

카림은 고친 문장을 소리 내어 읽었다.

# 제33장 기사가 남는 곳

7월 9일 월요일, 오후 — 카림

기사는 새벽에 공개되었다. 점심 무렵 편집장은 부두 취재에 사람을 한 명 더 보낼 수 있느냐고 물었다. 지난주부터 교대표와 억류 조치를 두고 협상이 이어지고 있었다. 카림은 그곳에 다녀온 동료의 기록을 넘겨주었다.

마르타 기사 아래에는 이름 철자를 바로잡아 달라는 댓글이 하나 있었다. 일곱 명 중 한 사람의 친척이 남긴 것이었다. 카림은 가족에게 확인한 기록과 대조했다. 이름은 맞았지만 읽는 법을 알 수 없는 표기였다. 그는 발음을 설명하는 주석을 덧붙이고 댓글에 답했다. 조회 화면은 그 뒤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한나는 인쇄한 기사를 가지고 법률상담소에 갔다고 전화했다. 자신이 준 사진이 어떤 길로 쓰였는지 이제 종이에 놓고 설명할 수 있다고 했다.

"니콜라 아버지한테도 보냈어요."

한나가 말했다. "사진이 없어도 그 아이 일은 여기 있더군요."

카림은 공동소송의 자료 목록을 다시 확인했다. 공개 가능한 출처와 원자료 보관처를 별도 파일로 정리해 변호사에게 보냈다.

전화가 끝난 뒤 새벽전선의 페이지를 열었다. 기사를 반박하는 긴 성명은 없었다. 다음 주 주거 협의체 참여 안내가 상단에 있었다. 그 아래에 추모 행진 때 등록한 사람들에게 보내는 소식지가 있었다. 기사에서 확인한 사실들이 공개되어 있는 동안에도 그 연락처들은 사용되고 있었다.

* * *

7월 9일 월요일, 저녁 — 클레르

루시앙은 그녀가 돌아오기 전에 기사를 읽었다. 식탁 위에 인쇄한 것이 놓여 있었다. 클레르는 그가 표시한 곳부터 보려다 가방을 먼저 내려놓았다.

"기자한테 대답했어?"

"내가 직접 아는 건 답했어. 그날 들은 것도."

클레르는 기사에서 그의 이름을 찾았다. 조직 채널에서 경고를 받았다는 확인이 있었다. 누구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지 않았는지는 그가 확인한 범위에서 따로 적혀 있었다. 죽음을 막을 수 있었다는 문장은 없었다.

그녀는 마지막 장을 다시 앞으로 넘겼다. 한나가 어떤 사진을 골랐는지, 그 사진이 포스터로 쓰일 때 어떤 절차가 없었는지가 나왔다. 클레르 자신이 배포를 도왔다는 설명도 있었다.

"이 부분은 빼달라고 안 했네."

루시앙이 말했다.

"내가 말했다고 했잖아."

그는 손을 거두었다. 클레르는 자기가 방어하듯 답한 것이 싫었지만 말을 다시 꾸미지 않았다.

전화기에 친구가 기사를 공유한 것이 떴다. 그 아래에는 부두에서 사람들이 다투는 짧은 영상이 있었다. 마르타 기사를 보냈던 방에서 누군가 그 영상을 두고 웃었다. 클레르는 방을 나가려다 멈췄다. 그 사람에게 사월 십이 일이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을 이유는 없었다. 그렇다고 지금 웃는 얼굴을 보고 싶지는 않았다. 알림을 껐다.

한나에게 전화가 왔다. 줄을 그은 부분이 있는데 내일 같이 읽을 수 있느냐고 했다. 클레르는 몇 시가 좋으냐고 물었다. 루시앙은 두 사람의 통화가 끝날 때까지 종이를 모으지 않았다.

* * *

7월 12일 목요일 — 클레르

휴일 아침에 루시앙은 아무 약속도 없다고 말했다. 클레르는 자기도 없다고 했다. 둘은 늦게 일어나 영화를 보러 갔다. 자막이 빠르게 지나가서 클레르가 마지막 대사를 놓쳤다. 밖에 나온 뒤 물었더니 루시앙도 못 읽었다고 했다. "그 사람 돌아온 거 아냐?"

클레르가 물었다.

"난 떠나는 줄 알았는데."

"같은 역이었잖아."

"아까 그 역이었어?"

그가 너무 진지하게 물어서 클레르는 웃음을 터뜨렸다. 루시앙도 웃었다. 둘 다 끝까지 봤다고 우기기에는 놓친 것이 많았다.

비가 와서 카페에 들어갔다. 루시앙이 창가를 잡았고 클레르가 주문했다. 그가 사흘 전 기사 이야기를 꺼내려 하자 그녀는 오늘은 잠깐 쉬어도 되냐고 물었다. 그는 알겠다고 했다. 그녀는 커피를 마시는 동안 다른 것을 보고 싶었다.

맞은편 집 창문에서 누군가 화분을 옮기고 있었다. 루시앙은 자기 어머니도 비가 오면 저렇게 한다고 말했다. 클레르는 그 집의 말라 죽은 화분을 기억해 웃었다. 그가 물을 너무 많이 줘서 죽었다고 했다. 서로 알고 있는 오래된 이야기가 아직 많았다.

집으로 걸어오는 길에는 손을 잡았다. 클레르가 먼저 잡았다. 루시앙은 그 손을 자기 코트 주머니에 넣었다. 집에 도착해서는 침대에 함께 누웠다. 오후가 길었다. 그녀는 그의 목덜미를 만졌고 그가 눈을 감는 것을 보았다. 이 몸에 익숙하다는 사실은 그날도 다정했다.

저녁에 그는 다음 달에도 하루쯤 이렇게 나가자고 했다. 클레르는 식탁 옆 달력을 펼쳤다. 팔월 근무표가 아직 나오지 않아 날짜를 고를 수는 없었다.

"나오면 보자."

루시앙은 고개를 끄덕였다. 달력은 펼쳐 둔 채 그가 감자를 씻고 클레르가 양파를 썰었다.

* * *

7월 14일 토요일

기록 변조와 방해, 집결과 봉쇄 유지의 과실 여부에 관한 예비수사가 시작됐다는 통지가 왔다. 카림은 기사를 보완했다. 기소나 판결이 나온 것은 아니었다. 편집장은 짧은 후속 기사 자리를 잡아 주었고, 카림은 제목에 '착수'를 썼다.

마르셀이 전화해 왔다. 아들 이름을 빼지 말아 줘서 고맙다고 했다. 그는 여전히 아들 사진을 보내지 않았다. 대신 접수한 청구서에 사건 번호가 붙었다는 소식을 전했다. 카림은 그 번호를 적었다.

# 제34장 다음 명함

7월 19일 목요일 — 가브리엘

새 업무 분장표에서 가브리엘의 이름은 분류 고시 후속 검토에 없었다. 그 자리에는 후임 참사관이 들어갔다. 가브리엘에게 남은 것은 진행 중인 기록의 인계와 한시적인 질의 응답이었다.

차관은 이해관계 때문에 필요한 조정이라고 말했다. 가브리엘은 딸 사건의 실무에서 빠지는 것에는 이미 동의했다고 답했다. 이번 표는 그보다 넓었다. 앞으로의 고시와 후속 법안에서도 빠져 있었다.

"일반 의견을 그런 형태로 제출하시면 같은 팀으로 검토하기 어렵습니다."

차관이 말했다. 급여와 직함이 당장 바뀌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가브리엘이 계속 맡을 줄 알았던 일이 다른 사람에게 갔다. 그는 수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률관은 오후에 새 초안을 들고 왔다가 문 앞에서 멈췄다. 이제 누구에게 먼저 보여야 하는지 알고 있었다. 가브리엘은 후임에게 가져가라고 했다. 그녀는 망설이다 고개를 숙였다.

그가 맡을 마지막 확인 중 하나는 다음 날 협상 후속 회의의 인계였다. 그는 유족을 대표한다고 잘못 적혔던 첫 명단과 정정된 명단을 함께 넣었다. 삼월 팔 일 검토도 목록에서 빼지 않았다. 후임은 오래된 문서는 별도 보관으로 돌려도 되겠다고 했지만, 가브리엘은 조건의 이행을 확인해야 하니 참조 목록에 남겨 달라고 했다.

집에 돌아온 뒤 클레르에게 전화했다. 업무가 바뀌었다는 말은 했다. 그다음 말을 고르는 데 시간이 걸렸다.

클레르는 새 담당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가브리엘은 이름을 말했다.

"그 사람도 아빠가 냈던 것 읽어요?"

"읽게 넘겼다."

"그러면 됐어요."

딸은 그렇게 말하고 잠깐 침묵했다.

"괜찮아요?"

가브리엘은 괜찮다고 바로 답하지 못했다. 서운하다고 했다. 클레르는 식사를 했느냐고 물었다. 그는 아직이라고 했다. 딸은 자기도 이제 먹을 거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통화를 조금 더 했다.

* * *

7월 20일 금요일 — 가브리엘

가브리엘은 잔여 기록을 인계하고 합의 경위를 확인하는 담당으로 회의에 왔다. 새 안건의 법률검토는 후임이 맡았다. 협의체 회의실 앞에 새 명함들이 놓여 있었다. 새벽전선은 이름에 시민전선을 덧붙였다. 가브리엘은 참석자 명단에서 새 명칭으로 고쳐진 자리를 찾았다. 그 자리에 들어갈 권한은 지난달의 합의와 위촉 절차에서 나왔다.

에티엔이 주거 개선안의 첫 안건을 설명했다. 수리 요구를 다음 회의에서 묶자는 말이 나오자 그는 상담실에 접수된 건부터 이번 회의록에 남기자고 했다. 담당자는 우선 전체 사업부터 정하자고 답했다.

"그럼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눠 주십시오. 다음에 또 같은 서류를 들고 오게 하지 말고요."

후임 참사관이 검토가 필요한 항목에 표시했다. 담당자는 접수된 요구서 목록을 회의록에 붙이겠다고 했다. 에티엔은 뒤에 앉은 상담 담당자에게 목록을 달라고 손을 내밀었다.

사진기자가 뒤의 패널을 조금 옮겨도 되느냐고 물었다. 마르타의 얼굴이 새 로고를 가리고 있었다. 진행자는 패널을 벽 쪽으로 밀었다.

가브리엘은 예비수사 진행을 보고한 문서를 따로 가지고 있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의 자격을 박탈하려면 별도의 판단과 절차가 필요했다. 에티엔은 누군가 관련 질문을 하자 수사에 응하겠다고 짧게 답하고 주거 안건으로 돌아갔다.

회의가 끝난 뒤 가브리엘은 회의록에서 마르타라는 이름을 찾았다. 없었다. 그는 그 이름을 억지로 넣지 않았다. 대신 참석 자격과 합의 경위가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해 담당자에게 돌려주었다. 복도에는 새 명함을 받아 가는 사람들이 남아 있었다.

* * *

7월 20일 금요일, 오후 — 클레르

상담실은 전보다 찾기 쉬웠다. 거리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문에 새 명패가 붙어 있었다. 클레르는 복도에서 미레유를 알아봤다. 그녀는 젖은 우산을 접으며 오늘은 순서가 길지 않다고 말했다.

"이사했어요?"

클레르가 묻자 미레유는 아직 같은 집이라고 했다. 수리 요구서를 따로 내고 나서 욕실 물이 새는 것은 고쳤다고 했다. 임대료 문제는 남았다. 그래서 또 왔다고 했다.

"여기로 계속 오세요?"

"다른 데는 퇴근하고 못 가요."

미레유가 번호표를 보여 주었다. 창구의 여자가 부르자 그녀는 클레르에게 먼저 들어가겠다고 했다. 전에 명단에서 이름을 빼달라고 했던 여자가 같은 단체가 붙은 문으로 들어갔다. 클레르는 따라 들어가지 않았다.

레아가 복사실에서 나왔다. 클레르는 한나가 보낸 추가 요청을 건넸다. 이미 공개한 음성 편집본이 어느 곳에 남아 있는지 알려 달라는 것이었다. 레아는 자료 담당자에게 전달하겠다고 했다.

"답은 나 말고 적힌 주소로 보내줘."

클레르가 말했다.

"알겠어요."

레아는 종이를 읽었다. 웃거나 변명하지 않았다. 클레르는 접수한 날짜를 써 달라고 했다. 레아가 책상으로 돌아가 날짜를 적고 사본을 내줬다. 클레르는 날짜를 확인하고 가방에 넣었다.

밖으로 나오니 미레유가 창구 안에서 말하는 모습이 유리 너머 보였다. 상담하던 여자가 배관공의 번호를 찾아 주었다. 클레르는 그 여자가 자기 계약서에서 잘못된 계산을 짚어 주던 날을 기억했다.

아버지에게 식사를 했느냐고 메시지를 보냈다. 한 시간 뒤 답이 왔다. 했다는 말 뒤에 무엇을 먹었는지 길게 적혀 있었다. 클레르는 대답을 읽으며 정류장까지 걸었다.

# 제35장 남겨 둔 선반

8월 12일 일요일 — 클레르

지난달의 휴일 뒤에도 둘은 함께 장을 보고 밥을 먹었다. 루시앙은 약속을 잡기 전에 먼저 말했고, 클레르는 몇 번은 천천히 오라는 말까지 했다. 그가 먼저 잠든 밤에는 그의 팔을 자기 쪽으로 끌어오기도 했다.

그가 어디 다녀올지 설명하면 클레르는 알겠다고 했다. 대답하고서도 머릿속으로 시간을 맞춰 보는 날이 있었다. 침대에서 등을 붙이고 누워 있다가 그 생각이 들면, 돌아눕는 대신 눈을 꼭 감았다.

예약 담당자의 두 번째 메일은 루시앙이 먼저 읽었다. 날짜를 확정하지 않으면 다른 예약을 받겠다는 내용이었다. 유보 기간은 이달까지였다.

"같이 전화할까?"

그가 물었다. 클레르는 그 메일을 자기 앞으로 넘겨 달라고 했다. 같은 내용을 읽는 데에도 시간이 걸렸다. 몇 달 전에는 좋은 날을 고르지 못했던 것이었다. 지금은 그와 결혼한다는 말을 다시 할 수 없었다.

"나는 날짜를 못 고르겠어."

그녀가 말했다.

"더 미루는 건?"

"얼마나 더?"

루시앙은 의자에 앉았다. 오월에도 같은 질문을 했었다. 그때는 둘 다 알 수 없었고, 모른다는 말을 함께 두었다. 이번에는 클레르가 대답을 알고 있었다.

"네가 뭘 한 번 더 잘못하면 끝내겠다고 생각하는 게 싫어."

그녀가 말했다. “나 계속 기다리고 있어. 또 안 말한 게 있나 하고. 없는 날에도.”

“지금은 먼저 말하려고 하잖아.”

그가 말했다. 클레르는 안다고 답했다. 최근에 그가 숨긴 일을 새로 찾아낸 것은 아니었다. 전화가 오면 누구인지 말했고, 약속을 잡기 전에 물었다.

“당신이 원하는 만큼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

루시앙이 말했다.

“나도 그러고 싶었어.”

그는 얼굴을 숙였다. 클레르는 그 모습을 보고 말을 거두고 싶었다. 일어나 안아주면 오늘 저녁은 넘길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런 저녁을 여러 번 넘겼다.

“같이 살지는 못하겠어.”

그녀가 말했다. 목소리는 생각보다 작았다. 루시앙은 한동안 답하지 않았다. 그러고는 오늘 나가야 하느냐고 물었다.

“아니. 갈 곳부터 구하자.”

집의 임대차 계약은 클레르의 이름이었다. 루시앙은 어머니 집에 며칠 있을 수 있지만 출근길이 너무 길다고 했다. 직장 가까운 곳의 방을 알아보겠다고 했다. 그녀는 그때까지 여기 있어도 된다고 말했다. 그것을 말할 수 있다는 데서 잠깐 안도했고, 그 안도 때문에 다시 슬퍼졌다.

클레르는 예약 담당자의 번호를 눌렀다. 전화기를 둘 사이에 놓고 스피커를 켰다.

“날짜를 풀어 주세요.”

담당자가 반환되지 않는 금액을 말하자 루시앙은 클레르를 보았다. 자기가 부담하겠다고 했다.

“반씩 냈잖아. 손해도 반씩 두자.”

클레르가 말했다.

담당자는 취소 확인서를 보내겠다고 했다. 통화가 끝난 뒤에도 루시앙은 탁자 위 전화기를 보고 있었다. 클레르가 컵을 치우려 하자 자기가 하겠다고 했다. 그녀는 하나씩 가져가자고 했다.

* * *

8월 24일 금요일 — 클레르

돌아온 예약금은 처음 돈이 나갔던 계좌로 들어왔다. 클레르는 루시앙에게 그의 몫을 보냈다. 반환되지 않은 부분은 장부에 남겨두었다. 둘은 그 숫자를 다시 흥정하지 않았다.

루시앙은 임시로 지낼 방을 구했다. 직장 동료가 아는 사람이 방 하나를 빌려주기로 했다고 했다. 책상을 놓을 수는 있지만 책장을 통째로 가져가기는 어려웠다. 클레르는 책장은 여기 두자고 했다. 둘이 산 것이었고, 그가 고쳤고, 지금도 그녀가 쓰고 있었다.

"얼마를 줘야 해?"

그녀가 묻자 그는 계산하지 말자고 했다. 대신 자기가 가져갈 작은 서랍장을 가리켰다. 클레르는 그것을 쓰지 않으니 괜찮다고 했다. 노트에 적으려다 말고 상자 두 개를 꺼냈다. 소유를 적는 것보다 물건을 넣는 쪽이 빨랐다.

컵은 각자 쓰던 것을 하나씩 갖기로 했다. 루시앙이 자기 컵을 상자에 넣으려 하자 클레르는 나가는 날까지 쓰라고 했다. 그는 찬장에 돌려놓았다.

그가 선물한 반지는 바로 돌려주지 않았다. 루시앙도 달라고 하지 않았다. 클레르는 작은 상자에 넣어 자기 서랍에 두었다.

한나는 지난번 빌려갔던 마르타의 가게 견적서와 재료표 사본을 돌려주었다. 원본은 한나가 보관하고, 클레르가 상담 때 만들었던 파일만 다시 가져왔다. 클레르는 루시앙의 책을 뺀 자리에 그 파일을 눕혔다.

* * *

8월 30일 목요일, 저녁 — 클레르

서른 날 저녁, 루시앙은 새 거처 주소를 적어주었다. 남은 우편을 받을 수 있게 했다. 클레르는 그가 쓰는 동안 우편번호를 한 자리 잘못 적었다고 알려주었다. 그는 고쳐 쓰고 종이를 건넸다.

"내일 몇 시에 와?"

"차는 여덟 시 반쯤."

그녀는 출근 전에 도와줄 수 있다고 했다. 루시앙은 큰 것은 이미 옮겼다고 답했다. 남은 상자가 현관 벽에 붙어 있었다. 둘은 상자 사이를 지나 부엌으로 갔다. 저녁을 먹을 자리까지 치울 수는 없었다.

* * *

8월 31일 금요일, 아침

루시앙은 찬장에서 자기 컵을 꺼냈다가 다시 넣었다. 클레르는 커피가 남아 있다고 했다. 그는 조금만 달라고 했다. 두 달 동안 이런 말은 다시 할 수 있게 되었다. 누가 우유를 샀는지, 어느 날 늦게 오는지. 한동안은 그것으로도 지낼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녀는 그의 컵에 커피를 따랐다. 오늘 가져갈 것은 현관에 모여 있었다. 책장은 남기기로 했다. 그가 가져갈 책을 빼낸 자리에 한나가 돌려준 파일이 놓여 있었다. 안에는 마르타가 접어 두었던 가게 견적서의 사본과 레몬 크림 재료표 사본이 있었다.

루시앙은 파일을 보다가 자기 책 한 권을 다시 꺼냈다. 그 뒤에 있던 봉투가 바닥으로 떨어질까 봐 손으로 받쳤다. 클레르는 그가 물건을 조심히 다루는 것을 보았다. 이 손이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상했다.

"그날 내가 보냈으면 어떻게 됐을지는 몰라."

그가 말했다.

클레르는 그 말에 다투지 않았다.

"한나가 싫다고 했을 때는 알았잖아."

그는 컵을 내려다봤다.

"응."

"내가 보내지 말라고 했을 때도."

"알아."

클레르는 컵에 남은 커피를 마셨다. 루시앙이 먼저 일어나 자기 컵을 헹궜다. 물기를 닦다가 손잡이 안쪽에 남은 물방울을 한 번 더 훔쳤다. 그는 수건을 싱크대 가장자리에 펴 놓았다.

컵은 작은 상자에 들어갔다.

루시앙은 마지막 상자를 들었다. 노란 고리가 달린 복제 열쇠를 식탁 끝에 놓았다. 그의 새 거처 주소는 전날 종이에 적어 받았다. 남은 우편이 오면 연락하기로 했다.

문 앞에서 그가 그녀를 보았다. 클레르는 어깨에 묻은 먼지를 떼어 주었다. 책장을 움직이지 않았는데도 먼지는 생겼다. 손을 내리고 나니 포옹할 때가 지나가 버렸다.

"가면 연락해."

그녀가 말했다. 루시앙은 알겠다고 했다.

# 제36장 사진 뒷면

9월 1일 토요일, 아침 — 클레르

루시앙은 전날 도착했다고 연락했다. 클레르는 알았다고 답했다. 오늘 아침에는 그 대화창에 새 글이 없었다.

집을 나가기 전에 우편함을 확인했다. 전기 요금 안내와 식당 광고가 있었다. 그의 이름이 적힌 것은 없었다. 클레르는 두 장을 가방 안에 넣었다. 현관으로 다시 올라가기가 싫었다.

정류장에 도착하자 한나에게서 전화가 왔다. 꽃집에서 만나기로 한 것을 집 앞으로 바꾸면 어떻겠느냐고 했다. 가져갈 것이 더 있다고 했다. 클레르는 다음 정류장에서 내려 걸어가겠다고 했다.

버스 안에서 엽서 뒷면을 다시 읽었다. 장난스러운 소식을 적었을 때는 좋았는데 아침에 보니 어리석은 것 같았다. 마르타가 읽을 수도 없었다. 그녀는 엽서를 가방 속에 깊이 넣었다가, 내려야 할 정류장이 가까워지자 다시 꺼내 들었다.

* * *

9월 1일 토요일, 오후 — 클레르

한나는 꽃보다 먼저 사진을 꺼냈다. 냉장고에 붙어 있던 것이었다. 모서리에 자석 자국이 남았다. 클레르는 사진 속 자신의 팔이 마르타의 팔에 걸려 있는 것을 보았다. 반대편의 루시앙은 눈을 뜨고 있었다. 마르타가 두 번째 사진을 고른 이유가 생각났다.

“로맹이 새로 뽑아 준다는데 이것도 괜찮아요.”

한나가 말했다. 그녀는 사진을 묘비 앞에 세워 두지 않고 손에 들고 있었다. 사진이 젖거나 바람에 날아갈까 봐 그랬다.

클레르는 가져온 엽서를 건넸다. 낯선 도시의 강 위에 다리가 놓여 있었다. 뒤에는 자기가 쓴 짧은 소식이 있었다. ‘카페르나는

다리가 고쳐졌대요. 강 건너 카페가 더 맛있는지는 아직 몰라요.’ 한나는 읽고 웃다가 카페는 확인하고 써야 한다고 말했다.

마르셀은 오늘 니콜라가 묻힌 곳에 간다고 했다. 이 묘지와는 다른 곳이었다. 한나는 그가 보내 온 꽃 사진을 보여 주었다. 옆에 공동소송의 다음 일정이 적혀 있었다.

카림에게서는 기사와 출처 목록이 대학 기록보관소에 들어갔다는 연락이 와 있었다. 클레르는 답장을 보내고 전화기를 넣었다. 한나는 사진을 뒤집어 날짜를 확인했다. 사월이 아니라 삼월이라고 혼잣말하듯 말했다.

“그날 먹은 건 맛있었어요?”

“마르타가 두 번 샀어요. 마카롱.”

“그러면 맛있었네.”

한나는 사진을 봉투에 넣었다. 클레르는 남은 꽃 포장지를 접었다. 집에 가는 길에 한나가 그 가게 이름을 물으면, 알고 있는 대로 말해 줄 생각이었다.